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현대중국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연구

现代汉语动量短语与宾语语序研究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王 貝 貝

현대중국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연구

指導敎授 朴 正 九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年 5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王 貝 貝

王貝貝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年 7月

委 員 長 _____ 이 강 재 _____ (印)

副委員長 _____ 이 옥 주 _____ (印)

委 員 _____ 김 현 철 _____ (印)

委 員 _____ 신 준 호 _____ (印)

委 員 _____ 박 정 구 _____ (印)

【국문초록】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뒤에 동량구와 명사성 성분인 목적어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V+Q+N'과 'V+N+Q' 등 두 가지 어순으로 쓸 수 있다. 본고는 주로 'V+Q+N'과 'V+N+Q' 등 두 가지 어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의 결정적인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담화 분석 등 측면에서 고찰했다.

본고는 어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관련한 기초 연구를 먼저 진행했다. 제 1 장에서는 각 전용동량사의 의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동량사들을 의미에 따라 분류했다. 제 2 장에서는 두 어순의 통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통사적 차원에서 'V+Q+N' 구조의 동량구는 유동적이다. 어떤 동량구는 V 와의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보어로 인식할 수 있고, 어떤 동량구는 N 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여 관형어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어떤 동량구는 중간 지대에서 모호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동량구의 실제 모습은 보어에서부터 관형어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건 명사류와 특정 동량구가 결합한 구조에서 N 은 사건명사이고 Q 는 관형어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순이 고정적이고 변화할 수 없다. 'V+N+Q' 구조의 경우에는 '一+동량사'가 문법화가 되었다면 동량구의 기능은 동상보어이고, 그 밖에 동량구는 모두 일반적 보어로 간주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치면 동량구는 모두 보어로 분석할 수 있다.

제 3 장에서는 의미역의 관점에서 왜 어떤 의미역은 동량구 뒤에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역은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어순 변환 테스트를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그리고 종점 장소 의미역들은 '사건외' 동량구와 공기할 경우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역들은 동량구의 뒤에만 위

치할 수 있다. 한편 '사건내' 동량사가 '下'인 경우 피행위자 목적어가 유정이든 무정이든 상관없이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역들은 동량구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본고는 어떤 의미역이 'V+N+Q'의 어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타동성 등급임을 증명하였다. 즉 어떠한 의미역이 동량구와 결합하는 경우,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이 일정 정도가 되어야만 동량구 앞에 출현할 수 있다.

제 4 장에서는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변이는 N 의 심적 표상 상태에 의해 제한된다. 'V+N+Q' 어순은 N 의 확인가능성이나 활성화정도가 높을 것을 요구한다. 반면 'V+Q+N' 어순은 N 이 상대적으로 확인불가능하거나 활성화정도가 낮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적 표상이 동일한 N 이 두 어순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 5 장에서는 초점 구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동일한 진리값을 가진 두 구문이 서로 다른 초점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 문장에서 'V+Q+N'이 속하는 문장의 자연초점은 N 에 있지 않으며, 그 기본 초점 구조가 서술어초점이다. 이때 화자의 주요 의도는 주제에 대한 논평 또는 사실의 발생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V+Q+N'은 무표적인 초점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V+N+Q'는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초점구조이다. 화자가 사건이나 동작의 횟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할 때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싶을 때, 동량구를 문말에 놓고 강세를 부여하며 초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V+N+Q'의 초점구조는 논항초점이다. 그러나 Q 가 허화된 성분이라면 초점 영역이 전체 서술어로 확장되어 서술어초점이 된다. 또한 두 구조에서 초점 민감 연산자가 나타나는 경우 본고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특별한 초점 책략을 취하는 문장으로 본다. 이때 동량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관계없이 초점 민감 연산자는 항상 동량구와 관련되어 해당하는 문장은 논항초점을 형성한다.

제 6 장에서는 주로 담화 분석의 시각으로 두 구문의 담화 기능을 대조했다. 'V+N+Q' 구문은 후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V+Q+N' 구문은

이러한 특징이 없고 임의로 전경 혹은 후경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은 종속절과 내포절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동량구가 식별 가능한 목적어와 공기할 때 이를 후경 정보로 설정하려면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V+Q+N’에 비해 ‘V+N+Q’ 구문에서 N(유정 피행위자나 유정 대상)은 후속 텍스트에서 다시 언급될 확률이 더 높고 화제 연속성도 더 강하다. 이는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텍스트 안에 화자가 목적어인 N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N을 Q 앞에 두는 어순을 더 선호함을 뜻한다.

위에서는 연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결론을 나열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한 어순의 출현이 반드시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화자의 언어 산출에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 어순이 산출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동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요컨대, 현대중국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 연구는 주로 한 각도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본고는 통사 구조 분석에 기반하여 의미, 화용, 담화 차원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기제들을 밝혔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의 차원에서도 여러 요소의 작동 기제를 찾아낼 수 있다.

주요어: 동량구, 목적어, 어순, 통사구조, 타동성, 의미역, 지시체 심적 표상, 초점구조, 담화 분석, 전경, 후경, 화제 연속성, 도상성

학 번: 2018-34669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1.1 문제 제기 ····· 1
1.2 선행연구 검토 ····· 4
1.2.1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 ····· 4
1.2.2 정보구조의 관점 ····· 5
1.2.3 인지 언어학의 관점 ····· 7
1.2.4 생성문법의 관점 ····· 9
1.2.5 역사언어학의 관점 ····· 12
1.3 연구 범위 ····· 13
1.3.1 전용동량사의 기본적인 의미 특징 ····· 14
1.3.2 각 동량사의 의미 특징 ····· 18
1.3.3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 ····· 26
1.4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 27
1.5 논의의 구성 ····· 31

제2장 ‘V+Q+N’과 ‘V+N+Q’의 통사구조 ····· 34

2.1 통사구조 논의의 필요성 ····· 34
2.2 ‘V+Q+N’의 통사구조 ····· 35
2.2.1 동량구와 관형어 ····· 35

2.2.2 동량구와 보어 ····· 41
2.2.2.1 기존연구 검토 ····· 41
2.2.2.2 '把'자문과 동량구 ····· 43
2.2.3 사건명사와 동량구 ····· 46
2.2.4 동량구의 새로운 해석 ····· 48
2.3 'V+N+Q'의 통사구조 ····· 51
2.3.1 '이중타동구조설'의 문제점 ····· 52
2.3.2 술어설 ····· 54
2.3.3 보어설 ····· 56
2.3.3.1 통시적 관점 ····· 56
2.3.3.2 '一+동량사'가 허화된 경우 ····· 59
2.4 소결 ····· 61

제3장 타동성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미치는 영향 ····· 63

3.1 기존연구 검토 ····· 64
3.2 연구방법 ····· 66
3.2.1 연구절차 ····· 66
3.2.2 각 성분의 범위와 형식 설정 ····· 67
3.2.2.1 목적어의 의미역 분류 ····· 67
3.2.2.2 목적어와 술어의 형태 ····· 71
3.2.2.3 동목구조의 운율과 어순 제한 ····· 73
3.3 어순 배열 분석 ····· 76
3.3.1 'Q(次)'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76
3.3.2 'Q(趟)'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78
3.3.3 'Q(遍)'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0
3.3.4 'Q(顿$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2
3.3.5 'Q(顿$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3

3.3.6 ‘Q(场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4
3.3.7 ‘Q(场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5
3.3.8 ‘Q(番)’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6
3.3.9 ‘Q(通)’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7
3.3.10 ‘Q(下)’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 89
3.3.11 분석 결과 ····· 90
3.4 타동성 등급과 의미역의 어순 출현 분포 ····· 92
3.4.1 타동성과 매개변수의 설정 ····· 92
3.4.2 각 목적어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 95
3.4.2.1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 95
3.4.2.2 ‘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106
3.4.3 논의 ····· 109
3.5 장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 110
3.6 소결 ····· 113

제4장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이 어순 선택에 주는 영향 ···· 115

4.1 정보구조 접근법 ····· 115
4.2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 116
4.2.1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 ····· 116
4.2.2 확인 가능성과 한정성 ····· 122
4.3 기존연구 검토 ····· 125
4.4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어순에 미치는 영향 ····· 129
4.4.1 연구 방법 ····· 129
4.4.2 판단 기준 ····· 131
4.4.3 예시에 대한 설명 ····· 132
4.4.3.1 ‘V+Q+N’ 중 N의 심적 표상 상태 예시 ····· 132
4.4.3.2 ‘V+N+Q’ 중 N의 심적 표상 상태 예시 ····· 135

4.4.3.3 통계 결과와 분석 ····· 138
4.5 소결 ····· 141

제5장 'V+Q+N'과 'V+N+Q'의 초점구조 ····· 143

5.1 초점구조 접근법 ····· 143
5.2 Lambrecht(1994)의 초점구조 이론 ····· 144
5.2.1 초점과 초점구조 ····· 144
5.2.2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초점구조 ····· 149
5.3 기존연구 검토 ····· 150
5.4 'V+Q+N'과 'V+N+Q'의 기본 초점구조 ····· 152
5.4.1 목적어의 형식과 문장 유형의 분류 ····· 152
5.4.2 'V+Q+N'의 초점구조 ····· 153
5.4.2.1 문장 층위 테스트 ····· 153
5.4.2.2 문맥과 관련한 테스트 ····· 155
5.4.2.3 'V+Q+N'에서 'Q+N'이 초점이 될 가능성 ····· 158
5.4.3 'V+N+Q'의 초점구조 ····· 159
5.4.3.1 문장 차원의 테스트 ····· 159
5.4.3.2 문맥과 관련한 테스트 ····· 161
5.4.3.3 '一+동량사'가 허화된 경우 ····· 164
5.4.4 두 구문의 강세 패턴 차이 ····· 165
5.4.4.1 어감 조사 ····· 166
5.4.4.2 논의 ····· 168
5.5 초점 연산자가 나타나는 경우 ····· 169
5.6 소결 ····· 172

제6장 어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담화 요인 ····· 173
6.1 담화 분석의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 ····· 173
6.2 후경화 정도 차이 ····· 175
6.2.1 전경과 후경 이론 ····· 175
6.2.1.1 전경과 후경의 개념 ····· 175
6.2.1.2 종속구조와 후경 ····· 176
6.2.1.3 BPF 원칙 ····· 184
6.2.2 'V+Q+N'과 'V+N+Q'의 후경화 기능 차이 ····· 185
6.2.2.1 종속절과 관련한 양상 ····· 186
6.2.2.2 내포된 능력 ····· 190
6.2.2.3 BPF 원칙의 적용 ····· 192
6.2.2.4 종합 통계 결과 ····· 194
6.3 화제의 연속성 차이 ····· 197
6.3.1 화제의 연속성 ····· 197
6.3.2 목적어의 화제 연속성 차이 ····· 199
6.4 소결 ····· 202

제7장 결론 ····· 204

【참고문헌】 ····· 209

【中文摘要】 ····· 223

〈표 목차〉

<표1-1> 각 동량사의 의미 특징 ····· 24
<표1-2>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의 구분 ····· 27
<표2-1> 동량구와 사건명사의 결합 예시 ····· 47
<표2-2> ‘V+Q+N’ 내부구조의 구분기준 ····· 49
<표2-3> ‘V+Q+N’ 의 통사구조 ····· 51
<표2-4> ‘V+N+Q’의 통사구조 ····· 61
<표2-5> ‘V+Q+N’과 ‘V+N+Q’의 통사구조 ····· 61
<표3-1> 장소 목적어의 의미 유형 ····· 69
<표3-2> ‘Q(次)’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78
<표3-3> ‘Q(趟)’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0
<표3-4> ‘Q(遍)’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2
<표3-5> ‘Q(顿$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2
<표3-6> ‘Q(顿$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3
<표3-7> ‘Q(场$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5
<표3-8> ‘Q(场$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6
<표3-9> ‘Q(番)’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7
<표3-10> ‘Q(通)’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89
<표3-11> ‘Q(下)’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 90
<표3-12> 동량사와 각 의미역이 결합하는 어순 패턴 ····· 91
<표3-13> 타동성 매개변수 Hopper & Thompson(1980) ····· 93
<표3-14>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 95
<표3-15> 개별화의 세분화 지표 ····· 100

<표3-16>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 예시 ····· 103
<표3-17> 의미역에서 본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 104
<표3-18> 구체적과 추상적 목적어의 예시 ····· 104
<표3-19> '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 107
<표4-1> 분석한 예문의 개수 ····· 130
<표4-2> 'V+Q+N'에서 N의 심적 표상 통계 결과 ····· 138
<표4-3> 'V+N+Q'에서 N의 심적 표상 통계 결과 ····· 138
<표4-4> 두 어순에서의 N의 심적 표상 대조표 ····· 139
<표4-5> 'V+Q+N'에서 N의 범주별 재배열 ····· 140
<표5-1> Lambrecht(1994)의 초점구조 분류 ····· 145
<표5-2> 두 구문에서 각 성분의 '강세 경향 계수' ····· 167
<표5-3> 두 구문의 초점구조 패턴 차이 ····· 172
<표6-1> 중국어 복문의 주요 유형 ····· 179
<표6-2> 두 어순의 후경화 비율 ····· 195
<표6-3> 두 구문 중 유정 목적어의 조응 빈도 ····· 201

〈그림 목차〉

<그림1-1> 동량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수형도 (Zhang 2017) ····· 10
<그림1-2> ‘V+N+Q’의 생성과정 (Zhang 2017) ····· 10
<그림1-3> ‘V+Q+N’의 생성과정 (Zhang 2017) ····· 11
<그림1-4> 연구 흐름도 ····· 32
<그림2-1> ‘V+Q+N’ 중에서 동량구의 연속체 양상 ····· 50
<그림3-1> 행위자와 피행위자 목적어, 대상 목적어의 관계 ····· 69
<그림3-2> 원형범주로 표현된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한 목적어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양상 ····· 106
<그림3-3> 원형범주로 표현된 ‘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한 목적어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양상 ····· 109
<그림4-1> 담화 지시체의 인지 상태 분류 ····· 117
<그림4-2> 확인가능성과 한정성의 관계도 (周士宏 2020) ····· 124
<그림4-3> 주제 수용가능성 등급(Lambrecht 1994) ····· 126
<그림4-4> ‘V+N+Q’에서 N의 수용가능성 등급 ····· 139
<그림4-5> ‘V+Q+N’에서 N의 수용가능성 등급 ····· 140
<그림5-1> ‘강세 경향 계수’ 대조도 ····· 167
<그림6-1> 두 구문이 비 종속구조에서 후경화되는 비율 ····· 195
<그림6-2> 두 구문에서 N의 평균 조응 빈도 분포 대조 ····· 201
<그림7-1> 어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207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뒤에 동량구와 명사성 성분인 목적어가 함께 출현할 경우 (1)처럼 두 가지 어순으로 쓸 수 있다. 즉 동량구는 (1a)처럼 목적어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고 (1b)와 같이 목적어의 뒤에 출현할 수도 있다.

(1) a. 小李进了一次城。
샤오리[1]는 성 안에 한 번 들어갔다.
b. 我去过北京三次。
나는 베이징에 세 번 가 본 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동량구가 목적어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V+Q+N'으로 표기하고, 동량구가 목적어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는 'V+N+Q'로 표기하고자 한다.[2]

실제 언어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어순이 자유롭게 변환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량구 뒤에만 출현할 수 있고 동량구의 앞에 출현하면 비문이 된다.

---

1) 본고 예문에서 사용하는 인명과 장소명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한국 국립국어원의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2) V 는 동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본고는 명사성 목적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어 위치의 모든 성분을 N 으로 표시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Deng(2013), 刘辉(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동량사의 영어 번역은 'Event Quantifier'로, 동량구는 Q 로 표시한다.

(2) a. 看了一场电影 ── *看了电影一场
영화를 한 편 보았다
b. 吃了两顿大餐 ── *吃了大餐两顿
만찬을 두 끼 먹었다
(3) a. 打了张三两次 ── 打了两次张三
장싼을 두 번 때렸다
b. 去了三次图书馆 ── 去了图书馆三次
도서관에 세 번 갔다
c. 拍了两下桌子 ── 拍了桌子两下
탁자를 두 차례 쳤다
d. 切了两次萝卜 ── *切了萝卜两次
무를 두 번 잘랐다
e. 演奏了一番二胡 ── *演奏了二胡一番
얼후를 한 번 연주했다
(4) a. 上了一次战场 ── *上了战场一次
전장에 한 번 나갔다.
b. 去了三趟北京 ── 去了北京三趟
베이징에 세 번 다녀왔다.

(2)는 'V+Q+N'의 구조로만 쓰일 수 있는 경우이다. (3)에서 a, b, c는 두 가지 어순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3d)와 (3e)의 경우에는 한 가지 어순만을 허용한다. (3a)와 (3b)에서와 같이 목적어가 사람이나 장소명사인 경우에는 두 가지 어순이 모두 허용된다. 그런데 (3c)의 '桌子'는 무정 피행위자이고 동량사 '下'와 결합할 때는 동량구의 앞과 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3d)의 '萝卜'도 무정 피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량사 '次'와 결합할 때는 동량구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또한, (4)는 동일한 장소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이지만 (4a)는 어순을 변환할 수 없는 반면, (4b)는 어순을 변환할 수 있다. 위 예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 두 어순이 모두 사용 가능한가? 둘째,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어순만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뿐 아니라, 하나의 명제가 두 가지 어순으로 표

현될 수 있지만, 두 문장은 어순만 다를 뿐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 a. 见过三次王菲。
왕페이를 세 번 본 적이 있다.
b. 见过王菲三次。

(5a)와 (5b)는 동일한 명제이지만, '王菲'와 같은 명사성 성분은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두 가지 어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어 화자가 발화할 때 한 어순을 채택하고 다른 어순은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두 어순의 정보구조 차이와 담화 기능 차이는 무엇인가?

구문(construction)[3]은 어떤 언어형식과 의미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언어의 단위이다. 'V+Q+N'과 'V+N+Q'는 두 개의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문 연구는 구문 안에 있는 각 요소 간의 관계 분석, 구문 의미의 요약, 구문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문 변이의 기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는 위에 제시한 질문들을 토대로 'V+Q+N'과 'V+N+Q' 두 가지 어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의 결정적인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그리고 담화 분석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구문 안에 위치하는 고유한 요소와 구문 밖에서 유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어 구문 변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3) Goldberg(1995)는 '구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C 가 형식과 의미의 짝(Fi, Si)이고 그 Fi 의 어떤 양상과 또는 Si 의 어떤 양상이 C 의 성분이나 이미 확립된 다른 구문으로부터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C 를 구문이라고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현대중국어 동량사에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주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邵敬敏(1998), 刘街生(2003), 周娟(2008), 刘辉(2009), 김영민(2009), Deng(2013), 李强・袁毓林(2016), 성기은(2021), 왕수(2021) 등은 중국어 동량사를 분류하고 각 동량사의 기본 의미를 연구했다. 또한 邵敬敏(1996)과 周娟(2009)은 주로 각 동량사와 결합하는 동사의 유형과 특징을 귀납했다. 한편 姚伟嘉(2010), 王毅力(2011), 李建平(2013), 高亚楠・吴长安(2014), 소영(2014) 등은 주로 동량사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고찰했기에 이 연구들은 동량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朱德熙(1982), 马庆株(1983), 石定栩(2006), 刘辉(2009), 성기은(2012), 李旭平(2020) 등도 동량구가 문장에서 어떤 통사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동량사에 대한 기초 연구이며, 본고는 제 2 장과 제 3 장에서 이 연구 성과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인용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는 수량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평가할 것이다.

1.2.1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

马庆株(1983)는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목적어가 사람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경우, 목적어는 동량구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반면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 결과, 도구, 주체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량구의 뒤에만 출현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결론만을 내렸을 뿐, 동량사를 세분화하거나 모든 동량사에 어울리는 목적어의 의미적 유형을 폭넓게 검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따

라서 그가 제시한 결론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6) a. 走了一次大桥。
대교를 한 번 지나갔다.
b. *走了大桥一次。
(7) a. 敲了桌子一下。
탁자를 한 번 두드렸다.
b. 敲了一下桌子。

예를 들어, (6)에서 목적어는 장소명사인 '大桥'이지만, 동량구가 뒤에 위치하는 (6b)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장소명사가 두 가지 어순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7)에서 목적어는 사람 명사가 아니더라도 동량구의 앞뒤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조적 위치뿐 아니라 의미관계나 화용적 요소도 어순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목 관계의 의미적 유형이 두 가지 어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1.2.2 정보구조의 관점

方梅(1993)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연구한 후 세 가지 주요 견해를 제시했다. 아래에서 예문을 제시하면서 그녀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8) a. 我和她一起看过几次电影。
나는 그녀와 함께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b. 我到家里找过她几次。
나는 그녀 집에 가서 그녀를 몇 번 찾았었다.
c. 昨天傍晚你到哪儿去了? 我去了一次二虎家。
엊저녁 너 어디 갔었지? 나는 얼후네 집에 갔었어.
d. 高洋走了……这期间, 只有我在昆明见了一次高洋。

가오양은 갔다……<중략>……그동안 나만 쿤밍에서 가오양을 한 번 봤다.

첫째, N 이 비지시(nonreferential) 성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V+Q+N' 어순을 채택한다. 이때 (8)a 처럼 '电影'은 비지시 성분이라서 동량구의 뒤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둘째, 두 종류 어순 중에 N 이 만약 지시(referential) 성분이라면, 한정(definite) 명사구가 될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N 이 한정명사구일 때, 'V+N+Q'의 어순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N 이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동사의 뒤에 위치해야만 한다. 셋째, N 이 한정명사구인 경우, 'V+N+Q' 어순에서의 N 은 (8b)의 '她'처럼 항상 구정보를 표현한다. 반면에 'V+Q+N' 어순에서의 N 은 주로 (8c)에서와 같이 신정보를 표현한다. 하지만 (8d)에서의 '高洋'과 같이 구정보를 표현할 때도 있다.

方梅(1993)는 지시와 정보구조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 관건이 되는 여러 기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비지시 성분이 동량구 뒤에 위치하지만, (9)처럼 동량구 앞에 위치하는 예문도 있다. 따라서 지시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극명한 두 어순의 대립을 설명할 수 없다.

(9) 你去向旋风纵队宣布, 每人记三等功一次。 (柳建伟『突出重围』)
너는 회오리 종대에 가서 모든 대원에게 3 등 공훈을 한 번씩 기록하라고 선언해라.

둘째, 方梅(1993)는 두 종류의 어순 중에 만약 N 이 지시 성분인 경우에는 한정 명사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코퍼스에서는 비한정성 명사구인 '수자+양사+명사' 구조가 (10)처럼 동량구 앞에 출현하는 예문이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10) 在超市门口停车的时候, 我不小心碰了一个大伯一下。(『都市快讯』2003)
슈퍼마켓 문 앞에 차를 세울 때 나는 실수로 어떤 아저씨를 한 번 쳤다.

셋째, 方梅(1993)는 한정명사구가 동량구의 앞과 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정명사구는 동량구 앞에 나타날 수 없다.

(11) a. 看了两遍小李的总结。
샤오리의 보고서를 두 번 봤다.
b. *看了小李的总结两遍。

이것은 실제로 목적어가 유정(animate)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본고 제3장에서는 타동성 이론을 이용해 이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N의 한정과 비한정의 대립만으로는 어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한정성보다는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상태를 통해 어순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2.3 인지 언어학의 관점

王静(2001)은 '개별성(个别性)'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어순 변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개별성'은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간 후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개별'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명사를 예로 들면 '书'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一本书'와 같은 수량 구조나 '这本书'와 같은 한정 명사는 모두 '개별적'인 개념이다. 높은 한정성을 가진 대명사, 고유명사, 호칭어는 모두 개별적인 개념이고 개별성도 강하다. 또한 구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유정명사는 개별성이 무정명사보다 높다. 그녀에 따르면 명사뿐만 아니라 동량구도 행동이나 사건을 개별화한다. 즉 '读了一遍红楼梦'는 '读红楼梦'이라는 사건이 한 번 발생한 것을 의

미하므로 동량구도 일종의 개별성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성이 높은 명사성 성분이 동량구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 어순에서 일종의 경쟁이 발생한다. 그녀는 개별성의 위계를 '대명사 – 동량구 – 유정명사 – 무정명사'로 제시하였으며 왼쪽으로 갈수록 개별성 등급이 높아지게 되고, 개별성 등급이 높을수록 동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위계를 통해 '打了我一下'나 '教训了他一顿'과 같은 구조에서 대명사가 동량구 앞에만 출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명사의 개별성이 동량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제시한 개별성 등급의 위계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12) a. 拍了一下桌子。
탁자를 한 번 쳤다.
b. 拍了桌子一下。

王静(2001)에 따르면, 동량구의 개별성 등급이 무정명사보다 높다면 '桌子'는 동량구보다 앞에 위치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대중국어의 사용 상황 중에서는 (12)의 경우와 같이 무정명사 '桌子'가 동량구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개별성' 가설만으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인지 언어학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룬 다른 중요한 연구로는 李湘(201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선택이 인지적 심리 책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선 사건을 사건 유형(event type)과 사건 개체(event token)로 구분하였다.

(13) a. 吃苹果有益于身体健康。
사과를 먹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다.
b. 吃苹果把牙酸倒了。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치아가 시렸다.

李湘(2019)에 따르면 (13a)에서의 '吃苹果'는 사건 유형을 의미하고, (13b)의 '吃苹果'는 특정한 시간에 사과를 먹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건 개체에 해당한다. 그는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은 화자가 수량을 표현할 때 추상적인 사건 유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정 사건 개체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VN 이 총칭적 동목구조일 경우 '看了两次海'와 같은 'V+Q+N' 구조가 사용된다. 이때 동량구의 기능은 사건 유형을 정량화(quantification)하는 것이다. 반면, VN 이 총칭적 동목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打了弟弟几次'와 같은 'V+N+Q' 구조를 채택하며 이때 동량구의 기능은 사건 개체의 빈도를 측정(measurement)하는 것이다.

VN 이 총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V+Q+N' 구조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결론에도 한계가 있다. 즉 '见过一次王菲', '去过三趟北京'에서 '见王菲', '去北京'은 총칭적인 동목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V+Q+N'의 구조로 쓰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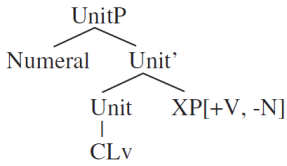
1.2.4 생성문법의 관점

Tang(1990), 黄正德(2008), Zhang(2017) 등은 생성문법의 시각으로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V+Q+N'과 'V+N+Q' 두 가지 어순은 기본 심층구조가 동일하지만 심층구조에서 각 성분의 이동 과정이 달라 표층구조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Zhang(2017)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Zhang(2017)은 주로 인상과 이동의 기제를 이용하여 동량구의 두 가지 위치 생성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심층구조에서 동량사(Clv)[4]를 핵(Head)으로 하여 하나의 기능어인 단위구(UnitP)를 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수량사는 지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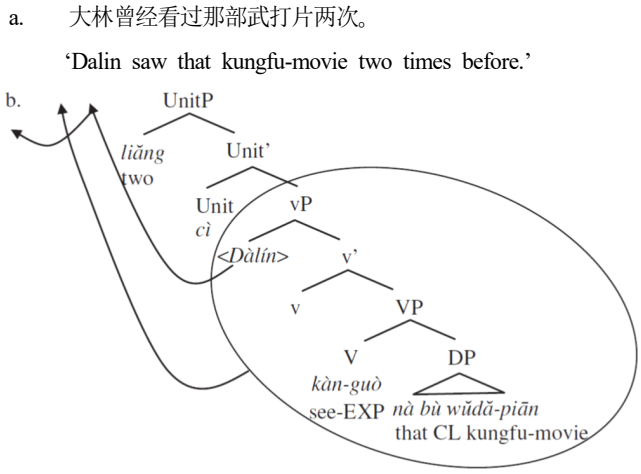
4) Zhang(2017)은 동량사를 Clv 로 표기한다. Cl 은 'classifier'를 의미하고, v 는 Cl 이 할당하는 대상이 동사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본고가 동량사를 표기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Zhang(2017)의 연구 성과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의 표기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specification)로 기능하고 동사구는 보충어(complement)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1〉 동량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수형도 (Zhang 2017)

Zhang(2017)에 따르면 '大林曾经看过那部武打片两次'와 같은 'V+N+Q' 구문이 생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1-2〉 'V+N+Q'의 생성과정 (Zhang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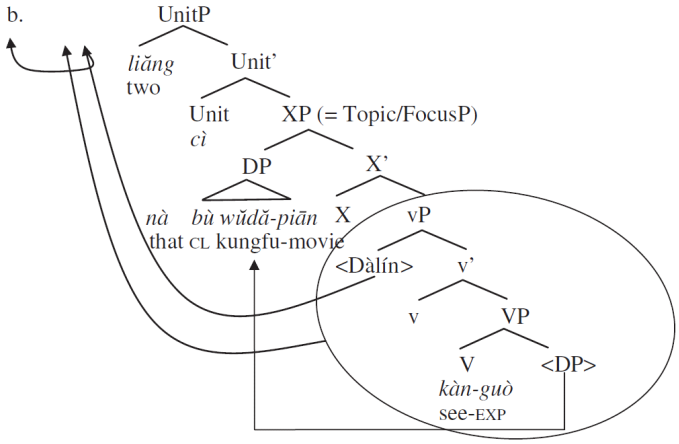
이 구조에서 주어는 경동사구(vP)에서 더 높은 위치로 이동하고 나머지 경동사구는 단위구의 왼쪽 위치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주어는 화제화(topicalization)에 의해 격상된 경동사구의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녀는 '大林曾经看过两次那部武打片'과 같은 'V+Q+N'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파생(Derive)된다고 주장한다.

a. 大林曾经看过两次那部武打片。

'Dalin saw that kungfu-movie two times before.'

b.



〈그림1-3〉'V+Q+N'의 생성과정 (Zhang 2017)

먼저 목적어 '那部功夫片'이 단위구와 경동사구 사이에 있는 XP(=Topic/FocusP)의 지시어 위치로 인상된 후 전체 경동사구가 전치된다. 주어의 이동 과정은 'V+N+Q'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Zhang(2017)의 분석은 동량구의 다중 분포를 균일하고 규칙성 있게 해석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주로 동량사 '次'에만 국한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大林打玉茹'나 '大林看功夫片'과 같은 피행위자 목적어를 포함한 예문들만을 취급했다. 즉 목적어의 의미 유형이 바뀔 경우에는 설정된 심층구조에서 'V+N+Q' 어순을 생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大林考研究生'은 표층구조에서 '大林考过研究生三次'구조를 생성할 수 없다. 또한 동량사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모든 유형의 동량구를 Zhang(2017)의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趟'과 '遍'을 예로 들어 보자.

(14) a. 送过三趟信。 —— *送过信三趟。

편지를 세 번 가져다줬다.

b. 看过三遍红楼梦。 —— ?看过红楼梦三遍。
홍러우멍을 세 번 봤었다.

즉 생성문법 이론은 두 가지 어순에 대해 규칙성을 가지고 해석하였지만, 목적어의 의미 유형과 동량사의 개별적인 특징 등을 간과하는 부족함이 보인다.

1.2.5 역사언어학의 관점

吴怀成(2011)은 통시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는 현대중국어에서 동량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는 어순은 고대중국어에서 '绕树三匝(나무를 세 바퀴 돌다)'와 같은 통사구조의 계승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V+N+Q' 구문에서 동량구는 강한 술어성이 있으므로 의미의 초점이 된다. 반면에 현대중국어에서 동량구가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어순은 청나라 시기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20세기 초부터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어순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V+Q+N' 구문의 특징은 목적어가 의미의 초점이고 동량구는 술어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그는 동량구가 '수량'을 강조하면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이 적당하고, 아니라면 목적어의 앞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일부 동량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할 수 없는 현상도 언급했다.

(15) a. 踢了一通足球 —— *踢了足球一通
축구를 한 차례 했다.
b. 艳春狠狠责怪了母亲一通。 (池莉『你是一条河』)
옌춘은 어머니를 한 차례 심하게 원망했다.

그는 (15a)의 '一通'과 같은 동량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동량구 자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허화되어서 정해진 양을 나타내지 않고 수량을 헤아리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고는 동량구가 문말에 위치하면 수량을 헤아리는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보면 (15b)의 '母亲'처럼 유정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 목적어가 '一通' 앞에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一通'은 모호한 양의 개념으로 그대로 문말에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목적어 명사의 성질과 관련있는 것이다. 목적어가 유정명사인 경우 '一通'은 문말에 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吴怀成(2011)의 논의는 너무 포괄적이며, 단순히 동량구가 수량을 헤아리는 기능만으로는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로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여러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기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통사구조 분석에 기반하여 의미, 화용, 담화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 안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기제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

중국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량사를 크게 '次, 遍, 趟'과 같은 전용동량사와 '眼, 巴掌, 口, 拳, 脚, 刀, 枪, 步, 声, 圈'과 같은 차용동량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吕叔湘 1942, 高名凯 1948, 刘世儒 1962, 朱德熙 1982, 李临定 1990, 邵敬敏 1996, 刘月华 2001, 刘辉 2009).[5)]

李湘(2011)의 연구에 따르면 차용동량사의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기능은 전용동량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용동량사 앞에는 수식성분이 올 수 없는 반면, 차용동량사의 경우에는 '踢了一小脚', '给了一大拳'처럼 수사와 차용동량사 중간에 '大', '小'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차

5) 吕叔湘(1942)과 朱德熙(1982)는 한 가지 종류를 더 구분해 냈다. 그들은 '看一看, 想一想'과 같은 형식을 동형동량사로 간주한다. 하지만 본고는 戴耀晶(1993)의 견해에 따라 이런 동형동량사 형식은 단시상(短时体)으로 간주하여 동량사의 범위 안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용동량사의 문법화 정도가 전용동량사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石定栩(2006)에 따르면 'V+N+一次' 중의 전용동량구 '一次'는 술어성분[6]으로 분석해야 하는 반면, 차용동량구를 포함하는 'V+N+一脚'와 같은 구조는 이중타동구조로 분석해야 한다. 그는 이것에 근거하여, 전용동량사와 차용동량사의 통사적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의 변인(variable)을 줄이기 위해, 본고는 전용동량사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邵敬敏(1996)과 周娟(2007)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동량사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次, 趟, 遍, 顿$_1$, 顿$_2$, 场$_1$, 场$_2$, 番, 通, 下

1.3.1 전용동량사의 기본적인 의미 특징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동량사는 동사와만 관련이 있지만[7](丁声树 1961, 朱德熙 1982, 金桂桃 2007), 범언어적인 시각으로 보면 중국어의 동량사는 실제로 동사만 관할할 뿐만 아니라 전체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횟수를 계산하므로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건 양화사(Event Quantifiers) (Deng 2013, 刘辉 2009)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고는 주로 사건 양화사의 의미적 기준에서 논의하겠지만, 편의를 고려해 명칭은 중국학계의 전통적 용어인 동량사(动量词)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량사가 포함된 문장의 술어나 상황(situition)에 대한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량사는 개체층위 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

Carlson(1977)은 시간적 특징에 따라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와

6) 통사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 2 장을 참조.

7) 일부 학자들은 중국어의 동량사를 'Verbal Classifier'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유형론적으로 'Verbal Classifier'는 동사에 종속된 분류사를 가리킨다(Aikhenvald 2000).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간의 구분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그는 상태동사, ‘be a man, be a mammal’과 같은 명사구 술어, ‘intelligent, blue, tall’과 같은 형용사는 개체층위 술어로 분류했고, 그 외의 동사는 모두 장면층위 술어로 분류하였다. 그는 개체층위 술어는 어떤 개체의 영속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일정한 지속상태를 묘사하는 반면, 장면층위 술어는 일시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16) a. John is intelligent.
존은 총명하다.
b. John is available.
존은 시간이 있다.

(16a)에서 ‘intelligent’는 ‘John’의 영속적인 특성이고 구체적인 장면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16b)에서 ‘available’은 단지 선형 시간 축 상에서 특정한 어떤 단계에 위치한 비영속적인 상태이다.

刘辉(2009)도 동량사는 장면층위 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어에서 개체층위 술어와 장면층위 술어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는 陈莉・潘海华(2008)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陈莉・潘海华(2008)는 중국어에서 이 두 종류의 술어를 구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 개체층위 술어는 통상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부사어와 결합하지 않는다.

(17) *他在学校热爱祖国。

나. 문장의 논항들이 모두 한정명사인 경우, ‘常常’과 같은 양화사(quantifier) 부사어는 개체층위 술어보다 장면층위 술어와 더 잘 어울린다.

(18) a. *小李常常像父亲。
b. 小李常常看望父亲。
샤오리는 자주 아버지를 보러 간다.

위 연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고는 대표로 동량사 '次'를 사용해서 동량사는 장면층위 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검증해보았다.

(19) a. * 他热爱祖国一次。
b. * 小李像父亲两次。

'热爱'와 '像'은 모두 개체층위 술어이므로 (19a)와 (19b)는 모두 비문이 된다. 이처럼 의미적으로 동량사와 동량구는 개체층위 술어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문의 술어는 장면층위 술어이다.

둘째, 동량사는 반복 가능한(repeatable) 상황을 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량구는 동사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횟수 역시 나타낸다. 본고는 많은 예문의 분석을 통해서, 동량구는 반복 가능한 상황(situition)에서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상황'이라는 용어는 Comrie(1976)와 Lyons(1977)[8]가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행위(action), 과정(process)과 상태(state)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Smith (1997)에 따르면 동사나 동사의 논항, 부사어나 보어와 같은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위성 성분(verb constellation)'들은 모두 상황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동량구가 반복 가능한 상황과만 결합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일회성 술어(once-only predicate)는 동량구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이다. Davidson(1967)은 철학의 측면에서 일회성술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일회성술어는 한 개체의 일생 중에 시공간적(spatio-temporal)으로 한 번만 겪었던 것을 나타낸다.

8) 'There is, unfortunately, no satisfactory term that will cover states, on the one hand, and events, processes and actions, on the other. We will use the term situation for this purpose.' (Lyons 1977:483)

(20) a. 他出生了。 /*他出生了一次。
그가 출생했다.
b. 鲁迅写了『狂人日记』。 /*鲁迅写了一次『狂人日记』。
루쉰은 『광인일기』를 썼다.

(20a)에서 한 사람은 인생에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다. 또 (20b)에서 루쉰은 평생 『狂人日记』를 한 번만 썼다. 이런 문장은 모두 일회성술어를 포함한다. 하지만 동량사는 일회성술어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一次'를 부가하면 모두 비문이 된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상황이 동량사와 공기할 수 있으면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 또는 가능 세계에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이 상황은 유사한 상황의 집합을 초래할 수 있고, 복수성 조건(plurality condition)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Yeh(2014)와 陈振宇(2009) 등은 중국어에서 반복 가능한 상황을 요구하는 문법 현상에 관해 설명한 적이 있다. Yeh(2014)가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자.

(21) a. *哥伦布发现过美洲。
b. 哥伦布发现过一个小岛。
콜럼버스는 한 작은 섬을 발견한 적이 있다.

Yeh(2014)에 따르면 경험상 표지 '过'는 반복 가능한 상황과만 어울린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发现美洲'는 일회성술어에 속한다. 그녀는 '过'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NP를 비한정 NP인 '一个小岛'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一个小岛'가 복수성 조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코퍼스 예문을 고찰한 결과 동량사와 동량구는 의미적으로 '过'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22) (1918 年) 鲁迅写了一次小说。
(1918 년) 루쉰은 소설을 한 번 썼다.

루쉰이 『狂人日记』를 쓰는 것은 반복할 수 없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루쉰은 평생 많은 소설을 썼다. 따라서 '鲁迅写小说'는 현실 세계에서 복수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수성은 한편으로는 시간에 의해 나뉘게 된 것이다. 즉 루쉰은 일생의 서로 다른 시기에 소설을 썼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한정 NP 인 '小说'도 개체적으로 복수성을 구현할 수 있다. 즉 루쉰은 다양한 소설을 썼다. 이것은 (23)처럼 표현할 수 있다.

(23) a. 1918 年鲁迅写了『狂人日记』。 (t1-e1)
1918 년 루쉰은 『광인일기』를 썼다.
b. 1921 年鲁迅写了『阿 Q 正传』。 (t2-e2)
1921 년 루쉰은 『아큐정전』을 썼다.
c. 1925 年鲁迅写了『伤逝』。 (t3-e3)
1925 년 루쉰은 『상서』를 썼다.

(23)에서 t 는 시간을 나타내고, e 는 '写小说'라는 사건을 나타내며, 세 문장은 집합을 형성한다. 이 집합이 형성하는 복수성 조건은 (22)의 성립을 허용한다. 특히 '写小说'와 같은 결과의미를 가진 동목구조는 목적어가 한정 명사인 경우 상황의 반복 가능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량사와 결합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의는 본고 3.4 에서 타동성 등급을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

1.3.2 각 동량사의 의미 특징

기존의 연구(邵敬敏 1996, 周娟 2007, 刘辉 2009 등)를 바탕으로 각각의 전용 동량사 의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고는 동량구와 목적어가 결합한 문장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다음 예문들은 모두 목적어를 포함한 문장

이다.

①'次'

'次'는 보통 통용동량사라고 불린다. '次'는 수사와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1.3.1 에서 설명한 것처럼 '次'는 장면층위 술어와만 결합할 수 있고 상황의 반복가능성을 요구한다는 두 가지 제약 조건만을 제외하면 결합할 수 있는 동사들의 범위가 가장 넓다.[9)]

② '趟'

'趟'과 관련된 사건은 공간적 이동을 포함한다. '趟'은 행위의 주체가 어딘가로 이동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다녀온다'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끝점도 표현할 수 있다. (24a)와 (24b)는 각각 '上海'나 '老师'가 계신 곳에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음을 나타낸다.

(24) a. 去了一趟上海。
상하이에 한번 다녀왔다.
b. 看了一趟老师。
선생님을 뵈러 한 번 다녀왔다.

③ '遍'

'遍'의 뚜렷한 의미적 특징은 망라성(exhaustivity)[10)]이다. 소위 망라성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9) '次'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일이 예문을 들지 않기로 한다. 제 3 장에서 각 의미역과 결합한 예문들을 참조 바람.

10) 邵敬敏(1996), 张建・谢晓明(2007), 周娟(2008) 등은 '遍'의 핵심적인 특징이 주변성(周遍性)이라고 주장했는데, 본고는 이런 주변성의 본질이 망라성이라고 분석한다.

(25) a. 念了一遍各个小组的报告。
각 그룹의 보고서를 (모두) 한 번 읽었다.
b. 打扫了一遍屋子。
방 전체를 청소했다.
c. 试了好几遍衣服。
옷을 몇 번이나 입어보았다.

첫째, (25a)에서 논항이 복수일 때, '遍'은 이 논항 안에 있는 모든 개체를 포괄하여 세부적으로 다룬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각 그룹의 보고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논항 자체는 단수지만 공간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화용적(pragmatic) 복수(刘承峰・陈振宇 2007)로 간주될 수 있는데, (25b)에서 '遍'은 방의 구석구석을 모두 청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동작의 내부에도 동작의 각 단계가 있어서 복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④ '顿'

'顿'은 주로 식사의 횟수 또는 때리거나 꾸짖고 혼내는 횟수를 헤아릴 때 쓰이는 동량사이다.

(26) a. 包了一顿$_1$饺子。
만두를 한 번 빚었다.
b. 教训了儿子一顿$_2$。
아들을 한 차례 혼냈다.

기존의 현대중국어 동량사에 관한 연구(邵敬敏 1996, 周娟 2007)에서는 '顿'을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본고가 고대와 근대중국어에서 '顿'의 문법화 경로를 종합한 결과 '顿'도 실은 '顿$_1$'과 '顿$_2$'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李建平(2013)은 동량사인 '顿'의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법화 경로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顿$_1$'은 명량사 '顿'에서 유래했다. 남북조시대 사람들은 여행 중 휴식이나 음식을 '出顿'이라고 불렀고(刘世儒 1965:160), 처

음에는 '顿$_1$'을 명량사로 사용하면서 숙박 장소에서 제공되는 식사 횟수를 세고, 유추(analogy) 기제를 통해 식사 행위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26a)처럼 동량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한편 '顿$_2$'는 '멈춤'의 의미에서 유래했다. 한 번 멈추면 '一顿'이고 여기에서 '일 회'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주로 (26b)처럼 때리거나 꾸짖고 혼내는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⑤ '场'

'场'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场$_1$'은 주로 예술, 체육 및 시험 등의 목적어를 가지며 유추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부과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27) a. 放了一场$_1$电影。
영화를 한 번 방영했다.
b. 打了一场$_1$篮球。
농구시합을 한 번 했다.
c. 进行了一场$_1$考试。
시험을 한 번 진행했다.

한편 '场$_2$'는 '场$_1$'보다 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며 자연현상이나 심리적인 사건의 완결성을 표현할 수 있다.

(28) a. 下了一场$_2$雨。
비가 한바탕 내렸다.
b. 受了一场$_2$虚惊。
괜히 한바탕 놀랐다.
c. 白疼爱了女儿一场$_2$。
딸을 애지중지 키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다)

‘场$_1$’과 ‘场$_2$’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场$_1$’의 경우 사건은 규정된 시간 안에 진행되고 공간성과 시간성이 모두 강조된다. 반면 ‘场$_2$’는 시간성만을 강조하고 사건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V+一场$_2$’가 나타내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발생했으며, 사건의 발생시간과 발화시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⑥‘番’과 ‘通’

‘番’과 ‘通’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에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동량사는 모두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든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동작이나 행위가 양적으로 누적되는(accumulative) 것도 나타낼 수 있다. ‘番’과 ‘通’은 동작의 횟수보다는 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완정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29)와 같이 ‘一’ 이외의 수사와 결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甘智林 2005).

(29) a. 赞美了一番祖国。
조국을 한 차례 찬양했다.
b. 骂了一通站长。
역장을 한 번 욕했다.

‘番’과 ‘通’은 다른 동량사와는 달리 보통 양상동량사[11]라고 부른다(邵敬敏 1996, 周娟 2007). 이는 ‘番’과 ‘通’은 화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서 양상(modality)의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崔希亮 2019). 다음 예문을 보자.

(30) a. 他仔细地查看了一番橱柜。
그는 장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다.

---

11) ‘气’도 양상동량사에 속하고 보통 ‘一’와 함께 쓰인다. 그러나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一气’는 목적어와 잘 결합하지 않아서 용례가 상당히 드물다. 따라서 본고는 ‘气’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b. 她在镜子前认真地配了一番颜色和式样。
그녀는 거울 앞에서 색깔과 스타일을 열심히 맞춰보았다.

(31) a. 将军发表了一通议论。
장군이 연설을 한 차례 발표했다.

b. 他胡乱地吃了一通菜。
그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한 차례 먹었다.

화자가 행위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보통 '番'을 사용한다. 그래서 '番'은 (30)처럼 '仔细地, 认真地, 大大地, 一一地, 反复地, 精心地, 隆重地'와 같은 '애를 쓴다, 세심하다' 등의 상태를 나타나는 부사어와 자주 공기한다. '通'과 '番'은 나타내는 양상이 서로 조금 다르다. (31a)와 같이 화자가 행위자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31b)처럼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⑦ '下'

'下'도 '下$_1$'과 '下$_2$'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相原茂(1984)에 따르면 'V一下$_1$'에서 '一下$_1$'는 구체적인 동작이 '한 번' 일어난다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동작이 한 번 이상일 경우에는 수사 '一' 대신에 '两, 三, 四…' 등을 쓸 수 있다. 반면에 'V一下$_2$'에서 '一'은 다른 숫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동작이나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다. 김영민(2009)과 蒋湘平(2015)은 '下$_2$'가 완전히 문법화되었고 상적 의미를 지니므로 더 이상 사건을 헤아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고는 '下$_2$'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고, 아래에서 언급할 '下'는 모두 '下$_1$'이다.

그리고 '下'는 주로 순간적인(punctual)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와 함께 공기한다.

(32) a. 点了一下头。
목례를 한 번 했다.

b. 踢了一下罐子。
깡통을 한 번 걷어찼다.

(32)에서 '点'과 '踢'는 '下'와 결합하면 전체 사건이 순간적인 사건이 된다. 또한 (32)처럼 '下'가 나타나는 예문에서는 해당 동작이 이루어지는 신체 기관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주로 목적어로 사용된다.

상술한 포괄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동량사 범주의 내부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량사들은 문법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각각 두드러진 의미 특징을 가진다. 다음 표는 이러한 동량사 간의 의미적 차이를 보여준다.

〈표1-1〉 각 동량사의 의미 특징

	시간적				공간적	망라성	양이 누적됨	수량사 제한함	양상 기능
	지속	종결	순간적	지속 시간이 규정됨					
次	O	O		O	O				
趟		√			√				
遍	√					√			
顿$_1$	√			√					
顿$_2$	√			√			√	√	
场$_1$	√			√	√				
场$_2$	√						√	√	
番	√						√	√	√
通	√						√	√	√
下			√						

'√'는 해당 동량사의 현저한 의미 특징, 혹은 이 동량사를 사용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O'는 상황에 따라서 '次'와 관련한 사건이 이 의미 특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의미 특징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좌측으로부터 우측까지의 각 자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遍, 顿$_1$, 顿$_2$, 场$_1$, 场$_2$, 番, 通’이 나타내는 사건은 모두 지속되는(durative) 의미 자질을 가진다. ‘趟’과 관련한 사건은 공간적인 종점이 있어서 시간적인 종결성(telic)도 나타낼 수 있다. ‘下’는 순간동사만을 허용한다. ‘顿$_1$, 顿$_2$, 场$_1$’이 표현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시간 길이가 있다. 예컨대 ‘包了一顿$_1$饺子’, ‘教训了儿子一顿$_2$’의 경우 식사나 야단이 모두 하루 안에 이루어진다. ‘放了一场$_1$电影’, ‘打了一场$_1$篮球’의 경우 영화나 경기 모두 사회적으로 약속된 시간 안에 완료된다. ‘趟’은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고, ‘场$_1$’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특정한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를 포함한다. ‘遍’만 망라성이 요구된다. ‘顿$_2$, 场$_2$, 番, 通’는 모두 동작이나 행위의 양이 누적되는 특징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一’ 이외의 수사와 결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番’과 ‘通’은 모두 양상을 나타낸다. ‘次’는 포용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次’를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동량사를 분류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부 동량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녀서 ‘一’와 결합할 때 허화(虚化)된다.[12] 이것은 동량구의 통사적 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량구가 있는 문장의 초점구조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둘째, 의미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동량사는 특정 유형의 목적어와만 결합할 수 있다. 동량사 자체의 의미적 차이는 어순 변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순 변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량사의 의미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각 동량사와 목적어가 결합하는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진행하여 그 안의 어순 변이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2) 본고는 ‘허화’와 ‘문법화’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중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허화(虚化)’는 어떤 실사(实词)의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되는 과정을 뜻한다. 한편 ‘문법화’(grammaticalization)는 일반적으로 어휘 및 구조가 새로운 문법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과정 및 현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문법화는 실사의 허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법구조와 문법범주의 형성도 표현한다. 본고가 고찰하려는 일부의 ‘一+동량사’는 실제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뿐이며 그 실제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중하기 위해 본고는 ‘一+동량사’에 대해 ‘허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3.3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

马庆株(1990)와 刘辉(2009)는 일찍이 ‘次’와 같은 동량사들이 표현하는 사건의 범위가 ‘下’와 같은 동량사가 표현하는 사건의 범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次⊃下’로 표시할 수 있다. Zhang(2017)은 이를 바탕으로 동량사를 ‘사건외 (event-external)’ 동량사와 ‘사건내 (event-internal)’ 동량사로 분류했다. 사건 관계의 시각에서 보면, ‘下’와 같은 ‘사건내’ 동량사가 관련된 사건은 ‘사건외’ 동량사가 관련된 사건의 하위사건(subevent)이다. 그녀가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33) 大林打了两次玉茹, 一次打了三下, 一次打了两下。
다린은 위루를 두 차례 때렸는데, 한 차례는 세 대 때렸고, 한 차례는 두 대 때렸다.

(33)에서 ‘次’와 ‘下’는 모두 ‘打玉茹’라는 사건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서로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때린 사건은 세 ‘下’의 때리는 동작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打一次玉茹’는 완정한 사건이고 ‘打三下玉茹’는 그 하위사건이다. 그러나 이런 ‘전체-부분’ 관계는 거꾸로 될 수 없다. (34)를 보면 ‘下’가 상위 사건을 표현하고, ‘次’가 하위사건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4) *一下打了三次。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Zhang(2017)은 ‘下’를 다른 전용동량사들과 분리하여 ‘사건내’ 동량사라고 정의했다.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어와 결합할 때 형성되는 어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제 3 장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표1-2〉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의 구분

'사건외' (event-external) 동량사	次, 趟, 遍, 顿$_1$, 顿$_2$, 场$_1$, 场$_2$, 番, 通[13]
'사건내' (event-internal) 동량사	下

1.4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본고는 주로 타동성(transitivity),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등 세 가지 이론을 이용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본고는 연구 주제를 점진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각 장에서 우선 문제 제기와 해결 방법을 제시한 후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각 장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이 이론들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방식은 각 장의 완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각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각 장에서 상세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선 타동성에 대해 알아보자. 타동성은 사건을 시작하는 동작주가 피동작주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피동작주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ivas 2004). 전형적인 타동 사건은 일반적으로 비대칭적 관계, 즉 한 참여자가 사건을 유발하는 반면 다른 참여자는 그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Kittilä 2002). 또한, Hopper & Thompson(1980)은 타동성은 하나의 원형 범주[14]이며 타동에 정도와 등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하나의 타동성 구조

13) Zhang(2017)에서는 더 많은 동량사를 논의했지만, 이 표는 단지 본고가 고찰할 동량사만을 나열했다.

14) 전통적 시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범주는 이산적(discrete)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Rosch(1973:98)에 따르면 원형범주 이론은 범주의 핵심이 범주를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 점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성원의 등급은 그 구성

가 많은 매개변수를 가질수록 타동성 등급이 더 높고 원형성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범언어적으로 볼 때, 동목관계는 타동성과 관련이 있다. 동목구조를 가진 문장이 표현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두 개의 참여자, 즉 동작주와 피동작주를 포함한다. 두 참여자 사이의 힘의 전달은 필연적으로 타동성과 관련된다. 또한 목적어의 속성과 특징은 타동성의 강약에 영향을 미친다.

(35) a. John shot the fox.
존은 여우를 쐈다.
b. John built a house.
존은 집을 지었다.
(36) a. John bumped into Mary.
존은 메리와 우연히 마주쳤다.
b. John bumped into a wall.
존은 벽에 부딪혔다. (Rivas 2004)

(35)의 두 예문은 주어는 같지만 목적어의 의미가 다르다. 하나는 동작이 작용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36)의 두 예문은 주어와 동사는 같지만 목적어가 다르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물체이다. Hopper & Thompson(1980)의 논의에 따르면 목적어의 속성이 다를 때 각 문장이 표현하는 사건의 타동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가 설정한 매개변수에 따라 (35a)는 (35b)보다 타동성 등급이 현저히 높고, (36a)는 (36b)보다 타동성 등급이 현저히 높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석은 3 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본고는 동사 뒤의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배열 문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동사와 목적어 간의 의미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徐枢(1981), 马庆株(1992), 谭景春(1995), 孟琮(1999), 张云秋(2004) 등에 따르면 중국어의 동목 의미관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어 동사와 목적어 간의 고유

원이 범주의 특징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한 의미관계도 일종의 타동성 등급 형성 여부를 고찰하며, 이러한 타동성 등급 차이가 동량구와 목적어의 배열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Lambrecht(1994)는 정보구조란 '사태(states of affairs)의 개념적 표상으로서의 명제가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을 이루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때 어휘문법적 구조는 대화 참여자의 정신적 상태와 호응하고, 대화 참여자는 담화맥락에서 이 구조를 정보 단위로서 사용하고 해석한다'고 하였다. 즉 정보구조 이론은 정보 포장의 방식과 문장형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박정구 등 2022).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정보의 분포를 조정한다. 그리고 정보의 포장 과정에서 어휘와 통사구조의 선택은 특정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실제로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언어의 화용적(pragmatics) 차원에 반영된다.

물론 정보구조는 어순, 어휘, 표지, 운율 등과 같은 일정한 형식적인 수단을 이용해 표현해야 한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어순이 서로 다른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37) a. 猫抓住了耗子。
고양이는 쥐를 잡았다.
b. 耗子被猫抓住了。
쥐는 고양이에게 잡혔다.
c. 猫把耗子抓住了。
고양이는 쥐를 잡았다.
d. 是猫抓住了耗子。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周士宏 2020)

이러한 서로 다른 통사구조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의 의미는 거의 동일하지만, 각각 문장의 정보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고찰할 동량구와 목적어로 형성된 'V+Q+N'과 'V+N+Q' 두 가지 어순도 서로 다른 정보구조를 나타

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고는 주로 Lambrecht(1994)가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Lambrecht(1994)가 논의한 여러 범주 중에 본고에서 논의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s)'이다. 화자는 발화할 때 지시 대상이 수신자의 정신세계에 어떤 심적 표상을 이루고 있는지를 추정한다. 이것은 화자와 수신자의 지시 대상에 대한 일종의 인지 상태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지시 대상이 수신자의 뇌에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면 대상을 지칭할 때 특정한 어휘나 통사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위 (37b)와 (37c)에서 '耗子'는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이지만, (37a)의 '耗子' 는 이런 지시체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것이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이 어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시이다. Lambrecht(1994)는 확인가능성(identifiablity)과 활성화(activation)를 도입하여 이러한 인지 과정을 설명했다. 본고는 제 4 장에서 이를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은 초점구조이다. 통사구조와 마찬가지로 초점구조도 문장에 대한 일종의 묘사 방식이다. 전자는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통사적 성분에 대한 분석 및 묘사이고, 후자는 담화 맥락에 따라 문장의 정보 분배 형식을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초점구조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 위 예문 중의 (37d)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점구조가 분명히 여타 예문과 다르며 초점이 '猫'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때 문장의 초점구조는 좁은 초점구조이다. 즉 화자는 쥐를 잡은 것이 다른 동물이 아니라 바로 고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점구조의 차이는 정보 분포의 차이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제 5 장에서 초점구조의 분류와 기능을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화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담화(discourse)는 언어 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완전한 언어체이다. 이런 언어체는 그 내부의 각 문장 사이에 응집(cohesion)이 유지되고 의미적으로도 일관성을 가진다. 담화분석이란 문장이나 절을 넘어서 언어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담화가 실제 맥락에서 지배하는 규칙성과 유형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담화 내부

문장의 배열, 앞뒤 부분 간의 형식적 응집, 의미적 일관성 등을 분석한다.

위 예문 중에 (37b)와 (37a)의 차이를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 廖秋忠(1991)에 따르면 중국어 피동문을 사용할 때 피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전체 단락의 화제이다. 이를 통해 담화 요소는 통사구조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층위를 넘어 더 큰 범위인 담화 차원에서 이러한 제약 요소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는 정보구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담화 차원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본고는 담화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경(foreground)—후경(background)', '화제의 연속성(topic continuity) '등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 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1.5 논의의 구성

본고는 통사구조, 의미역 분석, 정보구조 분석, 담화 분석 등의 측면에서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자세하게 분석한 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V+Q+N'과 'V+N+Q' 구조에 대해서 통사적・의미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주로 목적어의 의미역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배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목적어의 의미역을 아홉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 의미역의 분포 가능성을 측정할 것이다. 먼저 각 동량사와 결합 가능한 목적어 의미역을 추출하여 조합한 후, 두 가지 어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두 구문에서 의미역의 분포 양상을 정리하고, 타동성이 어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

제 3 장의 논의는 주로 개별 문장 안에서 의미분석을 통해 2 가지 어순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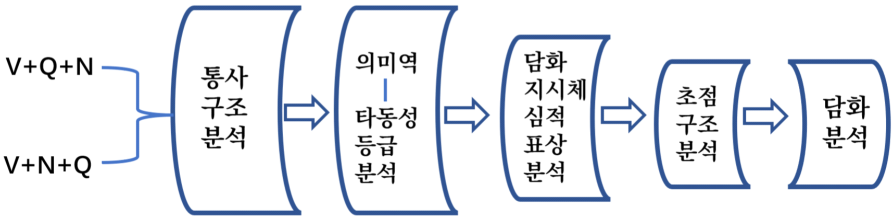
향을 미치는 기제들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텍스트 내에서의 문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용과 담화의 시각으로도 어순을 결정하는 기제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 4 장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담화지시체의 심적표상이 어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정보구조의 또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진리값을 가진 두 구문이 서로 다른 초점구조 양상을 형성한다는 가정하에, 기존의 초점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V+Q+N'과 'V+N+Q'의 초점구조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초점구조가 어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 6 장은 시야를 확대하여 기타 담화 요인들이 두 어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전체적인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특정 언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제 7 장은 전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어순 변이의 기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구성은 전체 연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1-4〉 연구 흐름도

위 그림에서 각 영역의 크기가 다른데, 영역의 크기는 연구 대상인 N 의 범위를 의미한다. 통사 및 의미역 부분의 N 은 가장 원시적인 범위이며, 담화지시체의 심적 표상을 분석할 때부터 동량구 앞뒤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의미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또 초점구조와 담화분석 부분은 동

량구 앞뒤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의미역 중에서 식별 가능한 지시체에 대해서만 분석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한 요소나 기제가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어떠한 일부 문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절차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양파를 까는 것과 같은 방식의 연구 방법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점차 좁혀야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 사용된 예문 중 北京语言大学 BCC, 北京大学 CCL, 媒体语言语料库 (MLC) 등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일 경우 모두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예문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작문한 것으로서 다수의 모국어 화자의 검증을 받은 예문들이다.

제2장 ‘V+Q+N’과 ‘V+N+Q’의 통사구조

2.1 통사구조 논의의 필요성

목적어와 같이 나타나는 동량구의 통사적 기능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V+Q+N’구조에 관해서 丁声树(1961), 朱德熙(1982), 马庆株(1983), 刘辉(2009), 성기은(2012) 등은 동량구가 목적어의 수식어라고 주장하였고, 邵敬敏(1996), 刘月华(2001) 등은 동량구가 보어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한편 ‘V+N+Q’ 구조에 대해서 총 세 가지 견해가 있다. 朱德熙(1982), 马庆株(1992), 李湘(2011) 등은 목적어 뒤에 있는 동량구를 이중타동구문의 직접목적어라고 본다. 石定栩(2006)는 동량구를 전체 문장의 술어로 간주하였지만 吴怀成(2011), 刘月华(2001) 등은 동량구가 보어라고 주장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본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동량사 ‘次’를 대상으로 고찰하고 설명하였고, 다른 동량사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들이 ‘次’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동량사에 비해 ‘次’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기능이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次’만을 예로 들어 전체 동량구의 통사적 기능을 정립한 결론은 분석의 시각이 너무 좁다고 생각된다. 둘째, 명사의 내재적 특징은 ‘V+Q+N’ 구조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고는 ‘吃一顿$_1$饭’, ‘看一场$_1$电影’에서 ‘饭’과 ‘电影’은 ‘사건명사’이고 각각 ‘顿$_1$’과 ‘场$_1$’의 명량사

성질을 활성화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따로 분석해야 하지만 그동안 계속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중국어의 경우 수량사 ‘一’와 양사가 결합할 때 허화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一+동량사’의 허화도 통사구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어순의 통사구조를 다시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문제를 보완할 것이다.

한편 본고가 통사구조를 연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사적 층위의 문장 성분 분포가 초점 영역을 결정하기 때문에다. 이와 관련해서 본고는 제 5 장에서 두 구문의 초점구조를 분석할 예정이다. 정보구조를 분석할 때, 각 성분의 통사적 역할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다. 특히 ‘V+N+Q’ 구조의 경우 동량구가 체언 성분인지 용언 성분인지, 만약 용언 성분이라면 술어인지 보어인지는 초점 영역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두 종류 어순의 통사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는 선행연구를 자세하게 분석한 후 그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통사적・의미적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두 어순의 통사구조를 분석해 낼 것이다.

2.2 ‘V+Q+N’의 통사구조

기존 연구에서 ‘V+Q+N’에서의 Q는 보통 관형어나 보어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Q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2.2.1 동량구와 관형어

朱德熙(1982:51)는 아래 예문을 제시하면서 ‘一趟, 一次’ 등 동량구는 구조적으로 뒤에 출현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1) a. 进一趟城。
성 안에 한 번 들어갔다.
b. 看一次电影。
영화를 한 번 봤다. (朱德熙 1982)

종합적으로 보면, 동량구가 관형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학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로 동량구의 전치 여부, 병렬 여부, '的'의 삽입 여부의 3가지 조건이 있다(刘辉 2008, 李湘 2011). 상세한 기준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하나씩 제시해보겠다.

첫째, 전치 가능 여부는 관형어설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 a. 一趟城也没进。
성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b. 一次电影也没看。
영화를 한 번도 못 봤다.

朱德熙(1982:51)는 (2)에서 보는 것처럼, 수량구와 명사를 결합한 후 동사 앞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朱德熙(1982:117)는 '进一趟城'의 '一趟城'이 문두로 이동한 변환식 '一趟城也没进'은 명량구를 포함한 '吃一碗饭'의 변환식인 '一碗饭也没吃'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一趟'은 '进'의 수량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城'의 관형어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변환 시 동량사와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동함으로써 이 두 성분이 통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다만 (2)에서는 전치를 할 때 비지시적(nonreferential) 명사만을 이용했다. 하지만 N이 지시적(referential) 명사로 바뀌면 'Q+N' 구조는 동사 앞으로 전치할 수 없다.

(3) a. 打了一次小李/*一次小李也没打
샤오리를 한 번 때렸다
b. 叮嘱了一遍父亲/*一遍父亲也没叮嘱
아버지께 한 번 권유해드렸다.
c. 赞美了一番祖国/*一番祖国也没赞美
조국을 한 번 찬양했다.
d. 骂了一通站长/*一通站长也没骂
역장을 한 번 욕했다.
e. 拍了一下桌子/*一下桌子也没拍
탁자를 한 번 내리쳤다.

(3a)와 (3b)에서 ‘小李’와 ‘父亲’은 지시명사이고 전치할 수 없다. 게다가 ‘次, 趟, 遍’ 등 동량사는 ‘番, 通, 下’와 같은 다른 동량사로 바뀔 경우, ‘Q+N’ 구조가 전치되면 (3c), (3d)와 (3e)와 같이 비문이 된다.

또한 수사 ‘一’는 특수 숫자라서 어떤 경우에는 최소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一’를 다른 수사로 바꿔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a. 吃了三片药/三片药都吃了
약 세 알을 먹었다.
b. 进了三趟城/？三趟城都进了
성 안에 세 번 들어갔다.
c. 读了三遍红楼梦/*三遍红楼梦都读了
홍러우멍을 세 번 읽었다.

수사가 ‘一’가 아닌 경우에는 (4a)에서처럼 ‘수사+명량사+명사’ 구조가 전치될 수 있지만, (4b)와 (4c)의 ‘수사+동량사+명사’ 구조는 전치되면 전체 문장의 수용성이 낮아지거나 아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전치 테스트가 일부 예문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进一趟城’에서 ‘一趟城’이 전치될 수 있는 이유는 2.2.1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석할 것이다.

둘째, 병렬 가능 여부와 그 문제점이다. 刘辉(2009)는 朱德熙(1982)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량구를 관형어로 분석했다.

(5) a. 我买了一本专业书和一本休闲杂志。
나는 전공 책 한 권과 레저 잡지 한 권을 샀다.
b. 我去了一次杭州和一次苏州。
나는 항저우와 쑤저우에 한 번 갔다. (刘辉 2009)

刘辉(2009)에 따르면 명량구와 동량구는 통사적으로 유사한 구조이다. '和'는 (5a)와 같이 명사성 성분만을 연결하므로 (5b)에서 '一次杭州'와 '一次苏州'는 모두 명사성 성분이라 할 수 있고, '一次'는 '杭州/苏州'와 우선 결합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동량구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a. *干部们进了一次城和一次村。
b. 干部们进了一次城, 又进了一次村。
간부들은 성 안에 한 번 들어갔고, 촌락에도 한 번 들어갔다.
(7) a. *小李找了一遍柜子和一遍抽屉。
b. 小李找了一遍柜子, 又找了一遍抽屉。
샤오리는 궤를 한 번 뒤졌고, 서랍도 한 번 뒤졌다.

(5b)에 출현하는 '杭州'와 '苏州'는 모두 종점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들이다. 만약 고유명사를 비지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城'과 '村'으로 대체하면, (6)과 같은 병렬구조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7)과 같이 '柜子'와 '抽屉'가 모두 종점 장소가 아닌 경우에도 병렬구조는 불가능하다. 즉 '一遍'과 같은 동량구는 반드시 동사와 결합해야만 병렬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위 분석을 통해 병렬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的'의 삽입 가능 여부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동량구가 관형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刘辉(2009)는 아래 예문을 제시하면서 동량구 뒤에 '的'를

첨가하였다.

(8) a. 我看了十几遍的红楼梦, (也没看到这个情节)。
나는 홍러우멍을 열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이 장면을 본 적이 없다).
b. (为了要这个指标)我去了十几次的校长室。
(이 지표를 얻기 위해) 나는 교장실에 열 몇 차례 갔었다. (刘辉 2009)

사실상 여기에서 ‘的’를 사용하는 데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통 수량사를 가진 동량구에는 ‘的’를 부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我看了一遍的红楼梦’처럼 수사가 ‘一’인 경우 ‘的’를 부가하면 비문이 된다. 즉 ‘V+Q+N’ 구조에서 수량사가 반드시 주관적으로 많은 수량(主观大量)을 표현하거나 대략적인 숫자인 경우에만 동량구와 목적어 간에 ‘的’를 삽입할 수 있다. ‘次’나 ‘遍’ 뿐만 아니라 ‘一晚上去了十几趟的厕所’, ‘敲了十几下的钟’에서 제시한 것처럼 ‘趟’이나 ‘下’ 등의 동량사도 많은 수량과 결합하면 ‘的’를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전형적인 관형어 표지인 ‘的’가 체언 성분 앞에 오고 관형어와 중심어를 연결할 때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다. 따라서 刘辉(2009)가 만든 예문에서 ‘的’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8)에 삽입된 ‘的’는 관형어 표지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15] ‘十几遍的红楼梦’이나 ‘十几次的校长室’에서 ‘的’는 동량구를 초점으로 만들기 위해 첨가된 것이다. 따라서 ‘的’의 삽입 테스트는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세 가지 기준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분석 기준 모두 이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중에서도 병렬 가능 여부와 ‘的’의 삽입 가능 여부의 적용 범위는 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는 동량구가 관형어라는 논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치 가능 여부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 ‘V+Q+N’의 ‘Q+N’을 통사

15) 崔希亮(2004)은 명량구 또는 동량구에 부가되는 ‘的’를 초점표기로 간주한다.

적으로 완전히 결합한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는가? ‘一趟城也没进’을 예로 들어 분석해보자.

‘进一趟城’의 ‘一趟城’이 ‘一趟城也没进’처럼 문두로 전치될 수 있는 것은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가 발생했기 때문이다(Panther 2005, 袁毓林 2018). 환유는 일종의 인지 과정이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개념 A와 개념 B가 ‘부분-전체, 내용물-용기, 논항-술어’ 등과 같은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을 공유한다면, 인지의 관점에서 개념 A와 개념 B는 심리적인 연상 관계가 형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 A가 개념 B를 대체하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개념 A가 덜 두드러진 개념 B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념적 환유 기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16] 袁毓林(2018:33)은 중국어의 명사는 행동이나 사건을 환유할 수 있으며, 이 명사는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의 논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angacker(1987/1991)의 관점에 따르면 체언은 추상적인 ‘사물’(THING)이고, 술어는 추상적인 ‘관계’(RELATION)이다. ‘사물’은 ‘관계’라는 전체의 일부다. 여기서 체언이 술어를 환유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부분-전체’라는 인지모형이다. 같은 맥락에서 ‘一趟城也没进’에서 ‘城’과 ‘(某人)进城’은 모두 이상적 인지모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城’은 환유적인 기제를 통해 ‘进城’이라는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一趟城’의 실제 의미는 ‘进一趟城’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래 예문처럼 ‘一趟城’ 앞에 동사를 추가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

(9) (连)进一趟城也没进。
한 번도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

16) 沈家煊(1999)는 ‘壶开了’를 예로 들어 개념적 환유를 설명했다. 이 문장에서 ‘壶’라는 개념 A는 ‘水’라는 목표개념 B를 환유한다. ‘壶’와 ‘水’는 ‘용기’와 ‘내용’이라는 이상적 인지 모형에 속한다. 양자 간의 관계는 밀접해서, 인지적으로 더 뚜렷한 개념인 ‘壶’가 ‘水’를 활성화했다.

즉 ‘进一趟城’에서의 ‘一趟城’은 형식과 의미의 미스매치(syntax-semantics mismatches) 현상일 뿐이다. 요약하면 ‘一趟城’은 따로 추출할 수도 있고 ‘一趟’과 ‘城’은 수식관계로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一趟’은 ‘城’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进城’이라는 사건과 매칭되는 것이다.

요컨대, 인지 메커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문장에서는 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V+Q+N’ 구조의 동량구를 관형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2.2 동량구와 보어

2.2.2.1 기존연구 검토

Paris(2013)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동량구가 먼저 동사와 결합한 후 목적어와 결합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Paris(2013)가 이용한 첫 번째 방법은 생략 가능 여부이다.

(10) a. 张三舔了一下他的冰棒, 李四也舔了一下。
장싼은 그의 아이스크림을 한 번 핥았고, 리쓰도 한 번 핥았다.
b. *张三舔了一下他的冰棒, 李四也舔了。 (Paris 2013)

(10b)에서 ‘一下’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一下’가 동사구의 일부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제 1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Zhang(2017)의 동량사에 대한 분류에 따르면 ‘下’는 ‘사건내’ 동량사이고 ‘次’로 대표되는 다른 전용 동량사들은 ‘사건외’ 동량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下’만을 가지고 검증한 결과로 모든 전용동량사가 (10)의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다시 ‘次’를 사용하여 생략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 한다.

(11) a. 张三回了三次老家, 李四也回了三次。
장싼은 그의 고향에 세 번 돌아갔고, 리쓰도 세 번 돌아갔다.
b. *张三回了三次老家, 李四也回了。

'次'를 사용하여 생략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는 (11b)와 같이 동사 뒤에 동량구가 있어야 '李四'도 고향에 세 번 돌아갔다는 뜻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량구가 동사와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량구가 독립된 통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V+Q+N' 구조에서 동량구가 관형어 역할을 한다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사+명량사+명사'와 '수사+동량사+명사'가 평행적인 구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Paris(2013)는 이 두 구조가 평행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12) a. 他想买一本书。/*他想买书一本。
그는 책을 한 권 사고 싶다.
b. 他想回一趟家。/他想回家一趟。
그는 집에 한번 가고 싶어 한다. (Paris 2013)

Paris(2013)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12)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사+명량사'는 후행하는 명사와 분리할 수 없지만, '수사+동량사'는 명사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b 의 변환 방식을 모든 'V+Q+N'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 a. 他想看一次电影。/*他想看电影一次。
그는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b. 他想写一遍生词。/*他想写生词一遍。
그는 새 단어를 한번 쓰고 싶다.

예문 (12)의 '家'는 '一趟'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예문 (13)에서 '电影'

과 ‘生词’는 모두 동량구의 앞에 올 수 없다. 그 이유는 ‘回家’가 이미 어느 정도 한 동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aris(2013)의 두 번째 테스트는 그다지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2.2.2 ‘把’자문과 동량구

위에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Paris(2013)가 주장한 ‘보어설’에 대한 논의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기존의 기타 연구(邵敬敏 1996, 刘月华 2001) 등도 모두 ‘V+Q+N’ 구조의 동량구를 보어로 간주했지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고는 동량구를 보어로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량구를 보어로 보는 견해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把’자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동량구를 보어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동량구는 명량구나 시량구보다 동사와 더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아래 ‘把’자문에서의 예문들을 보자.

(14) a. 你得读一个故事。/*你得把故事读一个。
너는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b. 你得读一个小时故事。/*你得把故事读一个小时。
너는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c. 你得读一遍故事。/你得把故事读一遍。
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야 한다.

(14)에서 우리는 ‘把’자문을 이용해 전형적인 피행위자를 동사의 앞으로 이동시켜 보았다. (14a)와 (14b)에서 명사는 명량구와 시량구만 남기고 단독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14c)의 경우 ‘故事’는 동사의 뒤에 ‘一遍’만을 남기고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一遍’이 명량사와 시량사에 비해 동사와의 결합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把’자문에서 동사 뒤에 오는 성분은 경계성(bounded)을 요구하

는데[17], 보어인 동량구는 바로 동작이나 행동의 경계성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读一遍'은 '你得把故事读完'이나 '你得把故事读得绘声绘色' 등과 같은 문장에 담긴 동보구조인 '读完', '读得绘声绘色' 등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동량구가 문장 끝에 있는 '把'자문 대부분이 'V+Q+N' 구조로 변환됨을 알 수 있었다.

(15) a. 看了人家的影评, 又把电影看了一遍。 (微博)
다른 사람의 영화평을 보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았다.
b. 按照职业的习惯, 我默默地把四周打量了一番。 (人民日报 1985)
직업적인 습관에 따라서 나는 묵묵히 주변을 한 번 살펴보았다.
c. 赵克久勃然变了脸色, 伸手把桌子拍了一下。 (茅盾『锻炼』)
새로운 단어를 한 번 읽었다. 밀어 탁자를 한 번 내리쳤다.

(15)에서 '把电影看了一遍', '把四周打量了一番', '把桌子拍了一下'는 각각 '看了一遍电影', '打量了一番四周', '拍了一下桌子'로 변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동량구는 명사와 자유롭게 분리될 수 있고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모든 'V+Q+N' 구조를 '把'자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본고가 논의하는 동량사들에 대해 '把'자문 테스트를 진행하려 한다.

(16) a. 打了一次小李 / ?把小李打了一次
샤오리를 한 번 때렸다.
a'. 锄了一次麦田 / 把麦田锄了一次
보리밭의 잡초를 호미를 사용해 한 번 뽑았다.
b. 去了一趟北京 / *把北京去了一趟
베이징에 한 번 다녀왔다.

17) Hopper & Thompson(1980:271)은 중국어에서 '把'자문을 사용할 때 동작의 경계성 (bounded)을 표현하기 위해 술어에 특정한 문법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 找了一遍屋子 / 把屋子找了一遍
집안 전체를 한 번 뒤졌다.
d. 包了一顿$_1$饺子 / *把饺子包了一顿$_1$
한 끼 분량의 만두를 빚었다.
e. 训了一顿$_2$儿子 / 把儿子训了一顿$_2$
아들을 한 번 혼냈다.
f. 看了一场$_1$电影 / *把电影看了一场$_1$
영화를 한 번 보았다.
g. 骂了一场$_2$邻居 / 把邻居骂了一场$_2$
이웃을 한 번 욕했다.
h. 赞美了一番祖国 / 把祖国赞美了一番
조국을 한 번 찬양했다.
i. 批评了一通徒弟 / 把徒弟训了一通
제자를 한 번 혼냈다.
j. 拍了一下桌子 / 把桌子拍了一下
탁자를 한 번 내리쳤다.

위와 같은 변환을 통해 ‘V+Q+N’ 구조의 내재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遍, 顿$_2$, 场$_2$, 番, 通, 下’ 등이 포함된 동량구는 N 과 분리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동사 뒤에 올 수도 있다. ‘次’의 경우에는 N 이 ‘把’의 목적어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반면에 ‘趟, 顿$_1$, 场$_1$’ 등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V+Q+N’ 구조에서 일부의 동량구는 보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부 동량구는 보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동량구는 전형적인 보어이지만, 어떤 동량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V+Q+N’ 구조 중의 동량구를 보어로 분석하는 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량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를 위해 본고는 ‘사건명사’의 특수성을 논의한 후, 2.2.4 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2.3 사건명사와 동량구

본고는 코퍼스를 검토하면서 특정 유형의 명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동량구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는 이른바 '사건명사'이다.

韩蕾(2007)는 사건명사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는데, '暴雨, 早饭, 战争, 疾病, 灾难, 典礼' 등과 같은 명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재 시간의 길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량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과정명사', '동태명사', '시간성명사' 등으로도 지칭한다.

사실 명사는 개체(individual)뿐만 아니라 사건(event)도 지칭할 수 있다. Yang(2001)은 일반명사가 명량사와 동량사를 결합하는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전제를 설정한 후 '수사+양사+명사'가 동사 앞뒤에 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명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车, 书'와 같은 첫 번째 유형의 명사는 개체만 지칭할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의 명사인 '电影, 饭' 등은 개체와 사건을 모두 지칭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유형의 명사 '进攻, 打折'은 사건만 지칭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통사적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명사 범주의 내부 성질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Yang(2001)이 분류한 세 번째 유형의 명사는 韩蕾(2007)가 말하는 사건명사와 완전히 일치하며, 두 번째 유형의 명사는 일정 조건하에 사건명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명사가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7) a. 吃了一碗饭。
밥 한 그릇을 먹었다.
b. 吃了一顿$_1$饭。
밥 한 끼를 먹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건명사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재적 시간 길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17)의 '吃了一顿$_1$饭'에서의 '饭'은 실체가 아니라 사건이다. 왜냐하면 '一顿$_1$饭的工夫'라고는 할 수 있지만 '一碗饭的工夫'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양사가 달라지면서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도 변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하면 동량사가 ‘饭’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면 이러한 명사를 사건명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서 풀어야 할 문제는 N 이 사건명사일 때 ‘V+Q+N’ 구조의 통사구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이다.

(18) 中东发生了一次战争, 这次战争是小规模的。
중동에서 전쟁이 한 번 발생했는데, 이번 전쟁은 소규모였다.

사건명사와 동량구의 통사적 결합이 발생하였음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8)에서 ‘战争’은 앞 절에서 ‘一次战争’의 형식으로 쓰이고, 뒤 절에서는 ‘这次战争’의 형식으로 판단문의 주어가 되었다. ‘一次战争’은 지정(designation)기능이 있어서 명사성 성분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18)의 ‘战争’은 개체 지시 기능을 하는 사건명사이며 ‘一次战争’은 수식구조로 판단된다.

본고의 연구 범위에 포함된 동량사를 하나씩 검증해 보면, <표 2-1>에서 제시한 것처럼 만약 ‘这+동량사+N’의 형태로 선행사인 ‘一+동량사+N’을 조응할 수 있고 ‘这+동량사+N’이 판단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면, N 은 사건명사이고 ‘Q+N’은 수식구조로 간주된다. 이때 ‘V+Q+N’ 구조는 ‘V+[Q+N]’으로 분석해야 한다.

〈표2-1〉 동량구와 사건명사의 결합 예시

동량사	예시	‘这’테스트
次	发生了一次战争	这次战争
趟	去了一趟旅行	这趟旅行
场	看了一场$_1$电影 /下了一场$_2$暴雨	这场$_1$电影/这场$_2$暴雨
顿	吃了一顿$_1$饭 /挨了一顿$_2$责骂	这顿$_1$饭/这顿$_2$责骂
番	讲了一番话	这番话
通	发了一通牢骚	这通牢骚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표 2-1>의 ‘战争, 旅行, 电影, 暴雨, 饭, 责骂, 话, 牢骚’ 등은 모두 사건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N 이 사건명사일 경우 일부 동량사는 개체를 계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동량구는 명량사와 유사한 기능, 즉 개체를 개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건명사가 출현하는 일부 동량구는 하나의 명사성 성분이 되며 지칭의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전체 동량구는 관형어로 분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Q+N' 구조를 'V+[Q+N]'로 분석할 때의 필수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명사인 N 은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고, 내재적 시간 길이를 가지고 있다.

나. 'Q+N'은 지시대명사를 이용해 조응될 수 있고, 조응형식은 판단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구조를 식별할 수 있다.

(19) *张三进了一趟城, <u>这趟城是</u>……

(19)의 경우에는 '进一趟城'의 '城'은 '进城'이라는 사건에 환유할 수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城'도 내재적 시간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这趟城'은 판단문의 주어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위의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는 않으므로 '城'은 사건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분석을 통해서 본고는 '看了一场$_1$电影'이나 '吃了一顿$_1$饭'과 같은 구조에서 목적어인 N 은 사건명사이고 Q 는 관형어로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看了电影一场$_1$'이나 '*吃了饭一顿$_1$'처럼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단순히 통사적인 측면에서 일부 구문의 어순이 왜 변환되지 않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2.2.4 동량구의 새로운 해석

2.2 절에서는 관형어설의 기존 논거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어설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건명사의 존재는 'V+Q+N' 구조를 분석하

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기존 선행연구의 결론과는 달리 ‘V+Q+N’의 내부구조는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V+Q+N’ 구조에서는 동량구를 보어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다른 ‘V+Q+N’ 구조 중에서의 동량구는 명확히 관형어로 분류된다. 한편 일부 ‘V+Q+N’ 구조에서의 동량구는 보어나 관형어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량구의 통사적 특성은 연속체(continuum) 상태를 나타낸다.

본고는 이 연속체의 양상을 도출하기 위해 앞선 논의에 근거하여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즉 ‘V+N’이 문장 맨 앞에 놓일 수 있는지, N 이 사건명사인지, ‘把’자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표2-2〉‘V+Q+N’ 내부구조의 구분기준

예시	‘Q+N’ 전치	N이 사건명사임	把자문 변환
①发生一次战争	+	+	-
②进一趟城	+	-	-
③打一次小李	-	-	-
④赞美一番祖国	-	-	+

첫 번째 유형의 대표 예문은 ‘发生一次战争’인데, 이 유형의 N 은 모두 사건명사이고 ‘一次战争也没发生’으로는 변환할 수 있지만 ‘把战争发生了一次’로는 변환할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은 ‘进一趟城’인데, ‘一趟城’은 환유 기제로 인해 전치될 수 있지만 ‘把城进了一趟’으로 변환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一趟城’은 지시될 수 없고 사건명사가 아니다.

세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은 ‘打了一次小李’이다. ‘小李’는 개별화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小李’는 ‘打小李’라는 사건으로 환유할 수 없고 ‘一次小李’도 한 덩어리로 전치될 수 없다. 그리고 ‘把小李打了一次’도 성립되지 않는다.

네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은 ‘赞美一番祖国’인데 이를 ‘一番祖国也没赞美’로 변환할 수는 없지만 ‘把祖国赞美了一番’으로는 변환할 수 있다. ‘祖国’는 사건명사로 볼 수 없다.

물론 다른 매개변수를 추가하면 더 많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점진적인 분포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상의 네 종류 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이 양상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V+Q+N' 구조의 통사구조에 관한 연구 결론들은 일반적으로 동량구가 관형어 혹은 보어 둘 중 하나라는 관점만을 취했는데, 본고는 'V+Q+N' 구조에서 동량구의 통사적 역할은 관형어에서 보어로 이어지는 연속체라는 관점을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18]. 통사적 관계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동량구는 동사와 더 가깝고, 어떤 동량구는 목적어와 더 가깝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관형어 ←····· → 보어
① ② ③ ④

〈그림2-1〉 'V+Q+N' 중에서 동량구의 연속체 양상

유형①과 유형④의 동량구는 각각 관형어와 보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극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명사인 N은 일부 동량사의 개체를 계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므로 동량구가 개체를 수식할 수 있으며[19], 이때 동량구의 통사적 속성은 연속체의 왼쪽 끝에 위치한다. 둘째, 동량사 범주 안의 각 구성원은 성질이 균일하지 않다. 2.2.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遍,

18) Traugott & Trousdale(2013)에 따르면 구문은 여러 자질(feature)로 구성되고 한 구문중에 한 번에 하나의 자질만은 작은 변화를 한다. 이런 작은 변화로 인해 공시적으로 서로 다른 하위 구문이 형성되고 하위 구문들 간에 '점진성(gradualness)'를 나타내는 연속체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점진성은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하위 구문의 변이에도 반영된다.

19) 사실상 동량사와 명량사는 하나의 연속적인 범주로 볼 수 있다(刘街生 2003). 어떤 동량사는 전형적인 동량사지만, 어떤 동량사는 명량사와 동량사의 과도적 구간에 있다.

顿$_2$, 场$_2$, 番, 通, 下’와 같은 동량사로 구성된 동량구는 ‘把’자문을 통해 ‘V+Q+N’ 구조 중 목적어인 N과 분리될 수 있으며, 이때 동량구는 동작이나 행동에 대한 보충 설명을 나타낸다. 이때 동량구의 통사적 속성은 연속체의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

유형②나 유형③과 같은 구조 중의 동량구는 명확하게 관형어나 보어로 분류할 수 없고 연속체의 중간 영역에 있다. 다만 ‘Q+N’이 전치될 수 있으면 동량구가 관형어와 더 가깝고, 그렇지 않으면 관형어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절의 논의를 근거로 ‘V+Q+N’ 구조의 통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3〉‘V+Q+N’의 통사구조

예시	통사구조
①发生一次战争 ②进一趟城 ③打一次小李 ④赞美一番祖国	V+[Q 관+N] ↕ [V+Q 보]+N

2.3 ‘V+N+Q’의 통사구조

2.2에서는 ‘V+Q+N’의 통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V+N+Q’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V+N+Q’구조는 이중타동구조와 술어 구조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어설의 합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3.1 '이중타동구조설'의 문제점

朱德熙(1982:120)와 马庆株(1983)는 모두 'V+N+Q'를 이중타동구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a. 骂了小王一顿。 (朱德熙 1982)
샤오왕을 한 차례 욕했다
b. 拍了小王一下。 (朱德熙 1982)
샤오왕을 한 번 살짝 쳤다.
c. 抢了小王三次。 (马庆株 1992)
샤오왕을 세 번 강탈했다.

朱德熙(1982:19)에 따르면 (20a)와 (20b)에서 '小王'은 '진빈어(真宾语)'이고 '一顿'과 '一下'는 '준빈어(准宾语)'이다. 또한 马庆株(1992)는 이중타동구조의 유형을 논의할 때 (20c)와 같은 구조를 이중타동구조로 분류했다. 그 이유는 그가 '三次'를 체언성 성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V+N+Q' 구조를 과연 이중타동구조로 분류할 수 있는가? 본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째, 부사의 삽입을 통해 'V+N+Q' 구조의 특징과 전형적인 이중타동구조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1) a. 老王卖我两套房子。
라오왕은 나에게 집 두 채를 팔았다.
b. *老王卖我就两套房子。
c. 怎么看见这个女人才一次, 你就觉得她以后不会跟你翻脸吵架?(微博)
어떻게 이 여자를 한 번만 보고 그녀가 이후에 너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니?

전형적인 이중타동구조에서는 두 개의 명사성 성분 사이에 (21b)처럼 어떠한 성분도 삽입할 수 없지만, 일부 'V+N+Q' 구조의 경우 부사를 삽입할 수

있다. (21c)는 실제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예문인데, ‘这个女人’과 ‘一次’의 중간에 부사 ‘才’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이중타동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현대중국어에서 술어 성분 뒤에 3 개의 목적어가 올 수 없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량구를 목적어로 간주한다면, 이중타동구조에서 직접목적어의 뒤에는 동량구가 올 수 없다.

(22) a. 宝马车啊, 张三借李四两次了。
BMW 차를 장싼이 리쓰에게 두 번 빌려줬다.
b. 张三借李四宝马车两次了。
장싼은 리쓰에게서 BMW 차를 두 번 빌렸다.

(22a)에서 ‘V+N+Q’의 형식으로 쓰인 ‘借李四两次’를 이중타동구조로 해석할 경우 ‘借’의 뒤에는 3 개의 체언성 성분이 출현할 수 없다. 하지만 (22b)는 ‘李四’와 ‘两次’의 사이에 ‘宝马车’라는 체언성 성분이 있다. 따라서 ‘V+N+Q’ 구조를 이중타동구조로 분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셋째, 동사복사구문을 이용해 검증해보자.

(23) a. 这个月他看了病人两趟。/这个月他看病人看了两趟。
이번 달에 그는 환자를 두 차례 문병했다.
b. 今年他卖了我两套房子。/*今年他卖我卖了两套房子。
올해 그는 나에게 집을 두 채 팔았다.

예문(23)의 ‘V+N+Q’ 구조는 동사복사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중타동구조는 동사복사구문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V+N+Q’는 이중타동구조로 분석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2 술어설

石定栩(2006)는 ‘V+N+Q’ 구조에서 전용동량구는 모두 술어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동량구 앞에 부사와 양태사를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은 그가 제시한 근거이다.

(24) a. 安全监督局警告肖村煤矿仅仅一次, 就收到了预期的效果。
안전감독국은 샤오춘 석탄 광산에 한 번만 경고했지만, 예상했던 효과를 얻었다.
b. 他出这种事故可能好几次了。
그가 이런 사고를 낸 것은 아마도 여러 번일 것이다. (石定栩 2006)

또한 그는 이런 문장들은 통사적으로 단문이 아니라, 두 개의 절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량구 앞에 있는 절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수량구조는 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4b)의 경우 ‘他出这种事故’는 주어이고 ‘好几次’는 술어이다.

그러나 본고는 石定栩(2006)의 분석에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24)의 두 예문은 모두 매우 특수한 문장들이다. (24a)의 경우 뒷 문장이 반기대(counter-expectation)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립된다. (24b)의 경우 문말 ‘了’의 부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코퍼스에서 임의로 하나의 예문을 추출하면 ‘仅仅’이나 ‘可能’을 부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5) a. 他要再提醒徐经理一次。 (周而复『上海的早晨』)
그는 쉬 사장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한다.
a′. *他要再提醒徐经理<u>仅仅</u>一次。
b. 庄大鹏免不了先安慰梅桃一番。 (刘震云『故乡天下黄花)』
좡다펑은 우선 메이타오를 한 번 위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b′. *庄大鹏免不了先安慰梅桃<u>可能</u>一番。

(25a′)에서 ‘要’는 양태의미를 나타나기 때문에 ‘他要再提醒徐经理’는 주어

가 될 수 없다. (25b′)의 경우 ‘一番’은 앞 성분인 ‘V+N’과의 결합이 상당히 긴밀하기 때문에 앞 성분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25)a 와 b 는 모두 부사어인 ‘仅仅’이나 ‘可能’을 첨가할 수 없다.

또한 (24)의 경우 주요 동사의 뒤에 상표지를 부가하지 못한다. 이때 술어성 성분인 ‘安全监督局警告肖村煤矿’과 ‘他出这种事故’는 주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요 동사 뒤에 ‘了’나 ‘过’를 추가할 경우 (26b)와 (27b)처럼 동량구의 앞에 부사를 첨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26) a. 我只见过班主任一次。
나는 담임 선생님을 단지 한 번만 보았다.
b. *我见过班主任仅仅一次。

(27) a. 他回了美国三趟。
그는 미국에 세 번 돌아갔다.
b. *他回了美国可能三趟。

둘째, 겸어문에서 동량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VP_2뿐이며 VP_1는 동량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28) 我们已派人请过他三次, 他就是不露脸。 (格非『江南三部曲』)
VP_1 VP_2
우리는 이미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세 번 초청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겸어구인 (28)는 ‘派人’(VP_1)과 ‘请他’(VP_2) 등 두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전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派人’이라는 행위가 세 번 발생하였으며 파견된 사람이 세 번 ‘请他’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때 VP_1과 VP_2가 하나의 사건으로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派人’이라는 행위는 한 번만 발생하였으며 파견된 사람이 세 번 ‘请他’라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이때의 VP_1과 VP_2는 ‘我已派(了)人, 请过他三次’처럼 느슨한 관계로 나타난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VP_1이 동량구의 할당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에 근거하면 동량구 '三次'는 반드시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VP_2와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三次'를 전체 문장의 술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셋째, 동량구가 술어가 된다면 강세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동량구가 문말에 있을 때 반드시 강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9) a. 佟忍安走过来只说一句 : "后晌, 你来我屋一趟。"
(冯骥才『三寸金莲』)
퉁런안은 걸어와서 '오후에 내 방에 한 번 와라'고 한마디 했다.
b. 那次争吵促使他重新审视妻子一番。 (渡边淳一『不分手的理由』)
그때의 말다툼은 그가 아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피게 했다.

예문(29)에서 '一趟'이나 '一番'이 강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허화된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2.3.3.3 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2.3.3 보어설

'이중타동구조설'은 통사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술어설'로도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 보어설의 적합성을 고찰해보자.

2.3.3.1 통시적 관점

石毓智(2004:282-284)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중국어에서 동사와 목적어의 뒤에는 술어성 성분이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은 주어나 동사 또는 목적어를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해당 구조를 'V+O+X'로 표현하였다.

(30) a. 宣武移镇南州, 制街衢平直。 (『世说新语・言语』)
선무제는 주둔지를 남주로 이동시켰고 모든 길을 평평하고 직선으로 만들었다.

b. 女乃呼婢云：“唤江郎觉”。 (『世说新语・假谲』)
그 여자는 그제야 하녀를 불러서 ‘쟝랑을 깨워라’고 했다.
c. 讲『大盘涅槃经』数十遍。 (『菩提达摩南宗定是非论』)
『대반열반경』을 수십 차례 강의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吴怀成(2011)은 중국어의 동보구조가 점진적으로 ‘V+O+X’ 구조에서 ‘V+X+O’로 변화되었지만, 현대중국어에서의 ‘看完戏三天了’나 ‘上周去了天津一趟’ 등과 같은 일부 구문에서처럼 X 자리가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현대중국어의 ‘동사+명사+동량사’와 같은 구조는 고대중국어의 ‘V+O+X’를 계승한 구조로 볼 수 있다,

본고는 吴怀成(2011)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다른 보어성 성분들이 X 자리를 차지하는 몇 가지 구문을 찾아냈다.

(31) a. 我刚放了瓶奶在桌子上, 打完水回来就不见了。 (微博)
나는 방금 우유 한 병을 책상 위에 놓았었는데, 물을 받아서 돌아오니 없어졌다.
b. 作为老师, 你必须一个字儿一个腔调唱给学生听。
(人民日报海外版 2008)
선생님으로서 당신은 반드시 한 글자씩, 한 가락씩 불러서 학생에게 들려줘야만 한다.
c. 旅客们寻水不得, 只好掏钱买高价饮料解渴。 (人民日报 1996)
여행객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돈을 꺼내서 비싼 가격으로 음료수를 사서 갈증을 해소했다.
d. 教研室来了一个新的海归很年轻。 (金立鑫 2017)
연구실에 해외 유학파가 새로 왔는데 나이가 어리다.

(31)에서 모든 명사성 목적어의 뒤에 출현하는 X는 술어성 성분으로 분석된다. 밑줄 친 부분인 ‘在桌子上’, ‘听’, 不得’, ‘很年轻’ 등은 모두 X에 속하고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문들은 ‘V+N+Q’ 구조인 ‘去了天津一趟’과 유사한 구조라고 판단된다.

구문변화(constructional changes)의 관점에서 보면 구문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새로운 구문이 형성되더라도 원래 있는 구문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Traugott & Trousdale 2013). 새로운 구문인 'V+Q+N'은 명나라나 청나라 시대부터 민국시대까지 발전하여 현재는 우세 구문이지만(方梅 1993, 박향란 2016) 원래 있던 'V+N+Q'의 사용 빈도가 점차 감소했을 뿐 고대중국어 'V+N+Q'의 특성과 의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吴怀成(2011)과 金立鑫(2017)은 동목구조 다음에 나타나는 수량 구조나 위에 열거된 다른 'X' 성분에 대해 서술성을 인정하지만, 石定栩(2006)가 말하는 서술어 성분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金立鑫(2009:389)에 따르면, 중국어의 보어는 서양 문법의 'complement'에서 번역된 것이지만, 실제 중국어 보어의 의미와 외연은 크게 바뀌었고 심지어 원래의 'complement'의 기본 의미에서도 벗어났다. 즉 중국어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보어는 동사 뒤에 목적어를 제외한 모든 통사 성분을 가리킨다. 또한 朱德熙(1982:125)에 따르면 보어는 일반적으로 술어성 성분으로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20] 현대중국어의 전통적인 문법 체계의 틀에 근거하면 동사의 뒤에 술어성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는 '보어'로 분류된다.

한편 石定栩(2006)는 동량구를 술어라고 주장했는데, 본고는 그가 제시했던 예문을 다시 검토하여 보어로 해석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려 한다. 石定栩는 동량구 앞에 부사나 양태사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량구를 서술어 성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어 앞에도 부사와 양태사가 삽입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赵元任(1968:355)은 '他唱 de(得)好听'과 같은 구문을 술어식 보어(predicative complement)라고 명명했다. 바로 교학문법에서 흔히 말하는 상태보어이다. 상태보어가 들어간 구문에서는 'V+N+Q' 구문과 마찬가지로 부사어를 삽입할 수 있다.

---

20) 朱德熙(1982:52)에 따르면 수량구조도 술어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每人一个', '我就一本' 의 '一个' 및 '一本'은 모두 서술어 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32) a. 关于这, 我写得已经很多了。 (孙犁『青春余梦』)
이에 관해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썼다.
b. 她那辫子梳得才光呢。 (萧红『呼兰河传』)
그녀의 땋은 머리야말로 곱게 빗겨 있었다.
c. 从那么高的梁上掉下, 她摔得可能不轻。 (凌尘『擒贼公主』)
그렇게 높은 대들보에서 떨어졌으니 그녀는 아마도 심하게 다쳤다.

술어식 보어의 주요 특징은 보어 앞에는 휴지가 올 수 있으며 예문(32)와 같이 ‘已经’, ‘才’나 ‘可能’ 등과 같은 부사를 삽입할 수 있다.

따라서 ‘V+N+Q’ 구조와 일부 동보구조는 내부 긴밀도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V+N+Q’ 구조에서 동량구 앞에 부사를 부가할 수 있듯이 서술식 보어가 출현하는 동보구조의 경우에도 보어의 앞에 부사를 부가할 수 있다. 즉 이 두 구조의 긴밀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는 ‘V+N+Q’의 동량구가 상태보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분석 과정을 근거로 동량구를 보어로 분류하고자 한다. ‘술어설’의 모든 예문이 ‘보어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3.3.2 ‘一+동량사’가 허화된 경우

‘一+동량사’의 경우, 의미가 허화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3) a. 张三痛打李四一顿$_2$。
장싼은 리쓰를 한 번 심하게 때렸다.
b. 老李白疼了女儿一场$_2$。
라오리는 딸을 애지중지 키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다)
c. 他审视妻子一番。
그는 아내를 한 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d. 领导批评小王一通。
상사는 샤오왕을 한 차례 비판했다.

(33)을 보면 수량사가 '一'인 경우 문말의 동량구는 강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문말의 '一+동량어'가 어느 정도 허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수사는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위 예문에서 수사 '一'를 '二'이나 '三'으로 대체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는 '一+동량사'가 동작이나 행위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3)의 '一顿$_2$, 一场$_2$, 一番, 一通'은 동작이나 행위의 지속성(continuativity)이나 강렬함(intensity)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허화된 의미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 상(aspect) 체제로는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기존의 연구도 있었다. 吕叔湘(1942/2018:324)은 동량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작의 횟수는 '양(量)'의 개념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시간(时)'의 개념과도 관련된 '동상(动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동상'이 무엇인가? 吕叔湘(1942/2018:324)에 따르면 '동상'은 '하나의 동작 과정에서의 각 단계[21]'를 말한다. 또한 梁银峰(2005:27)은 근대중국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동상보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동상보어'(phase complement)라는 용어는 赵元任(1968)이 최초에 제시한 것인데, 吕叔湘(1979)이 이를 '동상보어(动相补语)'로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즉 동상보어는 서술한 사건에 일종의 종결(telic)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완료나 실현을 나타내는 상표지에 비해 볼 때 '준 상표지'(quasi-aspectual marker)라 할 수 있다. 吴福祥(1998)은 동상보어의 기본 기능을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기존의 논의에 따라 본고는 허화된 '一+동량사'는 '완결(completeness)'을 나타내는 '준 상표지'로서 참조시간과 관계없이 동작의 '완결'에 초점을 맞춘 것

21) 여기서 언급된 단계(phase)는 陈前瑞(2008)가 Binnick(1991)의 관점을 차용해서 해석한 것이다. 그는 단계는 상황 전개 과정의 한 부분을 말하며 전망(prospective), 시작전(onset), 시작(inceptive), 지속(durative), 정지(terminative), 완결(coda), 회상(retrospective) 등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고는 허화된 ‘一+동량사’의 경우도 보어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2-4〉 ‘V+N+Q’의 통사구조

Q의 의미특징	예시	통사구조
Q는 수량을 계산함	去(了)北京三次	[V+N]+Q 보
‘一+동량사’가 허화된 경우	他审视了妻子一番	[V+N]+Q 동상보어

2.4 소결

본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표2-5〉 ‘V+Q+N’과 ‘V+N+Q’의 통사구조

	예시	통사구조
V+Q+N	①发生一次战争 ②进一趟城 ③打一次小李 ④赞美一番祖国	V+[Q 관+N] ↕ [V+Q 보]+N
V+N+Q	①去(了)北京三次	[V+N]+Q 보
	②他审视了妻子一番	

‘V+Q+N’ 구조에서 동량구는 통사적으로 볼 때, 유동적이다. 어떤 동량구는 V 와의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보어로 인식할 수 있고, 어떤 동량구는 N 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에 관형어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어떤 동량구는 중간 지대에서 모호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동량구의 실제 모습은

보어에서부터 관형어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연속체로 볼 수 있다.

‘V+N+Q’ 구조의 경우에는 ‘一+동량사’가 허화가 되었다면 동량구의 기능은 ‘동상보어’이고, 그 밖의 동량구는 모두 보어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동상보어’도 보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치면 동량구를 모두 보어로 분석할 수 있다.

제3장 타동성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미치는 영향

제 3 장에서는 개별 문장 안에서의 의미분석을 통해 두 가지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주로 다음과 같은 현상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1) a. 去了三次图书馆。
도서관에 세 번 갔다.
b. 去了图书馆三次。
(2) a. 抽了三次烟斗。
곰방대를 세 번 폈다.
b. *抽了烟斗三次。

'图书馆'과 같은 목적어는 동량구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烟斗'와 같은 목적어는 동량구 뒤에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관계 유형을 보면 (1)에서의 '图书馆'은 장소이고 '烟斗'는 도구이다. 목적어의 의미역(semantic role)이 다르면 어순 변이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미역은 한 문장의 명사 성분과 문장의 주요 동사 사이에 특정 의미 관계를 가리키며, 그 명사 성분은 특정한 역할을 한다.[22] 중국어의 목적어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의미 관계에 따라 '행위자, 피행위자, 결과, 장소, 도구' 등과 같은 의미역으로 나눌 수 있다(谭景春

22) 전형적인 의미역은 행위자(agent)와 피행위자(patient)이다. 예를 들어 'Bill hit John'에서 'Bill'은 행위자이고 'John'은 피행위자이다.

1995, 孟琮 1999, 张云秋 2004). 본장에서는 목적어의 의미역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배열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결정적인 기제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3.1 기존연구 검토

제 1 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马庆株(1983)는 V 와 N 의 의미 관계가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3] 그러나 方梅(1993)는 马庆株(1983)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녀는『动词用法词典』에서 동목의미유형의 분류에 따라 '피행위자, 결과, 대상, 장소, 도구, 방식, 시간, 목적, 원인, 사역, 행위자, 동족(cognate), 동등' 등의 13 종류의 목적어를 설정한 후, 각각의 목적어가 동량구와 결합하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문들의 분석을 통해 각 목적어가 두 가지 어순에 출현하는 경우, 목적어의 의미분류는 어순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方梅(1993)의 분석 방법에도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각 의미역과 결합한 동량사를 선정할 때 임의로 1~3 개를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문마다 동일한 동량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변인(variable)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

둘째, 예문의 술어형식도 일치하지 않는다. 예문 중에 어떤 동사는 아무런 상표지도 부가하지 않았고, 어떤 예문은 '过'나 '了'를 부가했다. 그러나 본고는 상표지의 유무 역시 문장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3) a. *看病人两趟。
b. 他看了病人两趟。
환자를 두 번 문병했다.

23) 马庆株(1983)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 를 참조.

예를 들어, (3a)는 方梅(1993)가 제시했던 예문인데, 그녀는 이때 N은 사람 명사지만 동량구 앞에 위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b)와 같이 동사 다음에 '了'를 추가하면 N이 사람명사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즉 시제표지도 변인이므로 테스트를 진행할 때 동사의 시제 형식은 통일되어야만 한다.

또한 马庆株(1983)는 장소인 N이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方梅는 이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아래 예문을 제시했다.

(4) a. *扛两趟屋里。
b. 扛屋里两趟。
집 안으로 두 번 메고 들어갔다.

方梅의 주장에 따르면 (4)처럼 일부 장소명사는 동량구 앞에만 위치할 수 있고 동량구 뒤에는 위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동사 뒤에 나오는 장소명사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4)의 '屋里'는 목적어가 아니라 장소 보어이다. 朱德熙(1982)는 '보어 자리에 있는 在와 到가 약화한 형태인 de가 될 수 있는데, 더 순수한 베이징 방언에서는 이 de마저 사라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4b)에서 '扛屋里'는 '扛到屋里'로 확장될 수 있으며, 전체 구조는 '在'나 '到'가 없는 동보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4a)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 즉 方梅의 주장에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본고는 이에 따라 장소목적어를 세분화한 후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3.5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이수진(2006)은 다른 방법으로 각 의미역이 동량구의 앞뒤에 분포하는 양상을 연구했다. 그녀는 13개 목적어 의미역을 선정하고 중국 현대소설, 산문, 문법책 등에서 동량구와 목적어를 포함한 611개의 예문을 추출한 후 각 의미역이 동량구의 앞뒤에 분포하는 수량을 계산했다. 그 결과 전용 동량사와 결합했을 때 '피행위자, 결과, 대상, 장소, 사역' 등 5가지 의미역은 동량구의 앞뒤에 올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역은 동량구 뒤에만 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수진(2006)은 처음으로 코퍼스를 이용해 기존의 马庆株(1983)의 연구가설

을 검증했지만, 그녀의 연구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의 수량이 적어서 일부 의미역이 특정 동량사와 결합하는 용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의미역이 두 가지 어순 모두에서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동량사 '场'과 '下'를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결과의 신빙성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저자는 '场$_1$'과 '场$_2$'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목적어가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결론이다.

종합적으로 본고는 马庆株(1983)의 관점에 동의하며, 목적어의 의미역은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본장은 선행연구가 전체 동량사를 다루지 못한 점을 보완해 전용동량사 전체를 예문에 넣어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단지 개별 현상 묘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역은 분포 제한이 있다는 기제를 설명하지 못했다. 본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의미역의 분포 양상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을 형성하는 기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3.2.1 연구절차

우선 본고는 9개의 목적어 의미역을 설정한 후 각 동량사와 의미역을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예문을 만들었다. 동량사의 내재적 의미로 인해 각 동량사와 공기할 수 있는 의미역의 종류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한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동사유형을 철저하게 고찰하고 이 동사로부터 확장될 수 있는 동목구조를 만들어 보았다. 周娟(2007)이 이미 각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들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를 진행했기에 본고는 이 연구의 결과물을 참조했다. 본고는 이 중에서 동목관계에만 집중하였고, 이에 周娟(2007)의 연구 결과

에서 타동사만을 추출했다. 이외에도 北京语言大学 BCC 와 北京大学 CCL 코퍼스를 이용해 각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는 타동사를 선별하였고, 그 결과 周娟(2007)의 연구를 보충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동량사 별로 예문을 만들고 어순을 바꿔가며 예문의 정확성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동량사와 결합한 의미역들의 'V+Q+N'과 'V+N+Q' 두 종류의 어순에 분포하는 잠재력(distributional potential)[24]을 종합한 후 그 규칙성을 도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각 의미역이 동량구와 결합할 때 형성된 패턴의 심층기제를 분석하였다.

3.2.2 각 성분의 범위와 형식 설정

3.2.2.1 목적어의 의미역 분류

Dowty(1991), 徐枢(1981), 马庆株(1992), 谭景春(1995), 孟琮(1999), 张云秋(2004) 등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본고는 목적어의 의미역을 피행위자(patient), 대상(object), 결과(result), 장소(location), 도구(instrument), 방식(manner), 재료(material), 목적(purpose), 행위자(agent) 등과 같이 분류했다.[25] 목적어의 의미역은 사실상 동목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목적어 의미역은 아래와 같이 모두 동목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각 의미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피행위자 목적어: '打同学', '切萝卜' 등의 구조에서처럼 동작이나 행동이 사물에 직접 작용하는 목적어로, 사물은 반드시 동작이나 행동의 영향을 받으며 강한 수동성(affectedness)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把同学打了'나 '把萝卜切了' 등과 같이 보통 '把'로 피행위자를 앞당길 수 있다. 의미역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주는 영향을 고찰한 기존의 연구(马庆株 1983, 황후남

24) Croft(2002)를 참조.

25) '张三借李四宝马车两次了'와 같은 이중타동구조와 동량구가 결합하는 경우 동사 뒤에 세 개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순 배열 양상이 좀 다르다. 본고는 단일 목적어에만 집중하여 이중타동구조와 동량구가 공기하는 경우에 대해 향후에 연구할 예정이다.

2018, 李湘 2020)은 일반적으로 피행위자를 사람명사와 물건명사로 나누었지만, 인간이 아닌 많은 유정 개체가 사람명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코퍼스에서 발견된다.[26] 이런 비(非)인간 명사도 동량구의 앞뒤에 나타날 수 있으니 본고는 사람 명사와 물건 명사 대신 유정성에 따라 피행위자를 유정 피행위자와 무정 피행위자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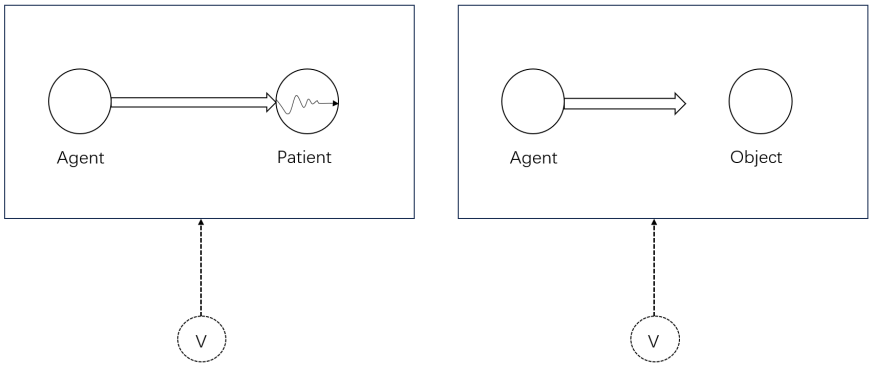
② 대상 목적어: '教育孩子', '采访群众', '回忆童年', '喷床单' 등에서 '孩子', '群众', '童年', '床单'처럼 동작이나 행위가 향하는 특정 대상을 의미한다. 孟琮 등(1999)에 따르면 이런 목적어들은 일반적으로 전치사 '对, 向, 与, 给'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동사 앞에 전치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환 후에는 '对孩子加以教育', '对群众进行采访', '对童年进行回忆', '向床单喷' 등과 같이 때때로 '加以, 给予, 予以, 给以, 进行' 등 형식동사(dummy verb)를 추가하거나 '与……相' 형태로 변환해야 문장이 성립된다.

대상 목적어와 피행위자 목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피행위자 목적어는 반드시 행위자에 의해 주어진 힘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내재적 변화(change of state)[27]가 일어나는 한편, 대상 목적어는 아래 그림(V는 사건의 관찰자를 의미하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곡선은 내재적 변화를 의미한다)에서처럼 행위자에게서 물리적인 힘을 받지 않아 단지 힘의 방향만을 표현한다. 따라서 내재적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

26) 예를 들어, 실제 코퍼스에서는 '我扔了三次虎妞'와 '我扔了虎妞三次'라는 두 가지 어순이 모두 발견된다. '虎妞'는 고양이의 이름인데 사람 명사가 아니더라도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27) Dowty(1991)를 참조.



〈그림3-1〉 행위자와 피행위자 목적어, 대상 목적어의 관계

또한 본고는 张月(2008)의 연구에 따라서 대상 목적어도 유정 대상과 무정 대상으로 나누었다.

③ 결과 목적어: '写小说', '造大桥', '讲故事'와 같은 구조처럼 결과목적어는 동작이나 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나타내며, 이 결과는 실체 사물 또는 추상적인 사물일 수 있다. 동작이나 행위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장소 목적어: '睡地板', '去天山'과 같이 동작의 행동이 위치하거나 향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모든 명사가 반드시 장소 목적어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1 에서 언급한 '搬屋里'의 '屋里'는 장소 보어이다.

구체적으로 동목구조가 나타내는 공간 이동 방식에 따라 장소 목적어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표3-1〉 장소 목적어의 의미 유형

종점(destination)	去机场
기점(ablative)	离开首都
위치(location)	睡地板
경유(path)	走大桥

<표 3-1>의 네 종류 장소 목적어 중 기점을 나타내는 장소 목적어는 동량사와 결합할 때 의미적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离开两次首都'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분석을 할 때 기점 장소 목적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본고는 실제 분석 과정에서 종점 장소는 다른 장소와 달리 어순 실현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장소 의미역도 종점 장소와 비 종점 장소로 나누었다.

⑤ 도구 목적어: '捆绳子', '抽烟斗', '吃大碗'처럼 행위나 동작이 의지하거나 사용하는 도구를 나타내며, 형식적으로 '用绳子捆, 用烟斗抽, 用大碗吃'와 같이 '用'을 이용해 변환할 수 있다. 任鹰(2000)은 도구 의미역의 전형적인 특징은 [+형태적], [+피 통제적], [+피 양도적]이라고 주장했다.

⑥ 방식 목적어: '存活期', '寄快件'과 같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됨을 제시한다. 陈小明(1995)과 高俊霞(2006)에 따르면 방식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按照活期的方式存'이나 '按照快件的方式寄'처럼 '按 O 的方式 V'의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⑦ 재료 목적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실시할 때 사용된 재료 또는 소모된 물질을 의미한다. '刷油漆', '涂药膏'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와 함께 '油漆', '药膏' 등 재료들은 다른 물체에 부착되어 재료 자체가 사용되면서 소모되는 것이다.

도구 목적어와 재료 목적어의 공통점은 둘 다 '用'을 이용해 동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谭景春(1995)에 따르면 도구 목적어는 재료 목적어처럼 기본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외형 경계가 명확한 도구 목적어와 비교하여 재료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내부 개체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물질이다.

⑧ 목적 목적어: '排戏票', '跑贷款'과 같이 동작이나 행위의 목적을 나타낸다. 孟琮 등(1999)은 일반적으로 목적 목적어는 '为戏票而排队'나 '为贷款而跑'와 같이 전치사 '为'를 이용해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王凤兰(2011)도 목적 목적어를 판별하는 다른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즉 동사는 전형적인 피행위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며 전체 동목구조

는 획득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목적 목적어와 결합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환유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排'는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서서 구매한다는 뜻이고, '跑'도 단순히 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의미로 파생된다.

⑨ 행위자 목적어: 어떤 행위가 발생할 때 그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주어 자리는 행위자의 암묵적 지정(default) 위치지만 중국어의 경우 '下雨了', '来客人了'처럼 행위자가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위에 각 의미역을 정의할 때 피행위자와 대상만을 유정과 무정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역 중 결과, 목적, 행위자 등도 유정과 무정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본고가 미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유정인지, 무정인지 상관없이 어순 변이의 양상이 동일하다. 하지만 피행위자와 대상을 포함하는 예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 어순 전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피행위자와 대상을 제외한 의미역의 경우 유정과 무정을 따로 구분하여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3.2.2.2 목적어와 술어의 형태

陈平(1987)은 중국어의 명사형식을 'A 조 인칭대명사', 'B 조 고유명사', 'C 조 这/那+(양사)+명사', 'D 조 맨명사', 'E 조 숫자+(양사)+명사', 'F 조 一+(양사)+명사', 'G 조 양사+명사'와 같이 7 개의 종류로 나눴다. 3.3 절의 분석에서는 'D 조 맨명사'만을 사용하고 다른 6 종류의 형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수량 구조의 수량은 제한을 받으므로, 두 개의 수량성분이 동사 뒤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陆丙甫 1993, 方梅 1993, 沈家煊 1995, 姚双云・储泽祥 2003). 예를 들어 '*批评一通两个孩子'와 같은 문장은 두 개 수량성분이 동사 뒤에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즉 7 가지 어휘 형식 중에 E 조, F 조, G 조 등 3 가지 형식은 동량구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

둘째, 刘月华 등(1983), 马庆株(1983), 李临定(1986)에 따르면 대명사는 동량구 앞에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N 을 'A 조 대명사' 형식으로 설정하면 어순 변환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B 조 고유명사'의 경우는 도구, 방식, 재료, 목적 등 의미역에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方梅(1993)에 따르면 한정(Definite)성분은 'V+N+Q' 구문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C 조 这/那+(양사)+명사'는 한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순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위 논의에 따르면 A 조, B 조, C 조 모두 어순 변환 분석에 적절한 형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셋째, 陈平(1987)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맨명사는 지시/비지시로도, 한정/비한정으로도 설정될 수 있다. 어감과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N 에 적당한 지시성 또는 한정성을 부여줄 수 있으므로 분석에 적절한 형태라고 판단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명사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맨명사를 사용하는 분석은 3.3 절의 어순 테스트에만 적용된다. 이는 어순 테스트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의미역의 분포 양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3.3 절을 제외한 본고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를 다룰 것이다.

또한 동사 뒤에 시제나 상표지가 없을 경우, 'V+N+Q'는 단문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아래 예문과 같은 대조의 문맥을 선호한다.

(5) 他一周下馆子两次, 点外卖三次。
그는 일주일에 식당에 두 번 가고, 배달주문을 세 번 시킨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술어에 '了'나 '过'을 부가할 것이다. '了'를 우선 사용했거나 '了'를 사용할 때 예문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过'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了'나 '过'를 부가했을 때 동목구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실제 분석에 앞서 우선 운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2.2.3 동목구조의 운율과 어순 제한

실제로 운율 문제는 어순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음절 동목구조와 동량구를 결합할 경우 운율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 따라서 대규모 어순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운율이 이음절 동목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음절 동목구조인 '养鱼'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6) a. 养一次鱼。
물고기를 한번 기른다
b. 养了一次鱼。
물고기를 한번 길렀다
c. ?养鱼一次。
물고기를 한번 기른다.
d. *养了鱼一次。

(6a)와 (6b)와 같은 'V+Q+N' 어순은 운율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순을 바꾸었을 경우 (6c)는 일정 조건에서는 성립하지만 (6d)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어의 문장 강세 특징과 음보(foot)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Chao(1968), 冯胜利(1997), 徐烈炯(2002) 등은 일반적으로 표준중국어에서 문장의 일반강세는 문말, 즉 마지막 운율 단위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마지막 운율 단위가 가장 무겁다. 그리고 운율 단위는 음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端木三(1999)에 따르면 경중 박자가 한번 교체하는 것이 음보이다. 중국어의 이음절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음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음절인 '柴米油盐'은 [柴米/油盐]으로 분할되어 두 개의 음보를 형성한다. 또한, 冯胜利(1997)에 따르면 중국어의 음보는 이음절보다 클 수 있고 삼음절도 될 수 있다.[28] 예를 들어 [野火/烧不尽], [春风/吹又生]의 '烧不尽'과 '吹又生'는 모두 삼음절 음보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6)의 네 가지 예문의 음보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29]

---

28) 冯胜利(1997)는 삼음절을 초음보(super foot)라고 칭했다.

(7) a. [养/一次鱼]
b. [养了/一次鱼]
c. ?[养鱼/一次]
d. *[养了鱼/一次]

본고는 마지막 음보를 기준으로 끝에서 첫 번째 음보를 F1, 끝에서 두 번째 음보를 F2, 끝에서 세 번째 음보를 F3 라고 한다. 기존 연구에 따라 본고는 중국어의 한 문장에서 음보가 다음과 같은 운율 제약 조건(constraint)을 받는다고 설정한다.

제약 조건 1: F1 은 무거운 것을 선호한다.
제약 조건 2: F2 가 F1 보다 무거운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네 개의 통사구조 형식이 이런 제약 조건에 부합할지 검증할 것이다. (7b)와 (7a)의 차이점은 시제 성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7b)를 보면 F2 는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되고 그중에서 기능어인 '了'가 약음절이다. F1 은 세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기에 F1 은 F2 보다 무겁다. 따라서 (7b)는 '제약 조건 1'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7a)의 F2 는 하나의 음절만 있지만 '자유 음절'[30]로 간주할 수 있고 F2 는 세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기에 F1 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무겁다.

(7d)의 F2 는 세 개의 음절로 구성되며 F1 은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된다. 이때는 F2 가 F1 보다 현저히 무겁기에 '제약 조건 2'를 위배하게 된다. 따라서 운율만 보면 '了'나 '过'를 가진 이음절 동목구조는 동량구 앞에 출현할 수 없다.

(7c)의 경우 F1 과 F2 는 같은 음절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도 비슷하다. 그래서 단일 문장에서 '养鱼一次'는 좋은 운율 구조라고 말할 수 없다. 그

29) 端木三(1999)는 음보가 조합될 때 문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 端木三(1999)에 따르면 음보에 포함되지 않고 강세를 가지지 않는 단음절은 '자유 음절'로 볼 수 있다.

런데 이런 구조가 실제로 사용될 때는 (8)처럼 일반적으로 단일 문장을 이룰 수 없으며 전후 문맥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8) 这十年, 他养猫两次, 养鱼一次。
그는 십 년 동안 고양이를 두 번 키웠고 물고기를 한 번 키웠다.

이런 대조 문맥에서 앞 절의 '两次'와 뒷 절의 '一次'는 모두 '대조 강세'를 가진다. 冯胜利(1997)에 따르면 일반 강세와 '대조 강세' 같은 특수 강세를 구분해야 한다. 이때는 동량구가 특수 강세를 가지게 되어 F1 이 F2 보다 무겁기 때문에 '제약 조건 1'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대조 문맥은 이음절 동목구조가 동량구 앞에 출현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단순히 운율적으로 볼 때 이음절 동목구조는 'V 了/过+N+Q'의 어순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아래의 분석에서 이음절 동목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삼음절이나 사음절 동목구조만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삼음절이나 사음절 동목구조는 'V 了/过+N+Q' 어순에 들어갈 때 문제가 없는가? '种柳树', '种植柳树', '打小李', '表扬小李' 등을 이용해 검증해보자.

(9) a. [*种了/柳树/一次]
b. [*种植了/柳树/一次]
c. [打了/小李/一次]
d. [表扬了/小李/一次]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제약 조건은 F3 과는 상관이 없다. 즉 F3 이 몇 개의 음절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F1 과 F2 의 강약에만 집중할 것이다. (9a)와 (9b)의 경우 '柳树'는 총칭(generic) 명사이다. Lambrecht(1994:106/108)는 인지상태를 보면 총칭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항상 확인불가능한(identifiable)[31] 지시

31) 담화 지시체 인지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4.2.1 을 참조

체이고 이런 지시체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면 총칭 명사인 '柳树'는 완전한 강세를 가진 어휘 형식이기 때문에 (9a)와 (9b)에서 F2 는 F1 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제약 조건 1'을 근거로 (9a)와 (9b)는 모두 이상적인 운율 구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c)와 (9d)처럼 일부 삼음절이나 사음절 동목구조는 'V 了/过+N+Q' 어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小李'는 고유명사이다. 冯胜利(1997:83)에 따르면 언어의 어휘 체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운율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다. 한정명사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발음되고 약강세 형식(weak form)에 속한다. 또한 陈平(1987)은 중국어에서 고유명사가 한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유명사도 약강세(unstressed)로 실현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9c)와 (9d)는 모두 F1 이 가장 무겁다는 경향성에 부합한다.

위 분석을 통해 동목구조가 삼음절이나 사음절인 경우 운율적으로 'V 了/过+N+Q' 어순이 허용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고의 연구 틀 안에서 어순 변환이 되는지 여부는 의미적 차원의 제약 요소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이음절 동목구조보다는 삼음절이나 사음절 동목구조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검증 대상이다.

3.3 어순 배열 분석

3.3.1 'Q(次)'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제 1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次'는 장면층위 술어와만 결합할 수 있고 상황의 반복가능성을 요구한다는 두 가지 제약 조건만을 제외하면 결합할 수 있는 동사들의 범위가 가장 넓다. 따라서 '次'는 본고가 검증할 모든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10) 피행위자

a. 小李打了两次同学。(유정)
샤오리는 학우를 두 번 때렸다.

b. 小李打了同学两次。

c. 小李切了三次萝卜。(무정)
샤오리는 무를 세 번 썰었다.

d. *小李切了萝卜三次。

(11) 대상

a. 老师表扬了一次学生。(유정)
선생님은 학생을 한 번 칭찬했다.

b. 老师表扬了学生一次。

c. 小李违反了一次校规。(무정)
샤오리는 교칙을 한 번 위반했다.

d. *小李违反了校规一次。

(12) 결과

a. 她生过一次孩子。
그녀는 아이를 한 번 낳았다.

b. *她生过孩子一次。

(13) 장소

a. 他去了三次机场。(종점)
그는 공항에 세 번 갔다.

b. 他去了机场三次。

c. 他睡了两次地板。(비 종점)
그는 바닥에서 두 번 잤다.

d. *他睡了地板两次。

(14) 도구

a. 小李吹了两次风扇。
샤오리는 선풍기를 두 번 쐬었다.

b. *小李吹了风扇两次。

(15) 방식

a. 他寄了一次快件。
그는 속달우편을 한 번 부쳤다.

b. *他寄了快件一次。

(16) 재료

a. 他刷了一次油漆。

그는 페인트를 한 번 칠했다.

b. *他刷了油漆一次。

(17) 목적

a. 我办了一次护照。

나는 여권을 한 번 만들었다.

b. *我办了护照一次。

(18) 행위자

a. 家里来了一次客人。

집에 손님이 한 번 왔다.

b. *家里来了客人一次。

〈표3-2〉 'Q(次)'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次)+N	V+N+Q(次)
피행위자(유정)	+	+
피행위자(무정)	+	-
대상(유정)	+	+
대상(무정)	+	-
결과	+	-
종점장소	+	+
비 종점장소	+	-
도구	+	-
방식	+	-
재료	+	-
목적	+	-
행위자	+	-

3.3.2 'Q(趟)'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趟'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의미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飞, 去, 来, 跑, 进, 回, 到, 上, 下, 往, 游'와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류이다. 두 번째 종류는 '看(病人), 送, 找(老师)' 와 같이

이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이다. 세 번째 종류는 '拉, 运, 推, 拿, 取, 铺'와 같이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이동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趟'는 다음과 같이 7 가지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19) 피행위자

a. 小李送了一趟包裹。(무정)
샤오리는 소포를 한 번 보냈다.

b. *小李送了包裹一趟。

(20) 대상

a. 小李看过一趟病人。(유정)
샤오리는 환자를 한 번 문병했다.

b. 小李看过病人一趟。

(21) 장소

a. 他去了三趟机场。(종점)
그는 공항에 세 번 갔다.

b. 他去了机场三趟。

c. 小李走了一趟大桥。(비 종점)
샤오리는 대교를 한 번 걸었다.

d. *小李走了大桥一趟。

(22) 도구

a. 小李拉了三趟板车。
샤오리는 짐수레를 세 번 끌었다.

b. *小李拉了板车三趟。

(23) 방식

a. 小李游了一趟蛙泳。
샤오리는 평영을 한 번 했다.

b. *小李游了蛙泳一趟。

(24) 재료

a. 小李铺了两趟沥青。
샤오리는 아스팔트를 두 번 깔았다.

b. *小李铺了沥青两趟。

(25) 목적

a. 小李跑了三趟贷款。

샤오리는 대출받으러 세 번 다녀왔다.

b. *小李跑了贷款三趟。

〈표3-3〉 'Q(趟)'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趟)+N	V+N+Q(趟)
피행위자(무정)	+	-
대상(유정)	+	+
종점장소	+	+
비 종점장소	+	-
도구	+	-
방식	+	-
재료	+	-
목적	+	-

3.3.3 'Q(遍)'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遍'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로는 '说, 看, 读, 念, 讲, 问, 唱, 做, 听, 想, 写, 背, 翻, 洗, 搜, 查, 弹, 数, 抄, 打, 叫, 刷, 学, 吹, 练, 粉刷, 阅读, 观察, 描述, 清点, 校阅, 描述, 叙述, 检视, 温习, 清理, 回忆, 打扫, 整理, 朗诵, 巡视, 搜查, 浏览, 打量, 重复, 检查, 环视' 등이 있으며 모두 시간적 지속성(durative)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또 이 동사들은 모든 동사 'V了一会儿'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 '遍'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26) 피행위자

a. 将军巡视了一遍士兵。(유정)

장군은 사병들을 한 번 순시했다.

b. 将军巡视了士兵一遍。

c. 小李洗了一遍衬衣。(무정)

샤오리는 와이셔츠를 한 번 빨았다.

d. *小李洗了衬衣一遍。

(27) 대상

a. 老师问了两遍学生。(유정)

선생님은 학생에게 두 번 물었다.

b. 老师问了学生两遍。

c. 小李回忆了一遍童年。(무정)

샤오리는 어린 시절을 한 번 회고했다.

d. *小李回忆了童年一遍。

(28) 결과

a. 他讲了一遍故事。

그는 이야기를 한 번 했다.

b. *他讲了故事一遍。

(29) 도구

a. 他吹了一遍小号。

그는 나팔을 한 번 불었다.

b. *他吹了小号一遍。

(30) 방식

a. 他写了三遍宋体。

그는 송체 글자체로 세 번 썼다.

b. *他写了宋体三遍。

(31) 재료

a. 小李刷过一遍油漆。

샤오리는 페인트를 한 번 칠했다.

b. *小李刷过油漆一遍。

(32) 목적

a. 他查了一遍典故。

그는 전고를 한 번 찾아봤다.

b. *他查了典故一遍。

〈표3-4〉 'Q(遍)'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遍)+N	V+N+Q(遍)
피행위자(유정)	+	+
피행위자(무정)	+	-
대상(유정)	+	+
대상(무정)	+	-
결과	+	-
도구	+	-
방식	+	-
재료	+	-
목적	+	-

3.3.4 'Q(顿$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顿$_1$'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주로 '吃, 尝, 饱尝, 饱餐, 享用'과 같은 '먹거나 마시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 혹은 '做, 煮, 熬, 烧'와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동사'이다. '顿$_1$'은 두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33) 피행위자

a. 孩子们吃了一顿$_1$大餐。(무정)

아이들은 풍성한 한 끼를 먹었다.

b. *孩子们吃了大餐一顿$_1$。

(34) 결과

a. 妈妈包了一顿$_1$饺子。

엄마는 한 끼의 만두를 빚었다.

b. *妈妈包了饺子一顿$_1$。

〈표3-5〉 'Q(顿$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顿$_1$)+N	V+N+Q(顿$_1$)
피행위자(무정)	+	-
결과	+	-

3.3.5 'Q(顿$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顿$_2$'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打, 揍, 骂, 抽, 踢, 捶'와 같은 '때리다'는 의미를 갖는 동사나 '训, 斥, 说, 收拾, 数落, 奚落, 批评'처럼 '훈계하다'는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顿$_2$'는 네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35) 피행위자

a. 小李打了一顿$_2$媳妇。(유정)

샤오리는 아내를 한 번 때렸다.

b. 小李打了媳妇一顿$_2$。

(36) 대상

a. 交警教训了一顿$_2$司机。(유정)

교통경찰은 기사를 한 차례 훈계했다.

b. 交警教训了司机一顿$_2$。

(37) 결과

a. 小李打了一顿$_2$耳光。

샤오리는 따귀를 한 차례 때렸다.

b. *小李打了耳光一顿$_2$。

(38) 도구

a. 小李打了一顿$_2$板子。

샤오리는 곤장을 한 차례 때렸다.

b. *小李打了板子一顿$_2$。

〈표3-6〉 'Q(顿$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顿$_2$)+N	V+N+Q(顿$_2$)
피행위자(유정)	+	+
대상(유정)	+	+
결과	+	-
도구	+	-

3.3.6 'Q(场$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场$_1$'과 공기할 수 있는 동사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打, 比, 斗, 战, 赌'와 같은 겨루기나 전쟁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두 번째 종류는 '演, 表演, 上演, 演出, 演唱, 唱, 举办, 举行, 放, 放映, 播放, 开, 拍'와 같이 문화나 오락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세 번째 종류는 '举行, 做, 作, 考'처럼 행사와 관련된 동사들이다.

'场$_1$'은 다섯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39) 피행위자

a. 小李看了两场$_1$电影。(무정)
샤오리는 영화를 두 차례 봤다.

b. *小李看了电影两场$_1$。

(40) 결과

a. 我军打了两场$_1$胜仗。
우리 군대는 두 차례 승전했다.

b. *我军打了胜仗两场$_1$。

(41) 도구

a. 孩子们玩了两场$_1$篮球。
아이들은 농구를 두 게임 했다.

b. *孩子们玩了篮球两场$_1$。

(42) 방식

a. 小李唱过两场$_1$青衣。
샤오리는 경극에서 여자 배역을 두 번 연기했다.

b. *小李唱过青衣两场$_1$。

(43) 목적

a. 小李赌了两场$_1$足球。
샤오리는 축구 결과를 놓고 내기를 했다.

b. *小李赌了足球两场$_1$。

〈표3-7〉 'Q(场$_1$)'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场$_1$)+N	V+N+Q(场$_1$)
피행위자(무정)	+	-
결과	+	-
도구	+	-
방식	+	-
목적	+	-

3.3.7 'Q(场$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场$_2$'와 조합할 수 있는 동사의 유형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吓, 下(大雪), 抚养, 抵挡, 信任, 疼, 耍, 养, 生, 教育, 宠爱, 发(大汗), 交(朋友), 谈(恋爱) 등이 있다. '场$_2$'는 다섯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44) 피행위자

a. 师傅狠揍了一场$_2$徒弟。(유정)

사부는 제자를 한 차례 심하게 때렸다.

b. 师傅狠揍了徒弟一场$_2$。

(45) 대상

a. 小李白信任了一场$_2$朋友。(유정)

샤오리는 친구를 괜히 한 번 믿었다.

b. 小李白信任了朋友一场$_2$。

(46) 결과

a. 小李谈了一场$_2$恋爱。

샤오리는 연애를 한 번 했다.

b. *小李谈了恋爱一场$_2$。

(47) 행위자

a. 下了一场$_2$大雪。

눈이 한 차례 내렸다.

b. *下了大雪一场$_2$。

〈표3-8〉 'Q(场$_2$)'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场$_2$)+N	V+N+Q(场$_2$)
피행위자(유정)	+	+
대상(유정)	+	+
결과	+	-
행위자	+	-

3.3.8 'Q(番)'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番'과 결합할 수 있는 타동사는 '探究, 细究, 梳理, 凭吊, 动(脑筋), 费(心思), 斟酌, 回想, 思考, 思索, 思忖, 构思, 掂量, 体验, 经验, 体察, 体会, 寻思, 检查, 打探, 搞劳, 庆祝, 招待, 干, 走访, 保养, 视察, 考察, 审视, 探视, 描绘, 描摹, 调查, 浏览, 指点, 拆洗, 游历, 演奏, 表演, 刻画, 检修, 舞弄, 把玩, 扫荡' 등이 있다. '番'는 다섯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48) 피행위자

a. 小李打量了一番来客。(유정)
샤오리는 손님을 한 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b. 小李打量了来客一番。

c. 小李擦了一番眼镜。(무정)
샤오리는 안경을 한 번 꼼꼼히 닦았다.

d. *小李擦了眼镜一番。

(49) 대상

a. 老师表扬了一番学生。(유정)
선생님은 학생을 한 차례 칭찬했다.

b. 老师表扬了学生一番。

c. 小李评价了一番新作。(무정)
샤오리는 새 작품을 한 차례 평가했다.

d. *小李评价了新作一番。

(50) 결과

a. 小李成就了一番事业。
샤오리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b. *小李成就了事业一番。

(51) 도구

a. 小李演奏了一番二胡。

샤오리는 얼후를 한 번 연주했다.

b. *小李演奏了二胡一番。

(52) 방식

a. 小李唱了一番 C 调。

샤오리는 C 장조를 한 번 불렀다.

b. *小李唱了 C 调一番。

〈표3-9〉 'Q(番)'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番)+N	V+N+Q(番)
피행위자(유정)	+	+
피행위자(무정)	+	-
대상(유정)	+	+
대상(무정)	+	-
결과	+	-
도구	+	-
방식	+	-

3.3.9 'Q(通)'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通'과 결합할 수 있는 타동사는 '打(电话), 胡编, 讲, 说, 喊, 造, 发, 骂, 发泄, 吹, 杜撰, 念, 卖弄, 喝, 饮, 嚼, 吸, 放(鞭炮), 敲, 扇, 抄, 表演, 踢, 砸, 发表(言论, 感想, 意见)' 등이 있다. '通'은 일곱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53) 피행위자

a. 小李揍了一通小偷。(유정)

샤오리는 도둑을 한 차례 때렸다.

b. 小李揍了小偷一通。

c. 小李擦了一通盘子。(무정)

샤오리는 접시를 한 번 닦았다.

d. *小李擦了盘子一通。

(54) 대상

a. 小李骂了一通老板。(유정)

샤오리는 사장을 한 번 욕했다.

b. 小李骂了老板一通。

c. 小李喷了一通床单。(무정)

샤오리는 침대보에 물을 한 번 뿌렸다.

d. *小李喷了床单一通。

(55) 결과

a. 小李讲了一通道理。

샤오리는 이치를 한 차례 설명했다.

b. *小李讲了道理一通。

(56) 도구

a. 小李吹了一通喇叭。

샤오리는 나팔을 한 차례 불었다.

b. *小李吹了喇叭一通。

(57) 재료

a. 小李胡乱刷了一通油漆。

샤오리는 페인트를 대충 한 번 칠했다.

b. *小李胡乱刷了油漆一通。

(58) 목적

a. 小李胡乱查了一通典故。

샤오리는 전고를 대충 한 번 찾아봤다.

b. *小李胡乱查了典故一通。

〈표3-10〉 'Q(通)'과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通)+N	V+N+Q(通)
피행위자(유정)	+	+
피행위자(무정)	+	-
대상(유정)	+	+
대상(무정)	+	-
결과	+	-
도구	+	-
방식	+	-
재료	+	-
목적	+	-

3.3.10 'Q(下)'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下'와 결합할 수 있는 타동사는 拔, 摆, 擦, 插, 刺, 抽, 吹, 打, 拍, 动, 扶, 撞, 转, 挠, 扎, 吸, 舔, 挖, 吞, 推, 摇, 敲, 按, 捶, 摸, 举, 牵, 拉, 踢, 踩 등과 같이 동작성이 강한 동사이다. '下'는 일곱 종류의 의미역과 공기할 수 있다.

(59) 피행위자

a. 小李打了两下同学。(유정)
샤오리는 학우를 두 번 때렸다.

b. 小李打了同学两下。

c. 小李敲了两下黑板。(무정)
샤오리는 칠판을 두 번 두드렸다.

d. 小李敲了黑板两下。

(60) 도구

a. 他抽了两下烟斗。
그는 곰방대를 두 번 피웠다.

b. *他抽了烟斗两下。

(61) 재료

a. 小李刷了两下油漆
샤오리는 페인트를 두 번 칠했다.

b. *小李刷了油漆两下。

〈표3-11〉 'Q(下)'와 각 의미역의 어순 배열 패턴

의미역	V+Q(下)+N	V+N+Q(下)
피행위자(유정)	+	+
피행위자(무정)	+	+
도구	+	-
재료	+	-

3.3.11 분석 결과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과 종점장소 목적어는 동량구와 공기할 경우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다.

나. 무정 피행위자 목적어와 결합할 경우, '下'를 제외한 다른 '사건외' 동량구들은 모두 목적어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다.

다. 무정 대상, 비 종점장소, 결과, 도구, 방식, 재료, 목적, 행위자를 나타내는 목적어들이 동량구와 결합할 경우 목적어는 동량구의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이런 규칙들을 나타낸다.

〈표3-12〉 동량사와 각 의미역이 결합하는 어순 패턴

	피행위자		대상		장소		결과	도구	방식	재료	목적	행위자
	유정	무정	유정	무정	종점	비종점						
次	++	B	++	B	++	B	B	B	B	B	B	B
趟		B	++		++	B		B	B	B	B	
遍	++	B	++	B			B	B	B	B	B	
顿$_1$		B					B					
顿$_2$	++	B	++				B	B				
场$_1$		B					B	B	B		B	
场$_2$	++		++				B					B
番	++	B	++	B			B	B	B			
通	++	B	++	B			B	B	B	B	B	
下	++	++						B		B		

++는 두 어순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B는 목적어가 동량구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공백은 이 동량사 자체가 해당하는 의미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에 사선 처리가 된 곳은 사건명사와 동량구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의미역이 동량구 전후에 분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위 테스트를 통해 발견한 보완 및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马庆株(1983)의 연구는 단순히 사람명사와 장소명사만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사람명사라는 표현보다는 유정 피행위자와 유정 대상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다. 둘째, 장소명사 중 모든 장소명사가 아니라 종점장소만이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셋째, 기존의 연구는 '下'의 특수성을 간과하여 다른 동량사와 구분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지만, 본고는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를 분리해서 따로 연구했다.

위 분석 결과를 보면, 어떤 의미역은 두 가지 어순을 허용하지만, 어떤 의미역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우선 일부 어순을 변

환할 수 없는 이유는 제 2 장에서 언급한 사건명사와 관련이 있다. N 이 사건명사일 때 'V+Q+N'은 'V+[Q+N]'으로 분석하고 Q 는 N 의 수식 성분이기 때문에 통사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순을 변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표 3-12>에서 모두 사선으로 표시해놨다.

그러나 사건명사와 관련된 내용은 단지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현상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과 종점장소 목적어들만 동량구 앞에 위치할 수 있는 현상, 즉 'V+Q+N' 구문은 거의 모든 의미역을 허용하지만 'V+Q+N' 구문은 크게 제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이 원인을 중점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3.4 타동성 등급과 의미역의 어순 출현 분포

일부 의미역이 동량구 앞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다른 의미역과 비교할 때 분명히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이런 차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소가 타동성 등급이라고 가정한다.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는 목적어 의미역의 분포 잠재력을 허용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3.4.2 에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3.4.1 타동성과 매개변수의 설정

전통적으로 타동성은 일종의 동사적 문법 특성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를 수반해야 한다.

(62) John cut the tree. (Rivas 2004)
존은 나무를 잘랐다.

사실 Lakoff(1977), Hopper & Thompson(1980), Rivas(2004) 등에 따르면 '타동

성'(transitivity)은 '동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절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타동성은 사건을 시작하는 A(agent)가 P(patient)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P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ivas 2004). 전형적인 타동 사건은 일반적으로 비대칭적 관계, 즉 한 참여자가 사건을 유발하는 반면 다른 참여자는 그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Kittilä 2002).

Hopper & Thompson(1980)은 타동성은 하나의 원형 범주이며 타동에 정도성과 등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하나의 타동성 구조가 많은 매개변수를 가질수록 타동성 등급이 더 높고 원형성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Hopper & Thompson(1980)이 제시한 타동성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3-13〉 타동성 매개변수 Hopper & Thompson(1980)

1	참여자	참여자는 한 명 이상 (동작주와 피동작주[32])
2	동작성 술어	동작>상태
3	순간성	순간 행위 > 비 순간 행위
4	동작주의 자주성	자주성 >비 자주성
5	극성	긍정 > 부정
6	서법	현실적 > 비현실적
7	동작주의 통제가능성	통제성이 있는 동작주> 통제성이 없는 동작주
8	피동작주가 받는 영향	완전 영향을 받음 >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음> 영향을 받지 않음
9	피동작주의 개별화	지시적 > 비지시적 고유명사> 보통명사 셀 수 있음 > 집합 인간, 유정 > 무정 단수 > 복수 구체적 > 추상적

'>'는 앞의 항목 타동성이 뒤 항목 타동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원문은 agent와 patient를 사용했지만, 이 두 개 용어는 타동사건의 두 참가자를 의미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역인 행위자 및 피행위자과 동일하지 않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타동사건의 두 참가자를 지칭할 때 동작주와 피동작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한 문장의 타동성 등급은 위 표의 특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특징을 가진 절이 타동성이 더 높고 원형범주의 중심에도 더 가깝다.

(63) Jerry likes beer.	(64) Jerry knocked Sam down.
제리는 맥주를 좋아한다.	제리는 샘을 때려눕혔다.
상태	행위
비 순간적	순간적
영향을 안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무정(낮은 개별화)	유정(높은 개별화)
비 지시적 (낮은 개별화)	고유명사(높은 개별화)

Hopper & Thompson(1980)에 따르면 주어가 같을 경우 (63)이 (64)에 비해 가진 매개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타동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목적어의 의미역과 타동성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의미역에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매개변수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Hopper & Thompson(1980)에서 제시한 일련의 타동성 매개변수를 검증하여 중국어의 목적어를 분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고, 중국어 목적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0 개의 매개변수를 정리했다. (A=동작주 / P=피동작주)

① P 는 동사의 핵심 논항이다(P is the obligatory argument)
② 두 개의 참여자(two participants)
③ 동작이 순간성을 표현하는지 여부(punctual)
④ P 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P is affected)
⑤ P 는 지시적 명사이다(P is referential)
⑥ P 는 고유명사의 형식이 있다(P has a form of proper noun)
⑦ P 는 가산명사이다(P is countable)
⑧ P 는 유정성을 띤다(P is human/animate)

⑨ P는 단수이다(P is singular)
⑩ P는 구체적이다(P is concrete)

3.4.2 각 목적어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사건외’ 동량사와 ‘사건내’ 동량사는 의미역들의 타동성 등급 설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사건내’ 동량사의 대표격인 ‘下’가 목적어 의미역들의 타동성 등급을 다르게 결정짓기 때문인데, 이 절과 다음 절에서는 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3.4.2.1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먼저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열했다.

〈표3-14〉‘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유정 피행 위자	유정 대상	종점 장소	무정 피행 위자	무정 대상	비 종점 장소	결과	행위자	재료	도구	목적	방식
	打同学	骂编辑	去机场	切萝卜	喷床单	睡地板	盖房子	来客人	刷油漆	抽烟斗	跑贷款	存定期
①필수논항	+	+	+	+	+		+	+				
②2개의 참여자	+	+	+	+	+	+	+		+	+	+	+
③순간성			+					±				
④영향을 받음	+	±		+	±				+			
⑤지시적	±	±	±	±	±	±	[+]					
⑥고유명사 있음	+	+	+	±	±	+	[+]					
⑦가산명사	+	+	+	±	±	±	±	±		±	±	
⑧유정성	+	+					±	±			±	±
⑨단수	±	±	+	±	±	±	±	±		±	±	
⑩구체적	+	+	+	±	±	+	±	±	+	+	±	
총계	8	7.5	7.5	5.5	5	4.5	4	3.5	3	3	3	1.5

이 표에서 부호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준이 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로 표시하였으며, 점수는 1 이다. 반면 매개변수가 없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였으며 점수는 0 이다. 한편 매개변수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면 '±'로 표기하였으며 점수는 0.5 로 설정하였다. 또한, '[+]'의 의미는 일반 동목구조에서는 이 매개변수를 가질 수 있지만, 동목구조가 동량사와 결합할 때는 이 매개변수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10 개의 매개변수에 관한 근거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① P 는 동사의 핵심 논항이다'를 살펴보자. 孙天琦(2019)에 따르면 핵심 논항의 성질은 문장의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며, 서술어의 어휘적 특징에 포함되어 있다. 핵심 논항은 필수적이며 문장 성립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이다.

(65) a. 小李打同学 —— ?小李打
샤오리가 학우를 때리다.
b. 小李去机场 —— ?小李去
샤오리가 공항에 간다.

그래서 핵심 논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65)처럼 문장이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정확한 뜻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切萝卜'(무정 피행위자), '骂编辑'(유정 대상), '盖房子'(결과), '来客人'(행위자), '去机场'(장소)[33] 등과 같은 동목구조의 목적어는 모두 핵심 논항이다. 비핵심 논항은 동사와 논항 선택 관계가 없는 주변 의미 성분을 말한다. 그들은 독립적이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첨가 성분이다. 비핵심 논항의 출현 여부는 문장의 합법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도입에 의존한다. 아래 괄호 안의 부분은 비핵심 논항에 해당한다.

(66) [昨天]老王[在商场][用信用卡][给老婆]买了一个礼物。 (孙天琦 2019)
어제 라오왕은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아내에게 선물을 사 주었다.

33)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소가 비핵심 역할을 하지만 '去机场'라는 구조에서 동사 '去'로 표현되는 사건에는 경로의 종점이 필수 구성 요소이다. 이 구성 요소가 없으면 사건이 불완전하므로 종점을 나타내는 장소도 필수논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비핵심 논항도 핵심적인 문법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67) a. 用油漆刷
페인트를 칠하다.
b. 用风扇吹
선풍기로 바람을 쐬다.
a. 以楷体的方式写
해서체로 글자를 쓰다.
b. 为了护照办(理)
여권을 신청하다.

'刷油漆'(재료), '吹风扇'(도구), '写楷体'(방식), '办护照'(목적) 등과 같은 동목구조의 명사들은 원래 비핵심 논항에 속하지만 모두 목적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전치사를 이용해 그들의 원래 역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핵심 논항은 핵심 논항보다 비전형적인 목적어라고도 부른다. 张云秋(2004), 江雨馨・岳岩(2018), 孙天琦(2019)에 따르면 중국어의 비전형적인 목적어는 목적어 범주의 가장자리에 속하며 전형적인 목적어에 비해 통사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위 논의에 따르면 핵심 논항의 타동성은 비핵심 논항보다 높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②-⑩는 모두 Hopper & Thompson(1980)이 제시했던 매개변수인데, 우선②③④를 보자.

'②두 개의 참여자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을 거시적으로 관찰할 때 사용하는 매개변수이다. Langacker(1990)는 전형적인 타동구조를 당구공 모형이라고 불렀다. 즉 힘이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전달되고 그 행위가 다른 대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타동구조는 두 가지 주체를 포함한다.

(68) a. 小李打碎了花瓶。
샤오리는 화병을 깼다.

b. 来客人了。
손님이 왔다.

(68a)에서 꽃병은 행위자로부터 힘을 받고 변화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타동구조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68b)처럼 문장 안에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68b)는 사건 참여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8b)의 타동성은 (68a)보다 현저히 낮다.

본고에 제시된 모든 의미역 중 행위자 목적어만 하나의 참가자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최소 두 개의 참가자를 포함한다.

'③동작이 순간성(punctual)을 표현하는지 여부'는 주로 상(aspect)에 관련한 것이다. Hopper & Thompson(1980)은 지속성이 있는 행위보다 순간적인 행위가 더 많은 전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69) a. John hunted the fox.
존은 여우를 사냥했다.
b. John chased after the fox.
존은 여우를 쫓았다. (Rivas 2004)

위 예문을 보면, John 이 여우를 잡는 행위는 종결성이 있는 순간적인 행위임에 반해, John 이 여우를 쫓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69a)의 타동성 등급은 (69b)보다 높다.

다른 성분을 부가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동목의미를 보면 모든 의미역 중에 순간적인 특징이 있는 의미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去机场'과 같은 종점을 나타내는 장소목적어인데, 시간적인 종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성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행위자 목적어이다. 행위자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来客人了'나 '出太阳了'와 같이 존현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순간적인 특징을 갖춘다.

'④ P 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여러 의미역의 성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Hopper & Thompson(1980)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피동작주

의 타동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 피동작주보다 훨씬 높다. '영향을 받다'는 의미는 동작주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체가 상태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70) a. John shot the fox.
존은 여우를 쐈다.
b. John built a house.
존은 집을 지었다. (Rivas 2004)

이 주장에 따라 먼저 피행위자 의미역과 결과 의미역의 타동성을 구분할 수 있다. Hopper & Thompson(1980)에 따르면 (70a)는 John 의 사격행위로 인해 여우가 다치거나 죽었기 때문에 피행위자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70b)의 결과(effected) 실체는 행위자로 인해 생성되며, 이러한 실체는 먼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서, '盖房子'와 같은 결과 목적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 매개변수④는 피행위자와 대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打同学'와 '切萝卜' 같은 피행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향을 받고, 물리적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骂编辑'와 같은 대상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은 이 항목에서 '±'로 표시했다.

모든 비전형적인 목적어 중 '刷油漆'와 같은 재료 목적어는 비교적 특수하다. 재료 목적어는 동작이 진행됨에 따라 객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상태변화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피행위자, 대상, 재료 목적어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어는 상태변화가 없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⑩는 모두 Hopper & Thompson(1980)이 제시한 '피동작주의 개별화(individuation)'에 포함된다. Hopper & Thompson(1980)은 여러 매개변수를 제시

했는데, 일부는 동작주를 기반으로 하고 일부는 서법 또는 극성(polarity)과 같은 전체 문장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개별화는 피동작주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본고는 동목구조를 고찰하기 때문에 주로 피동작주에 관련한 매개변수를 중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imberlake(1977)이나 Rivas(2004)에 따르면 명사성 성분의 개별화 기준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왼쪽 열에 있는 항목들은 개별화가 되는 반면 오른쪽 열에 대응하는 항목들은 개별화가 될 수 없다. 즉 왼쪽 열에 있는 항목들의 개별화 정도는 오른쪽 열에 대응하는 항목들보다 현저히 높다.

〈표3-15〉 개별화의 세분화 지표

지시적	비지시적
고유명사	보통명사
셀 수 있음	집합
인간, 유정	무정
단수	복수
구체적	추상적

본고는 위와 같은 6가지 지표를 응용해서 ⑤—⑩을 제시했다. 본고가 설계한 의미역의 통사적 형태는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통사적 형태를 근거로 각 의미역의 개별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각 의미역이 6가지 지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⑤P는 지시적 명사이다'를 살펴보자. 위에서 본고는 중국어에서 도구, 재료, 목적 및 방법 목적어 등이 모두 비전형적인 목적어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연구(张伯江 1997, 陶红印 2000, 杨永忠 2007)는 비전형적인 목적어가 총칭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구 목적어인 '吃大碗'과 방식 목적어인 '踢中锋'은 모두 추상적인 분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大碗'은 '小碗'과 대조적이며, '中锋'은 '前锋' 혹은 '后卫' 등과 대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구, 재료, 목적 및 방법 목적어는 지시적 명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张伯江(2002)과 潘文(2003)에 따르면 행위자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

‘来客人了’이나 ‘下大雪了’처럼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지시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위의 5 종류 의미역을 제외한 피행위자, 대상, 장소 목적어는 모두 지시적 명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량구와 결합한 결과 목적어의 지시성은 다소 특별하기에 본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⑥P 는 고유명사의 형식이 있다’에서 말하는 고유명사는 ‘马云’이나 ‘上海’와 같이 하나의 실체를 지칭하는 명사를 가리킨다.[34] 반면에 보통명사는 ‘人’이나 ‘大陆’와 같은 실체의 종류를 지칭하는 명사이다. 고유명사는 특정 집단에서 약속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장소이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유정명사는 고유명사 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명과 건물명도 장소명사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고에서 고찰하는 의미역 중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장소만이 확실히 고유명사 형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고유명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사물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인식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salience)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자원을 주변 환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물에 두게 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무정 피행위자와 무정 대상은 고유명사 형식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切萝卜’나 ‘洗衬衣’와 같은 무정 피행위자와 ‘喷床单’이나 ‘射靶子’와 같은 무정 대상은 모두 고유명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특수 상황이나 문맥이 있으면 ‘(愚公)移太行山’, ‘发射天宫一号’처럼 무정 피행위자가 고유명사 형식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어떤 특정한 동사와 결합할 때 무정 대상도 ‘拍东方明珠’, ‘画冠岳山’과 같이 고유명사 형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과 장소는 어떤 상황인지를 막론하고 아무 동사와 결합해도 고유명사 형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무정 피행위자와 무정 대상은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34) 그러나 ‘马云’이라는 사람이 현실에서 한 명 이상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사물은 현실세계에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 장소보다 고유명사 형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러진다. 따라서 이 매개변수에서 무정 피행위자와 무정 대상의 점수는 완전한 '[+]'로 표기할 수 없고 '[±]'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지시성을 보면 고유명사는 한정성을 나타낸다. 도구, 재료, 방법, 목적 및 행위자 목적어는 지시성조차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한정성[35]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고유명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기준에 관련된 결과 목적어도 본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제 '⑦P 는 가산명사이다'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어는 형태와 문법적으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별하지 않지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는 사람들이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감지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의미적으로 구별가능하다. 따라서 '⑦P 는 가산명사이다'는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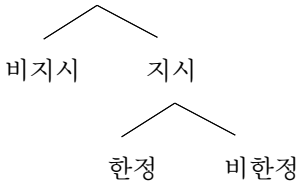
Wierzbicka(1988)와 Middleton et al. (2004)는 coal(석탄), hair(머리카락)과 같은 불가산명사인 실체보다 nuts(견과), olives(올리브)와 같은 가산명사인 실체를 지각적으로 구분하기 쉬움을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불가산명사를 전체적으로 감지하는 반면, 가산명사의 경우 동일한 사물의 각 개체가 서로 독립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 피행위자와 유정 대상은 모두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산명사이고, '机场', '图书馆'과 같은 장소명사 역시 셀 수 있으니 당연히 가산명사이다.

하지만 방식 목적어는 특정 실체가 아닌 개념을 나타내므로 가산명사일 수 없다. '刷油漆'나 '涂水泥'와 같은 재료 목적어의 경우 페인트나 시멘트와 같은 사물의 내부 개체는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료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불가산명사이다.

위에서 논의한 의미역들을 제외한 남은 의미역들은 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

35) 邓思颖(2010)의 연구에 따라 지시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고 불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다. 아래 표를 통해 관련된 예를 살펴보자.

〈표3-16〉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 예시

의미역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무정 피행위자	切萝卜	喝白开水
무정 대상	投报社	回忆童年
결과	盖房子	酿红酒
행위자	来客人	下大雪
도구	抽烟斗	洗冷水
목적	办护照	跑贷款

'⑧P는 유정성을 띤다'를 제시하는 이유는 유형론의 시각으로 보면 범언어적으로 유정명사가 인지적으로 더 두드러지고(prominent) 통사와 의미적 자유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Comrie(1978)와 Dixon(1979)은 '유정성>무정성'으로 보았고 이런 위계로 많은 언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pper & Thompson(1980)도 유정성과 무정성의 구분은 타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71) a. John bumped into Mary.
존은 메리와 우연히 마주쳤다.
b. John bumped into a wall.
존은 벽에 부딪혔다. (Rivas 2004)

(71a)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대상은 'John' 또는 'Mary'일 수 있지만, (71b)에서 진술의 중심은 'John'에 있다. 이에 대해 Hopper & Thompson(1980)은 피동작주로서 유정명사인 'Mary'는 무정명사인 'a wall'보다 개별화 정도가 더 높기에, 타동성 등급은 (71b)보다 (71a)가 더 높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피행위자와 대상을 모두 유정성과 무정성으로 나누어 유정성과 무정성이 초래하는 결과들을 대조하여 구분하였다. 재료와 도구 목적어는 모두 무정성이고, 나머지 의미역은 아래 표와 같이 유정성이나 무정성이 모두 가능하다.

〈표3-17〉 의미역에서 본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의미역	유정명사	무정명사
결과	生孩子	盖房子
행위자	来客人	下大雪
목적	等朋友	办护照
방식	唱青衣	存定期

‘⑨P 는 단수이다’라는 기준은 가산명사의 체계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불가산인 방식과 재료 목적어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논의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장소 목적어는 종점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나눠 논의할 필요가 있다. ‘走小路’와 같은 비 종점 장소 목적어는 단수나 복수가 모두 될 수 있지만 ‘去机场’과 같은 종점 장소 목적어의 경우에는 종점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므로 단수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진 의미역들은 단수나 복수가 모두 가능하다.

‘⑩P 는 구체적이다’는 주로 ‘人, 图书馆, 桌子’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과 ‘知识, 问题, 信息’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장소, 재료, 도구 등 의미역은 모두 구체적이지만, 방식 의미역은 오롯이 추상적이다. 나머진 의미역들은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3-18〉 구체적과 추상적 목적어의 예시

의미역	구체적	추상적
무정 피행위자	切萝卜	发送信息
무정 대상	喷床单	回忆童年
결과	盖房子	定公约
행위자	来客人	来消息
목적	办护照	跑贷款

마지막으로 결과 목적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72) a. *妈妈生了一次老大。
b. *李春建了一次赵州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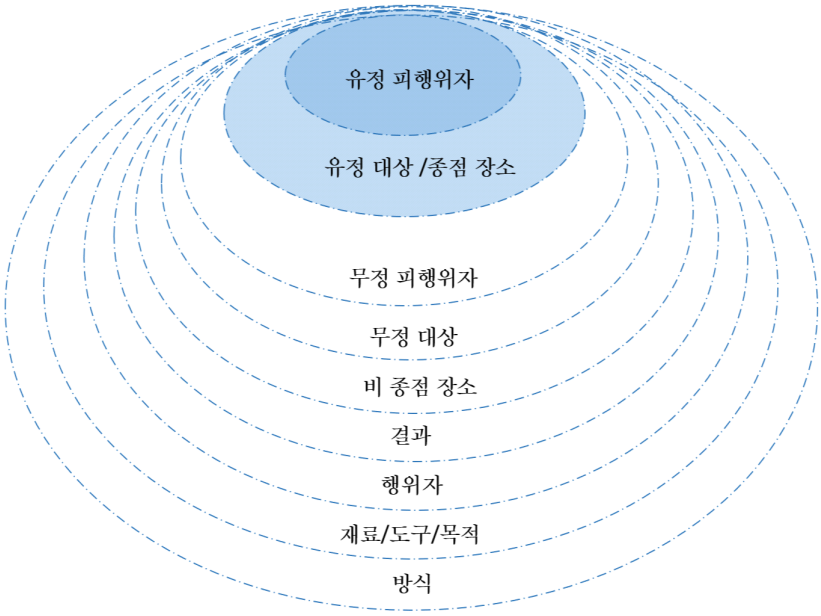
일반적인 결과 목적어는 원래 '⑤P는 지시적 명사이다'와 '⑥P는 고유명사의 형식이 있다'의 두 가지 매개변수를 갖는다. 그러나 1.3.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량사는 사건이 현실 또는 가능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량구와 결합할 경우 결과 목적어는 (72a)처럼 개별화될 수 없으며 지시성을 가질 수 없고 (72b)처럼 고유명사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매개변수가 제시한 특징들을 상실하게 된다([+]로 표시). 이러한 결과로 인해 동량구와 결합하는 결과 목적어의 타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표 3-14>가 표시하는 각각 의미역의 타동성 점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타동성 등급을 도출할 수 있다.

타동성 등급 A: 피행위자>유정 대상, 종점장소>무정 피행위자>무정 대상>비 종점 장소>결과>행위자>재료, 도구, 목적>방식

이처럼 각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은 차등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동성의 등급은 원형범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표 3-14>의 점수에 따라 동량구와 결합한 목적어 의미역의 원형범주를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3-2〉 원형범주로 표현된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한 목적어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양상

<그림 3-2>에서 색깔이 있는 부분, 즉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장소의 세 가지 의미역은 상대적으로 타동성 범주의 중심 영역에 위치하며, 무정 피행위자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의미역의 타동성 수준은 크게 낮아진다.

<표 3-14>를 다시 살펴보면,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장소 의미역만이 동량구의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3-2>를 보면 이 세 가지 의미역이 바로 타동성 범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동성은 의미역의 분포 잠재력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V+N+Q' 구문에서는 의미역의 타동성이 충분히 높아야 N 이 V 와 Q 사이의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4.2.2 '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표 3-14>를 보면 '사건외' 동량사와 달리 '사건내' 동량사인 '下'와 결합한

무정 피행위자는 동량구의 앞에도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타동성 등급 A 와 <그림 3-2>의 가설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下'를 좀 더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③, ⑤, ⑩에서 제시한 3 개의 매개변수에 관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3-19〉'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하는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유정 피행위자	무정 피행위자	재료	도구
	打同学	切萝卜	刷油漆	抽烟斗
①필수논항	+	+		
②2개의 참여자	+	+	+	+
③순간성	+	+	+	+
④영향을 받다	+	+	+	
⑤지시적	+	+		
⑥고유명사 있음	+			
⑦가산명사	+	±		±
⑧유정성	+			
⑨단수	±	±		±
⑩구체적	+	+	+	+
총계	9.5	7	4	4

첫째, '③순간성' 매개변수에서 모든 의미역은 '[+]'로 표시해야 한다. '下'와 결합한 동사는 순간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⑤지시적' 항목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무정 피행위자 목적어는 '洗衣服, 吃大餐'처럼 비지시적 명사일 수도 있지만, '下'와 결합한 동목구조에서 목적어 명사의 종류는 반드시 지시적 명사여야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73) a. 拍了一下大腿。/拍了大腿一下。
허벅지를 한 번 내리쳤다.
b. 踢了一下罐子。/踢了罐子一下。
항아리를 한 번 발로 찼다.

BCC 코퍼스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수사+下'와 결합하는 무정 피행위자 목적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73a)의 '大腿'와 같은 신체 부위이고, 다른 비슷한 예로는 '拍胸膛, 捏鼻子, 擦头发, 敲太阳穴, 挖鼻孔' 등이 있다. 또 다른 종류는 (73b)의 '罐子'와 같은 명확한 윤곽을 가진 구체적인 명사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拍椅背, 碰桌子, 扎牛排'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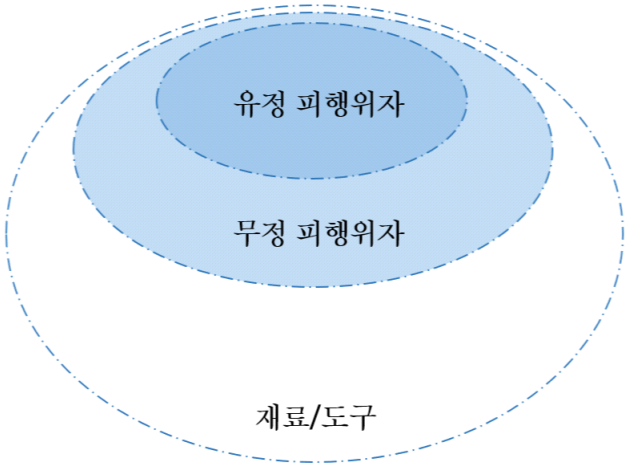
이런 예문에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일반적으로 문맥에 관련된 누군가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고, 명확한 윤곽을 가진 구체적인 명사는 문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실체이다. 따라서 '수사+下'와 결합하는 무정 피행위자 목적어는 반드시 지시적 명사이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 코퍼스 용례를 살펴보면 '수사+下'와 결합하는 유정 피행위자 목적어도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모두 지시적명사이다. 그러나 재료와 도구 의미역은 매개변수에서의 변화가 없다.

셋째, 구체성 매개변수를 살펴보자. '사건외' 동량구와 결합하는 무정 피행위자 목적어는 '学习知识' 혹은 '解决问题'와 같은 추상적인 명사일 수도 있지만, '下'와 결합하는 무정 피행위자 목적어는 모두 구체적인 모양이 있는 실체이다. 따라서 이 항목도 '+'로 조정해야 한다. 재료와 도구 의미역은 매개변수에서의 변화가 없다.

종합해 보면 '下'와 결합하는 무정 피행위자의 타동성 총점은 5 에서부터 7 까지 올라가면서, 재료와 도구 의미역과의 거리는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정 피행위자의 타동성도 크게 향상된다. 본고는 '下'와 관련한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을 B 와 같이 조정한다. 이를 원형범주로 표현하면 <그림 3-3>과 같다.

타동성 등급 B: 유정 피행위자＞무정 피행위자＞재료, 도구



〈그림3-3〉 원형범주로 표현된 '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한 목적어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 양상

<그림 3-3>에서 색깔이 있는 부분, 즉 유정 피행위자와 무정 피행위자는 모두 상대적으로 타동성 범주의 중심 영역에 위치하며, 다른 의미역은 범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리고 <표 3-14>를 다시 살펴보면 유정 피행위자와 무정 피행위자는 모두 '수사+下'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의미역이다. 이러한 논증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의미역의 타동성이 충분히 높아야만 동량구 앞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4.3 논의

위와 같은 상세한 논증을 통해 본고는 타동성 등급이 의미역에 따른 어순 출현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했다.

한 의미역이 갖추는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타동성 등급도 높아진다. 또한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이 일정 정도가 되어야만, 의미역이 동량구 앞에 출현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의 도상성(iconicity) 원칙에 따르면, 언어 기호의 배열 순서는 실제 개념 세계를 반영한다. 또한 형식과 의미 간의 일대일 대응 관계는 통사 범주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Haiman(1980)에 따르면 표현 간의 거리는 그들이 표현하는 아이디어 간의 개념적 거리에 상응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의미역이 'V+Q+N'에서 출현할 수 있으나, 타동성 등급이 높은 특정 의미역만이 'V+N+Q'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타동성 등급이 높을수록 동사와 목적어 간의 의미 관계가 더 긴밀하다. 그리고 의미의 긴밀성은 거리상의 근접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동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의미역이 해당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림 3-2>와 <그림 3-3>에서 색깔이 가미된 부분에 있는 의미역의 동사와 목적어 간 의미 관계가 다른 공백에 있는 의미역보다 더 긴밀하기에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5 장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종점장소 의미역이 높은 타동성을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점 장소 목적어만 동량구 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통시적 언어 변천의 맥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박향란(2016)의 양한 시기 이후 'V+N+Q'와 'V+Q+N' 두 어순의 발전 맥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양한 시기에서 당송 시기까지는 동량구가 일관성 있게 명사성 목적어 성분 뒤에 나타났다. 즉 'V+N+Q' 어순을 이루고 있고,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무정 사물이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唐钰明 1990, 张赪 2010, 李建平 2003)와 역사 언어 자료(北京大学 CCL 语料库古代汉语部分)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구문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74) a. 令热入至于病所寒, 复炙巾以熨之三十遍。 (『灵枢经/寿夭刚柔』)
병을 일으킨 한기에까지 열기가 도달하게 한 후, 뜨거운 수건으로 아픈 부위를 삼십 번 찜질한다.
b. 谨追辞叩头五百下, 两手自搏。 (『三国志/王楼贺韦华传』)
쫓아가서 머리 조아려 오백 번 절하고, 두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다.
c. 有人云：“草草看过易传一遍, 后当详读。” (『朱子语类/易三』)
어떤 사람이 ‘주역은 대충 한 번 훑어본 후에 다시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75) a. 愤气不消, 赶到我二十遭。 (『元刊杂剧三十种/萧何月夜追韩信』)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나를 이십 차례나 내쫓았다.
b. 那蛇看了洪太尉一回, 望山下一溜。 (『水浒传』)
그 뱀은 홍태위를 한 번 보고 산 아래를 향해 도망갔다.

(74)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한 시기에서 당송 시기까지 ‘V+N+Q’의 N 자리에 유정명사와 장소명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원대에 이르러서야 코퍼스에서 (75a)와 같이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유정명사가 동량구 앞에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75b)와 같이 명대의 언어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원대 말기와 명대 초기의 문학 작품을 보면, 장소명사가 ‘V+N+Q’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다.

(76) a. 一连数日, 施恩来了<u>大牢里</u>三次。 (『水浒传』)
연속으로 며칠 동안 스언은 감옥에 세 번 왔다.
b. 何不央孙九亲往<u>吴江</u>一遭, 多与他些盘费。 (『今古奇观下』)
왜 쑨쥬를 우쟝에 한번 직접 가게 했으면서, 그에게 많은 여비를 주지 않았는가?
c. 我为这贼, <u>往长安</u>跑了一遭。 (『五代秘史』)
나는 이놈 때문에 창안에 한 번 갔었다.

(76a)와 (76b)처럼 특정한 장소인 목적어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으나 용례가 많지는 않았다. 장소 목적어와 동사가 함께 사용될 때 (76c)처럼 전치사와 함께 장소명사를 나타내는 경향이 더 강했다. 청대에 이르러서야 종점장소 목

적어가 동량구 앞에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대와 명대의 코퍼스에서 동량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장소명사는 주로 종점장소명사이며, 이런 현상은 'V+N+Q' 구문이 변화할 때 구성 요소 N에 환유(metonymy)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면, 먼저 사람 명사가 동량구 앞에 출현했고 그 이후에 종점장소명사가 나타났다. 인지언어학으로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Lakoff(1987)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나,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가 있는 공간으로 먼저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N은 '실체'로부터 '실체가 있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즉 '이동의 종점'으로 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언어 자료를 살펴보면, 환유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명대 소설『三宝太监西洋记』에서는 사람명사와 장소명사가 동량구 앞에 위치하는 용례가 모두 존재한다.

(77) a. 不免我自家去见元帅一遭。 (『三宝太监西洋记』)
피치 못하게 나는 직접 사령관을 한 번 만나러 가야 한다.
b. (明日)带你到各司狱里面去看一看, 也不枉了到我这里一遭。
(『三宝太监西洋记』)
내일 너를 데리고 각각의 감옥에 가 볼 테니, 여기에 한 번 온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77a)에서 '元帅'는 사람명사로 만나야 할 대상이며, (77b)에서 동사 '到' 뒤의 '대명사+这里'는 장소명사이다. 모두 동량구 앞에 위치한다. 같은 시기에 두 종류의 용례가 모두 존재하면 이는 환유 기제 발생의 전제가 된다. 역사적 변화 과정을 보면 (77a)와 같은 대상 명사가 먼저 동량구 앞에 나타나고, 종점장소명사는 그 후에 동량구 앞에 나타났다. 즉 (77b)의 '到我这里一遭'의 'V+종점장소+Q'형식은 (77a)의 '见元帅一遭'의 'V+사람명사+Q' 형식으로부터 구

문변화를 거쳐 등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변화는 '대상'에서 '대상이 있는 공간'으로 환유됨으로써 발생하며, 대상이 있는 공간적 위치가 바로 주체가 이동한 종점이다. 이는 (77a)의 '见元帅一遭'를 '到元帅那里一遭'로 변환시키고, (77b)의 '到我这里一遭'를 '见我一遭'로 변환해도 두 문장은 의미적으로 모두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유정 사람명사, 특히 유정 대상이 동량구 앞에 위치한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 종점 장소 명사가 'V+N+Q' 구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상인 사람명사에서 종점장소명사로 환유되는 것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명대와 청대 이후 'V+Q+N' 구문이 점차 우세해졌고, 장소명사 중 N은 어떤 종류의 장소명사라도 허용되지만 'V+N+Q'의 N은 여전히 종점장소명사만이 허용된다. 이처럼 우리는 통시적 언어 변화를 통해 장소명사 중 유독 종점장소명사만이 동량구 앞에 위치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3.6 소결

본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각 의미역의 위치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장소 의미역들은 '사건외' 동량구와 공기할 경우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역들은 동량구의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 한편 동량사가 '下'인 경우 피행위자 목적어가 유정이든 무정이든 상관없이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역들은 동량구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묘사에 국한되었지만, 본고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양상이 형성된 원인을 탐구하고 증명해내었다.

본장에서는 어떠한 의미역이 'V+N+Q' 어순에 적합한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타동성 등급임을 제시하였다. 즉 의미역이 동량구와 결합할 때, 일정 정도 타동성이 존재한다면 해당 의미역은 동량구 앞에 출현할 수 있었다. 또한

통시적 언어 변화를 통해 장소명사 중 유독 종점장소명사만이 동량구 앞에 위치하게 된 배경도 밝혀냈다.

제4장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이 어순 선택에 주는 영향

4.1 정보구조 접근법

제 3 장에서 의미 차원에서 특정한 의미역이 동량구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는 기제에 대해 밝히긴 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동량구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종점 장소명사를 예로 들어 보자.

(1) a. 这个孩子几乎每天都要去一次公安局。 (余华『在细雨中呼喊』)
이 아이는 거의 매일 경찰서에 한 번씩 가야만 한다.
b. 关键是我去了法院两次了, 都没有成功。 (话说天下事 2011-9-21)
관건은 내가 법원에 두 번이나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에서 '法院'과 '公安局'는 모두 종점장소명사인데 구체적인 문맥(context)에서 '法院'은 동량구의 앞에 출현하지만 '公安局'는 동량구의 뒤에 출현한다. 문장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맥 관계를 주요하게 다루는 화용론적 시각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화용 층위의 문장 분석이란 문장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보라고 간주했을 때, 이러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LaPolla(2009)에 따르면 중국어와 같은 화용 주도적인(pragmatic driven) 언어에서 어순 변이(word order variation)는 서로 다른 정보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실제 담화 상황에 따라 정보의 분포 서열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Chafe 1974, Lambrecht 1994). 정보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단어와 구조의 선택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선택은 문장의 진리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화용적 구조를 바꾸는 것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통사구조 차원에서의 형식적 변이는 정보구조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찾을 수 있다.

본장에서는 정보구조 이론의 중요한 개념인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을 이용해 아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동일한 의미역이 두 가지 어순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다면 중국어 모어 화자가 하나의 어순을 채택하고 다른 어순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장에서는 중국어 코퍼스 자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CCL(北京大学语料库)의 당대 문학 코퍼스 자료 중에서 'V+Q+N'과 'V+N+Q' 구문을 포함한 예문 총 649 개를 추출하여 두 가지 어순의 정보구조 차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구조의 시각에서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변이 기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2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4.2.1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36]

정보구조 연구에서 '지시'(referentiality) 문제, 즉 화자가 지시 성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수신자는 화자가 말하는 어떤 명사의 지시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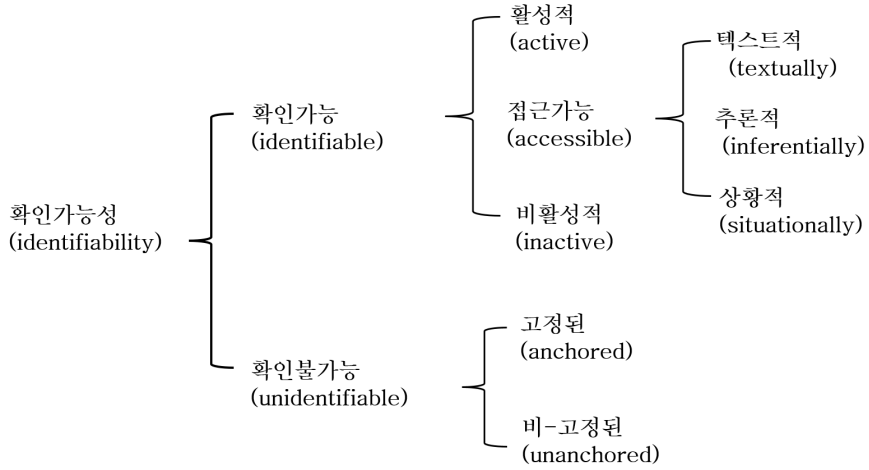
지시체(referent)는 담화에서 어떤 명사 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발화할 때 대화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시체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형성하며,

36)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에 관련한 한국어 용어들은 주로 Lambrecht(1994)의 한국어 번역본『정보구조와 문장 형식』(고석주 등, 2000)을 참조함.

이러한 인지 상태를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라고 한다.

화자는 발화할 때, 지시체가 수신자의 정신세계에 어떤 심적 표상을 이루고 있다고 추정한다. 수신자의 인식 속에서 실체의 심적 표상이 이루어져야 화자는 비로소 그 실체에 대해 묘사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억이나 의식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확인가능성(identifiablity)과 활성화(activation)를 도입해야 이러한 인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Lambrecht(1994)는 Chafe(1976)와 Prince(1981)의 연구를 바탕으로 담화 지시체의 인지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그림4-1〉 담화 지시체의 인지 상태 분류

각각의 개념 설명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예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확인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Chafe(1976)와 Lambrecht(1994)는 확인가능성 개념을 제시하여 실체를 지시하는 인지 속성을 구별했다. 만약 담화 중 화자가 수신자의 인식 속에서 어떠한 지시체가 이미 심적 표상이 이루어졌다고 여긴다면, 즉 수신자가 특정 집합에서 현재 화자가 지시하는 실체를 골라낼 수 있다면, 이것은 확인가능한(identifiable)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불가능한(unidentifiable) 것이다.

(2) Q: I'm going to a meeting tonight.
나는 오늘 밤 미팅에 갈 것이다.
A: How long is the meeting supposed to last?
이 회의는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 (Lambrecht 1994)

(2a)의 'a meeting'은 확인불가능한 것이고, (2b)의 'the meeting'은 확인가능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명사성 성분과 그 지시체의 인지 관계는 정태적이지 않고 담화의 전개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예문 (2)가 제시한 것처럼 어떤 명사가 처음 담화에 도입되었을 때 그 지시체는 확인불가능한 것이지만, 담화가 발전함에 따라 수신자의 인식 속에서 확인가능한 것이 된다.

확인가능한 지시체 역시 그 내부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된다. 활성화 상태(state of activation)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Chafe(1987)이다. 그는 사람의 두뇌에는 광대한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으나 어떤 한 시점에는 이러한 정보 중 아주 적은 분량만이 초점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대화 참여자 관심의 중심에 있는 정보를 활성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가능한 지시체의 심적 표상은 활성적(active), 접근가능(accessible), 비활성적(inactive), 이 세 가지 활성화 상태 중의 하나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성적 지시체는 특정 순간에 인간 의식의 초점에 존재한다. 이 활성적 지시체는 일정 기간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지시체가 등장하고 활성화될 때까지 대화 참여자의 의식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Chafe(1987)는 활성화된 지시체가 일반적으로 형태상 대명사나 영형식(zero coding)으로 표현되며 운율적으로 음성적 약화도 진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활성적
唐明德惊惶地往外跑, Ø 撞到了一个大汉的身上, 他看清了那个人的眉眼, Ø 认出了那个人就是村东头的李大奎。李大奎手里拿着一根棍子……
탕밍더는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고, 어떤 남자와 부딪쳤다. 그는 그 사람의 용모를 똑똑히 보았고, 그 사람이 마을 동쪽에 사는 리다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리다퀘이는 손에 몽둥이 한 개를 들고서……

(周士宏 2020)

(3)의 대명사인 '他'와 영형식 조응은 모두 이 지시체가 활성화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들의 지시체인 '唐明德'는 담화 참여자 의식의 중심에 있다. 새로운 지시체인 '李大奎'가 등장하고 나서야 '唐明德'는 의식의 중심에서 물러나게 된다.

접근가능한 지시체는 인간의 주변적인 의식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배경지식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초점을 받지는 않는 개념이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접근가능한 지시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담화에서 초기의 활성 상태로부터 탈활성화된 경우 그 지시체는 텍스트적으로(textually) 접근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 지시체는 텍스트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가능한 것으로 변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

虎子来我们家以后的第三年，我又要了一只小猫。我们家人管这只猫叫咪咪，这只猫的脾气同虎子完全相反：胆小，怕人。 (季羡林『老猫』)

후쯔가 우리 집에 온 후 삼 년째 되는 해에 나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얻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이 새 고양이를 미미라고 불렀다. 이 고양이의 성격은 후즈와 완전히 달라서 겁이 많고 사람을 무서워했다.

(4)가 담겨 있던 글에서 원래는 '虎子'를 중심으로 진술해 오다가 '咪咪'가 등장하자 '虎子'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면서 활성 상태로부터 탈활성화 상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는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한 범주에 해당한다.

둘째, 담화 세계에서 활성적이거나 접근가능한 어떤 다른 요소로부터 추론을 통해 접근가능한 대상은 추론적으로(inferentially)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담화에서 활성적인 지시체는 어떤 '도식'(schema)을 촉발할 수 있다. 도식은 일련의 관련 개념을 포함하며, 만약 이

지시체가 활성 상태에 들어가면 그에 관련된 개념도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Chafe 1987:29). 예를 들어, 대화 참여자가 '자동차'를 언급하면 '클랙슨, 타이어, 엔진, 와이퍼' 등과 같은 개념들이 모두 접근가능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5) 추론적으로 접근가능
大为昨天买了辆旧车, 喇叭不响。 (陈平 2016)
다웨이는 어제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클랙슨이 울리지 않았다.

(5)의 '喇叭'는 인간의 인지 도식을 이용해 '旧车'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인간의 지식 배경에서 우리는 자동차에 반드시 클랙슨이 있고 클랙슨은 자동차의 연관 개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지시체는 담화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현장에 존재한다. 텍스트 외적 세계에서 두드러지는 존재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 그 지시체는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접근가능한 것이다.

(6) 상황적으로 접근가능
鲁豫：麻烦梁凯给我们讲一讲这个帽子的故事。 (鲁豫有约 2011/04/19)
루위: 량카이한테 우리에게 이 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6)의 '这个帽子'는 대화 현장에 존재하는 지시체이므로 상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되지 않는(unused) 지시체라고도 불리는 비활성적 지시체는 인간의 장기 기억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의식의 초점에 있지도 않고, 주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은 개념이다. 비활성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강세를 받고, 반드시 대명사가 아닌 완전한 어휘(full lexical)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hafe(1976:40)는 하나의 극단적인 비활성적 지시체의 예를 들었다. 'a letter'라는 명사는 어떤 소설의 13 페이지에 처음 사용되었고 그 지시체가 118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the note'로 다시 언급된다. 이것은 'a letter'의 지시체가 105

페이지 분량의 소설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식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118 페이지에서 다시 언급될 때 비활성적 상태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중국어 예시를 살펴보자.

(7) 비활성적
有一次他突然问了一句：“你多大了？” “十四岁了。” “十四岁了，哼。”
父亲咕哝一声，继续吸那个烟斗。 (张炜『你在高原』)
언젠가 그는 갑자기 ‘너 나이가 몇이니?’라고 물었다. ‘열네 살이요’. ‘열네 살이라, 흥’ 아버지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담뱃대를 빨았다.

(7)을 추출한 소설에서 처음 아버지를 언급할 때 ‘烟斗’를 한번 언급했는데, 그 이후 ‘烟斗’는 수신자의 의식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성분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다시 ‘烟斗’가 언급되었는데, 이때 수신자는 머릿속에서 여러 정보를 연상해야 하므로, 이 지시체는 비활성적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신자의 의식에 들어가는 확인가능한 지시체만이 활동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 반면 수신자에게 확인불가능하다고 가정되는 지시체는 반드시 활성화 매개변수의 영역 밖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해 Prince(1981)는 확인불가능한 지시체 범주 내에서도 고정된(anchored) 항목과 비-고정된(unanchored) 항목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는 하나의 실체가 다른 실체와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된 것은 ‘고정된’ 항목이고, 이런 연결 과정이 없으면 ‘비-고정된’ 항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어에서 비한정 명사구 ‘a guy’, ‘a friend’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 비-고정된 것이고, ‘a guy I work with(나랑 같이 일하는 녀석)’, ‘a friend of mine(내 친구 중 한 명)’과 같은 비한정구와 한정구의 결합은 고정된 것에 해당한다.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8) 비-고정된
a. 我最近买了一双鞋子，可是穿了一次就破了。 (周士宏 2020)
나는 최근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한 번 신고 나서 구멍이 났다.

b. 不管从哪里来, 人总是人。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이다.

(9) 고정된
学校的一个工人昨天出了车祸。 (周士宏 2020)
학교 노동자 한 명이 어제 차 사고를 당했다.

중국어에서 '비-고정된' 지시체는 (8)처럼 일반적으로 '一+양사+명사'형식이나 맨명사 형식으로 표현하고, 고정된 지시체는 (9)와 같이 수식구조나 관계절로 나타난다.

4.2.2 확인 가능성과 한정성

여기서는 확인가능성과 한정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확인가능성은 한정성(definiteness)[37]과 연관이 있지만 두 개념은 같은 차원의 개념은 아니다. 확인가능성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인지적 범주 또는 화용적 범주에 속하는 개념인 한편, 한정성은 문법 범주에 속한다. 한정성은 많은 언어에서 한정과 비한정의 관사, 또는 다른 한정사들 사이의 대조를 통해 규칙적으로 표현되는 개념이다(영어가 이에 해당한다).

한정이 되는 실체는 대부분 확인가능하지만, 확인가능성과 한정성 이 두 개념을 완전히 대응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아래 예문은 구어체 영어에서 대화의 첫 문장이다.

(10) I met this guy from Heidelberg on the train. (Prince 1981)
나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오는 기차 안에서 한 녀석을 만났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첫 문장이라 a guy 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에 화자가 this guy 를 사용한 이유는 화자가 진술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첨

37) Crystal(2008)은 한정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A term used in grammar and semantics to refer to a specific, identifiable entity (or class of entities)'.

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a guy를 사용하면 그러한 의도가 표현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한정표지를 사용하지만, 화용적으로 this guy는 아직 확인불가능한 지시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정성을 갖추는 명사성 성분이 확인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다음은 중국어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자. 중국어 학계에서도 형식에 따라 어떤 명사성 성분이 한정인지 비한정인지 구분하려고 한다(徐烈炯 1990, 陈平 1987). 예를 들어 '这本书'와 같은 '지시대명사+명사', '我的书'와 같은 '인칭대명사+명사', '马云'과 같은 고유명사는 한정된 것을 나타내고, '一本书'와 같은 '一+양사+명사'는 일반적으로 비한정 지시체를 나타낸다고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비한정된 것은 수신자가 문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비한정된 것이 반드시 확인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一+양사+명사' 구조를 예로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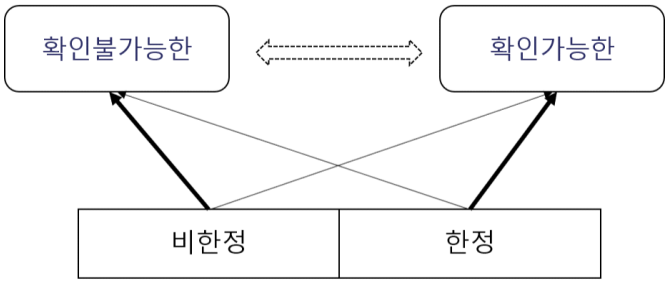
(11) a. *一个人来了。[38]
b. ？一个警察来了。
c. ？一个女警察来了。
d. 一个身材高挑的女警察来了。
키가 크고 마른 여자 경찰이 왔다.
e. 一个我们社区的身材高挑的女警察来了。
우리 동네의 키가 크고 마른 여자 경찰이 왔다.

(11)은 周士宏(2020)이 제시한 예문인데, 그에 따르면 한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11)의 모든 '一+양사+명사'는 비한정 표현이지만 확인가능성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11)은 사실 주제(topic)가 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이다. 위에서 아래로 명사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장의 수용성도 증가한다. 그리고 주제는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한 성분을 담당해야 한다(Lambrecht

38) 예(11)에 대한 설명은 周士宏(2020)를 참고했으나 마지막 예문은 조금 수정했다.

1994, 王灿龙 2003). 한 명사성 성분의 확인가능성이 높을수록 주제가 되는 수용도도 높아진다.[39] 따라서 예문 (11d)와 (11e)가 주제가 될 수 있기에 확인가능한 지시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사성 성분이 복잡해짐에 따라 집합에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성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수신자에게도 특정 집합에서 지시대상을 골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 논의에 근거하여 중국어에서도 확인가능성과 한정성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가능성과 한정성의 관계를 아래 <그림 4-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4-2〉 확인가능성과 한정성의 관계도 (周士宏2020)

<그림 4-2>를 보면 확인불가능한 지시체에서부터 확인가능한 지시체까지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한다. 반면 한정성은 이분법적 개념이다. 한정적인 표현이 무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확인가능한 지시체이고, 비한정적인 표현이 무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확인불가능한 지시체이다. 하지만 위의 영어와 중국어의 예를 보면 담화에서 한정적인 표현이 확인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비한정적인 표현이 확인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의 개념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9) 주제와 확인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문 4.3.3 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4.3 기존연구 검토

1.2 에서 언급했듯이 方梅(1993)는 정보구조적인 시각으로 본고가 연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되는 여러 기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方梅(1993)는 한정명사구인 N 이 'V+N+Q'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압도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N 이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동사 뒤에 와야만 한다. 위의 논술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만, 한정성 개념으로 본고가 다루고 있는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한정이 되는 목적어가 동량구 앞에 출현하는 예시가 더 많지만, 그것이 동량구 뒤에 출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方梅 1993). 이렇게 보면 N 의 한정성도 어순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1)번 예문을 다시 제시해보자.

(12) a. 这个孩子几乎每天都要去一次公安局。
b. 关键是我去了法院两次了，都没有成功。

(12a)의 '公安局'와 (12b)의 '法院'은 둘 다 맨명사 형식이며, 이 예문들이 속한 텍스트의 앞부분을 살펴본 결과 이 두 명사는 모두 조응식 한정명사이다. 한정성으로는 (12b)의 '法院'이 동량구 앞에 위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12a)의 '公安局'가 동량구의 뒤에 오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지시체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N 과 동량구가 함께 나타날 때 N 의 심적 표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소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현상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4.4.3 절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 한정성을 사용하지 않고 확인가능성을 채택한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2.2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정성은 이분법적 개념이다.

만약에 한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반드시 동량구 앞에 있고, 비한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반드시 동량구 뒤에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 개념이 이분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한정성 개념은 본고가 논의하는 어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반면 확인가능성은 정도의 구분이 있는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확인불가능한 것에서 확인가능한 것까지 중간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 그리고 확인가능한 지시체 내에서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인지문법에 따르면 인간의 객관적 사물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

많은 경우 한 성분이 특정 문법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가부(可否)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요인의 정도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Lambrecht(1994)가 제시했던 명사가 주제 자리에 위치하는 예문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범언어적 명사성 성분이 가리키는 지시체의 인지 상태 및 이 지시체가 주제가 될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주제 수용가능성 등급(Topic Acceptability Scale)'을 사용하여 각 단계에 있는 지시체가 주제로 될 수 있는 화용적 수용도를 제시했다.

활성적 접근가능 비활성적 고정된(확인불가능한) 비 고정된(확인불가능한)[40]	가장 수용 가능 ↓ 가장 덜 수용 가능

〈그림4-3〉 주제 수용가능성 등급(Lambrecht 1994)

40) Lambrecht 의 원저에서는 '최신의 (brand-new) 고정된'과 '최신의 (brand-new) 비고정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최신의 (brand-new)'는 앞에 언급한 '확인불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확인불가능한'을 사용한다.

이 그림은 지시체에 대한 인지 상태와 주제 수용성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즉 활성적인 것은 주제에 가장 적합하고, 아래로 갈수록 주제가 되는 수용성이 점차 떨어진다. 이는 활성화된 지시체가 주제로 사용될 때 대화 참여자가 정신적 노력(mental effort)을 가장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확인가능성 범주의 내부 연속체 상태는 어떤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전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을 제시한 분석은 우리의 인지 상태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Lambrecht(1994)의 주제 수용가능성 등급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고는 'V+Q+N' 구문과 'V+N+Q' 구문에서 N 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 구문의 지정된 위치에 진입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둘째, 方梅(1993)의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두 가지 용어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13) a. 马威听出来, 一个姓茅, 一个姓曹, …… 两个人越说越拧葱, 越说声音越高, 姓茅的恨不得马上打老曹一顿。 (方梅 1993)
마웨이는 한 사람은 마오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차오씨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두 사람은 말을 할수록 다툼이 생겼고 목소리도 높아져서 마오씨는 간절히 차오씨를 바로 한 대 때리고 싶어 했다.

b. 昨天傍晚你到哪儿去了? 我去了一次二虎家。 (方梅 1993)
엊저녁 너 어디 갔었지? 나는 얼후네 집에 갔었어.

c. 高洋走了……这期间, 只有我在昆明见了一次高洋。
가오양은 갔다 …… <중략> …… 그동안 나만 쿤밍에서 가오양을 한 번 봤다.

方梅(1993)는 N 이 한정명사구인 경우에 'V+N+Q' 어순에서 N 은 항상 (13a)의 '老曹'처럼 구정보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녀는 'V+Q+N' 어순 속 N 이 주로 (13b)와 같이 신정보를 표현하지만, 때로는 (13c)에서의 '高洋'와 같이 구정보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신정보와 구정보는 사실 모두 개별 낱말 즉 명사성 성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실 지난 세기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중국 학자들의 신정보와 구정보에 대한 인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4)의 대답에서 'the movies'를 신정보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4) Q: Where did you go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어디 갔어?
A: I went to the movies.
나는 극장에 갔다. (Lambrecht 1994)

사실 정보구조 차원에서는 의미와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의미는 개별 낱말이나 낱말들 사이에 설정된 관계를 통해 표현되지만, 정보는 명제들을 통해 엄격히 말해 관계적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Lambrecht, 1994). 이 때문에 신정보를 새로운 지시체와 동일시한다면, 다음 예문 중 답변의 정보구조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15) Q: 你什么时候上的大学?
너는 언제 대학에 갔니?
A: 十八岁。
18 살. (周士宏 2020)

대답인 '十八岁'는 당연히 신정보로 볼 수 없고 이것은 단지 인생의 한 시점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응답자가 진정으로 표현하려는 정보는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는 행위와 그 행위가 일어나는 사건 사이의 '관계', 즉 이 시간 성분과 다른 성분 사이에 맺어진 관계라는 신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명제로 표현한다면 '내가 대학에 간 나이는 18 살'이라는 것이 신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구정보는 발화 시에 수신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 화자가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이 문장에 의해 환기된 '지식'의 종합이다. 반면 신정보는 발화 시, 어떤 지식에 더해진 정보이다.

그렇다면 方梅(1993)가 말하는 신정보와 구정보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그녀가 설명하려고 하는 신정보와 구정보는 Lambrecht(1994)가 제시한 지시체의 심적 표상에 해당한다. 즉 화자는 발화의 어느 순간, 어떤 지시체가 수신자의 머릿속에서 심적 표상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추정한다. 예문(13a)의 '老曹'와 (13c)의 '高洋'은 구정보가 아닌 실제로 Lambrecht(1994)에서 언급된 확인가능한 지시체이며 모두 활성화 정도가 높은 지시체에 해당한다. 예문(13b)의 '二虎家'도 신정보가 아닌, 단지 발화시에 수신자의 의식에 존재하며 활성화 정도가 낮은 지시체일 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지시체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것인지 옛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다. 다만 발화의 어느 순간에 그 지시체가 우리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채택한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은 方梅(1993)가 언급한 한정성과 신/구정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용적 차원에서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4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어순에 미치는 영향

4.4.1 연구 방법

두 어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본고는 CCL(北京大学语料库)의 '当代文学' 코퍼스 자료[41] 중에서 'V+Q+N' 구문을 포함한 예문 총 264 개와

41) 중국의 '당대 소설(当代小说)'의 개념은 1949 년 이후 현재까지 탄생한 소설 작품을 말한다. CCL 에 수록된 당대 소설은 1949 년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의 대표 작품이다. 이 기간 중국어의 문법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작가들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작품의 질이 우수하고 사용한 언어가 비교적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당대 원생(原生)적인 언어의 전체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코퍼스는 본고의 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언어 자료라고 판단된다.

‘V+N+Q’ 구문을 포함한 예문 총 385 개를 추출했다.

〈표4-1〉 분석한 예문의 개수

유형	예문 개수
V+Q+N	264
V+N+Q	385

제 3 장에서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 장소 목적어 등 세 가지 의미역만 동량구의 앞과 뒤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결론에 근거해서 본장부터 제 6 장까지는 세 가지 의미역을 제외한 다른 의미역들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N 이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 장소 목적어 등을 나타내는 지시체만 추출해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의미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미 배제하고 단지 화용의 관점에서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이 두 가지 어순 선택에 주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명사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본 장에서는 N 을 통계할 때 대명사, 고유명사, 맨명사, ‘수자+양사+명사’ 등 다양한 명사 형식을 포함한다.

‘V+Q+N’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제 2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건명사가 동량구와 결합할 때는 동량사가 명량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V+[Q+N]’으로 분석해야 하고, Q 는 N 의 수식어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명사를 가지는 ‘V+Q+N’ 구조는 ‘V+N+Q’ 구조로 변환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기에 본 장에서는 사건명사를 포함한 예문은 모두 배제했다.

이어서 각 N 이 위치한 맥락을 분석한 후 모든 N 의 상태를 판단했다. 이 절에서는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시체의 활동상태를 크게 ‘활성적’, ‘접근가능’, ‘비활성적’, ‘확인불가능’ 의 4 가지로 나누었다. 이 4 가지 인지 상태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정도는 순차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나의 위계를 형성한다. 접근가능한 지시체 내부도 다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세 가지 상황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없기에 세분화하지 않고 모두 접근가

능한 것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했다.

4.4.2 판단 기준

Lambrecht(1994:94)는 담화지시체의 활성화 상태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소는 의식 혹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사이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예문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심적 표상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고가 사용한 예문들은 주로 서면어이므로 담화 요소를 고려해서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 담화의 내부에서 보면 확인불가능한 N은 일반적으로 담화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면, 확인가능한 N은 텍스트의 앞부분에서 이에 조응하는 선행어(antecedent)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확인가능한 것과 확인불가능한 것의 분류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확인가능한 지시체의 내부 역시 활성화 정도 차이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는 Lambrecht(1994) 등 선행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참조해서 이 기준을 정하였다.

먼저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작업 기억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며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심리언어학에서는 이 작업 기억 용량을 읽기나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Just & Carpenter 1980). 또한 작업 기억 용량(capacity)은 제한적이라서, 사람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작업 기억 용량의 범위 안에서만 현재 정보를 구정보와 쉽게 연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Chafe(1972)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저자가 어떤 대명사를 사용했을 때, 이 대명사가 조응하는 선행어는 이미 독자들의 작업 기억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독자들이 이 대명사에 조응하는 선행어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선행어를 환기하는 과정이 작업 기억 용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선행어가 일정한 시간 안에 조응되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작업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고 비활성적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결해

야 할 문제는 이 특정한 시간 구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Chafe(1972)의 주장에 근거해서 Daneman & Carpenter(1980)는 피시험자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대명사와 그 선행어들을 연관시키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시험자는 대명사와 선행어 사이의 거리가 5 개 문장을 넘지 않을 때 대명사에 조응하는 선행어를 기억에서 쉽게 활성화했다. 바꿔 말하면 조응어와 선행어의 간격이 작업 기억 용량을 초과하면 선행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비활성화된 상태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본고는 예문을 분석할 때 활성화 정도의 구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려 한다. N 과 선행어 사이의 거리가 5 개 문장 이내라면 N 은 활성적이고, 5 개 문장 이상이면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한 것이거나 비활성적으로 간주한다.[42)]

4.4.3 예시에 대한 설명

4.4.3.1 'V+Q+N' 중 N의 심적 표상 상태 예시

텍스트 차원에서 활성적인 지시체는 일반적으로 윗글 중 어떤 명사의 조응이다. 그러므로 N 이 있는 문장은 그 조응 대상이 있는 문장과 일반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

42) 언어에 따라 단기 작업 기억의 용량이 다르다(Maurits, Peggy, Marco & Kenneth 2008). 일반적으로 영어 모어 화자보다 중국어 모어 화자는 평균적으로 읽기 폭이 더 넓고, 읽기 속도도 더 빠르다(McBride-Chang 2004, Yeung, Ho, Chik, Loan, Chan & Chung 2011). 따라서 이론적으로 중국어 단기 기억의 길이는 영어보다 더 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어의 작업 기억 용량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연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본고는 이를 참조할 수 없다. 또한 본고에서는 N 과 선행어 사이의 거리가 각각 5 개, 6 개, 7 개, 8 개가 되는 문장들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내 보았으며, 각 심적표상 유형에 속하는 예문의 수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 최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보다 정확한 참고자료를 찾을 때까지 5 개의 문장을 통계적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다.

(16) 활성적

a. 我们听说县城有个著名的老中医叫蔡抱一，听说他的医术很高，药到病除。为此德儿专门去跑了一次县城。 (戴厚英『流泪的淮河』)
우리는 읍성에 차이바오이라는 유명한 늙은 한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의 의술이 매우 높아서 약을 잘 쓴다고 들었다. 그래서 더얼은 특별히 읍성에 한 번 다녀왔다.

b. 他发觉了这些，啐了一口，狠狠地蔑视了一番自己。
(曲波『林海雪原』)
그는 이것들을 느껴서 뱉어냈고, 자기를 호되게 한 번 멸시했다.

(16a)의 '县城'은 앞에 언급한 '县城'의 조응이다. 이 둘의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의 의식에서 활성적인 지시체로 볼 수 있다. (16b)에서 제시한 것처럼 활성적인 지시체는 선행어와 형태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自己'는 '他'의 조응 형식이고, 수신자가 '自己'의 선행어와 즉시 연관시킬 수 있으므로 담화에서 활성적이다.

(17) 접근가능

a. 老吴只好强忍住不往下讲了。下面请老袁再讲几句吧。老孙在后面捅了两下袁鹏的腰眼，袁鹏才迷迷怔怔站起来。 (张炜『柏慧』)
라오우는 참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라오위안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자. 라오쑨은 뒤에서 위엔펑의 허리를 두 번 찌르고 나서야 위안펑은 어리둥절해서 일어났다.

b. 她们跑到医院门诊部，那儿人多。她们在那儿钻来钻去，尹小跳还是有些不满足不甘心，她要唐非再领她去看一遍护士长。(铁凝『大浴女』)
그녀들은 병원 외래진찰실로 갔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들은 거기에서 이리저리 뚫고 들어갔는데 인샤우티아우는 여전히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녀는 탕페이에게 자기를 데리고 수간호사에게 한 번 가 보자고 요구했다.

'下'와 결합하는 많은 N은 (17a)의 '袁鹏的腰眼'과 같은 신체 부위이다. (17a)의 경우 앞 문장에서 이미 '老袁'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袁鹏的腰眼'은

‘老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袁鹏的腰眼’은 수신자에게 전혀 식별 불가능한 지시체가 아니다. 해당 예문은 추론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시체의 경우이다. (17b)의 경우 ‘医院门诊部’와 ‘护士长’은 모두 ‘병원’에 관련한 도식이며 인지의 틀(frame) 안에 있어, ‘护士长’도 추론적 접근이 가능한 지시체이다.

(18) 비활성적

a. 翌日清晨，公安局看门的老头打开大门时，他看到一个清秀的孩子站在那里忧伤地望着自己……(隔了十个段落以后)母亲被送走以后他一点都不知道，这个孩子几乎每天都要去一次公安局。

(余华『在细雨中呼喊』)

다음날 이른 아침 공안국 문을 지키는 영감이 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용모가 준수한 한 아이가 서서 슬픈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중략(10 개의 단락 다음)……> 어머니가 끌려간 후 그 아이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아이는 거의 매일 한 번씩 공안국에 찾아갔다.

b. 小郭！这个周六，我要去一趟淀山湖，不知道你有没有空，可能有些事情需要你的帮忙。 (六六『蜗居』)

샤우궈! 이번 주 토요일에 나는 디엔산후에 가야 하는데 네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떤 일은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18a)의 마지막 문장은 4.1 과 4.3 절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위 예문은 좀 더 자세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동량구 뒤의 ‘公安局’는 한정 명사구이지만 이전에 언급된 ‘公安局’와의 사이에 10 개의 단락을 두고 있기에 ‘公安局’가 수신자의 의식 속에 존재했더라도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公安局’는 비활성적 지시체로 볼 수 있다. (18b)는 다른 종류의 비활성적 지시체이다. ‘淀山湖’는 고유명사이고 대화 참여자의 지식 배경에 있는 지시체이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앞의 텍스트에서 ‘淀山湖’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뒤 텍스트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지시체는 ‘사용되지 않고(unused)’ 한 번 나타나고 나서는 사라지는 것이라서 비활성적 지시체에 속한다.

지정된 코퍼스에서 ‘V+Q+N’의 N 이 확인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예문은 쉽

게 찾을 수 있다.

(19) 확인불가능

a. 五年中我只上过一次医院, 并且那是家精神病院。 (卫慧『甜蜜蜜』)
오 년 동안 나는 병원에 한 번 가 봤고, 그것도 정신병원이었다.

b. 第二天的上午, 我去了一趟戏楼。戏台上有人爬高上低地还在装灯摆布景。 (贾平凹『秦腔』)
다음 날 오전에 나는 전통극 공연장에 한 번 갔다. 연극 무대 위에 어떤 사람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조명과 배경을 설치하고 있었다.

(19a)의 맨명사 '医院'은 뒤에 '那'로 조응될 수 있어서 비한정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전에 수신자에게 '医院'은 분명히 확인불가능한 지시체이다. (19b)에서 '戏楼'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처음 나타나는 실체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戏楼'를 식별할 수 없고, 뒤에 진술 내용을 읽고 나서야 '戏楼'가 어떤 '戏楼'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4.4.3.2 'V+N+Q' 중 N의 심적 표상 상태 예시

'V+N+Q' 에서 N 이 활성적 상태에 있는 예문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N 이 대명사와 완전한 어휘 형태를 이루는 예문 두 개를 함께 살펴보자.

(20) 활성적

a. 那人是赵敏之兄库库特穆尔, 汉名叫作王保保。张无忌曾在大都见过他两次。 (金庸『天龙八部』)
그 사람은 자오민의 오빠 쿠쿠터무얼로 중국식 이름은 왕바오바오이다. 장우지는 대두에서 그를 두 번 본 적이 있었다.

b. 别人也能想到, 就是'曼丽发廊'。韩胜利决定去'曼丽发廊'一趟, 以探虚实。 (刘震云『我叫刘跃进』)
다른 사람도 생각해 낼 수 있다. 그곳이 바로 만리 미용실이다. 한성리는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만리 미용실에 한 번 가기로 했다.

(20a)에서 N은 대명사 형식인 '他'이면서 앞 문장에서 언급한 '王保保'를 가리키는 것으로, 활성적 지시체임에 틀림없다. (20b)의 경우에서 '曼丽发廊'은 완전한 어휘 형태이면서 강세를 받을 수 없다.[43] 또한 '曼丽发廊'은 담화의 중심이자 대화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서 활성적인 지시체이다.

(21) 접근가능

a. 老Q上下打量我一番, 发现我还完整, 连忙向司机道歉, 举止不卑不亢恰到好处。司机一定是被她的气质慑服了,回到驾驶室用那五十多分贝的喇叭出气去了, 于是人们作鸟兽散。警察把我们带到交通岗亭, 训斥了老Q一番。 (徐星『无主题变奏』)

라오Q는 아래위로 나를 한 번 훑어보고 나서 내가 다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운전사에게 사죄했는데 그 행동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딱 적절했다. 운전사는 그녀의 기세에 굴복해서 운전석으로 돌아가 50데시벨의 경적으로 화를 풀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경철은 우리를 교통 초소로 데려가 라오Q를 한 번 혼냈다.

b. 今天你不找我谈话, 我也准备再到部里找部长一次, 把这事说清楚。 (刘震云『官人』)

오늘 당신이 나를 찾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다시 부서로 부장을 한 번 찾아가서 이 일을 분명히 말하려고 했다.

(21a)의 경우 이 글에서 원래는 '老Q'를 중심으로 진술해 오다가 '司机'와 '警察'가 등장하자 '老Q'는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면서 활성 상태로부터 탈활성화 상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老Q'는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다. (21)의 '部长'은 처음 언급되었지만 같은 문장에서 '部里'를 언급하였기에 '部里'에서 '部长'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추론적 접근가능한 지시체에 해당한다.

43) Lambrecht(1994)에 따르면 활성적인 완전 어휘 형식은 일반적으로 강세를 받지 않는다.

(22) 비활성적

a. 山东的姑娘大都能干、贤惠、孝顺……(隔了五个段落) 小草出嫁后，大青哥也曾去过山东一次，不过没领来人。 (宋学武『干草』)
산둥의 처녀들은 대개 유능하고 품성이 곱고 효성스럽다. …… <중략(다섯 단락 이후)> …… 샤오차오가 시집간 후 다칭형도 산동에 한 번 갔지만 사람을 데려오지는 않았다.

b. 总务处长回去马上将搞卫生的刀疤老头叫去，训了一通。……(隔了八个章节)……当然，上午训完，中午总务处长就又训了打扫卫生的刀疤老头一顿，下午厕所就又干净了。 (刘震云『官人』)
총무처장은 돌아가서 곧바로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청소하는 영감님을 불러서 한 번 혼냈다. ……<중략(여덟 개의 장절이 지나고 난 후)>…… 당연히 오전에 혼내고 나서, 점심에 총무처장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청소하는 영감님을 다시 한번 혼내자 오후에 화장실은 바로 깨끗해졌다.

(22a)에서 장소명사 '山东'은 앞글에서 수식어로만 등장했고 서술의 중심도 아니었으나 수신자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한다. 그렇지만 다섯 개의 단락을 사이에 두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비활성적 지시체로 볼 수 있다. (22b)의 출처는 한 단편소설인데,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영감님이 첫 장에 한 번 등장하고 나서 아홉 번째 장에서야 다시 언급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텍스트에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며 필요할 때만 한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비활성적인 지시체에 해당한다.

(23) 확인불가능

a. 当你救了一个人三次，他的生命便属于你。 (凌淑芬『冷冬寒梅』)
네가 한 사람을 세 번 구했을 때 그의 생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b. 你还是去交通队一趟，警察说什么你就听着，别自尊心那么强。 (王朔『顽主』)
너는 그래도 교통지구대에 한 번 가 보아라. 경찰이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듣고 있고, 자존심을 부리지 말아라.

'V+N+Q'에서 N이 확인불가능한 지시체로 나타나는 예시를 찾기 쉽지 않

다. 동량구 앞의 N이 '一+양사+명사'인 경우는 흔치 않지만 코퍼스에서는 이런 구조 역시 가끔 등장한다. 중국어의 '一+양사+명사' 형태는 보통 확인불가능한 지시체의 코딩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周士宏 2020). (23a)의 '一个人'은 비-고정된 확인불가능한 지시체이다. (23b)의 '交通队'는 총칭 명사이고 화자가 특별하게 지정한 곳도 아니다. 수신자는 그것을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交通队'와 연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交通队'도 확인불가능한 지시체로 볼 수 있다.

4.4.3.3 통계 결과와 분석

두 어순에서 N의 심적 표상 상태를 대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4-2〉 'V+Q+N'에서 N의 심적 표상 통계 결과

N의 상태	次	趟	遍	顿$_2$	场$_2$	番	通	下	총계	비율
활성적	5	9	4	1	0	2	3	8	32	12.1%
접근가능	12	21	7	3	1	1	0	23	68	25.7%
비활성적	11	37	3	5	1	4	6	19	86	32.6%
확인불가능	27	30	5	0	3	1	3	9	78	29.5%
총계	55	97	19	9	5	8	12	59	2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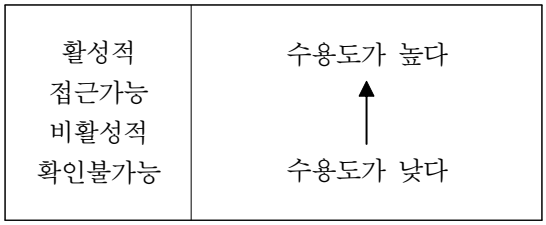
〈표4-3〉 'V+N+Q'에서 N의 심적 표상 통계 결과

N의 상태	次	趟	遍	顿$_2$	场$_2$	番	通	下	총계	비율
활성적	133	32	6	16	5	15	8	81	296	76.8%
접근가능	22	15	2	3	2	1	1	7	53	13.7%
비활성적	9	7	1	1	0	1	0	2	21	5.4%
확인불가능	3	4	2	1	1	1	0	3	15	3.9%
총계	167	58	11	21	8	18	9	93	385	100%

〈표4-4〉 두 어순에서의 N의 심적 표상 대조표

N의 상태	V+Q+N		V+N+Q	
활성적	32	12.1%	296	76.8%
접근가능	68	25.7%	53	13.7%
비활성적	86	32.6%	21	5.4%
확인불가능	78	29.5%	15	3.9%
총계	264	100%	385	100%

먼저 'V+N+Q' 구조를 보면 N의 가장 흔한 형식은 대명사이며, 273개의 용례가 있어 활성적 N의 70.9%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강세가 없는 대명사가 활성적 지시체의 무표적 코딩 형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표 4-4>를 보면 'V+N+Q'의 경우 활성적 지시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각 상태에 있는 N의 비율이 순차적으로 떨어져 하나의 등급(scale)을 이룬다. 즉 N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N이 'V+N+Q' 구조에서 자리를 잡는 수용성은 높아지고, 반대로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정도가 낮을수록 수용성은 낮아진다. 아래 <그림 4-4>는 이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4〉 'V+N+Q'에서 N의 수용가능성 등급

'V+Q+N' 구문에서 N의 심적 표상 상태의 규칙성이 'V+N+Q'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확인불가능'보다 '비활성적'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간의 인식은 하나의 연속체이기 때문에 '확인불가능'과 '비활성적'도 하나의 연속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확인불가능'과 '비활성적'을 병합하여 '활성적'인 것의 대립 개념으로 '저활성적(hypoactive)'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활성적'인 것보다 '저활성적'인

경우의 정보를 처리할 때 인간의 정신적인 힘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확인불가능'한 것과 '비활성적'인 것을 모두 '저활성적'인 범주 안에 두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 근거해서 본고는 수치를 다시 계산하고 <표 4-5>와 같은 위계 등급을 도출할 수 있다.

〈표4-5〉'V+Q+N'에서 N의 범주별 재배열

유형	예문 갯수/비율	
활성적	32	12.1%
접근가능	68	25.7%
저활성적	164	62.1%

활성적 접근가능 저활성적	수용도가 낮다 ↓ 수용도가 높다

〈그림4-5〉'V+Q+N'에서 N의 수용가능성 등급

<표 4-5>를 보면 'V+Q+N'에서 N은 '저활성적'인 상황이 가장 많고 활성적인 지시체인 경우가 가장 적다. 또한 <그림 4-5>를 보면 아래로 갈수록 N이 '저활성적'인 것이고, 'V+Q+N' 구문의 수용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위로 갈수록 수용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N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동량구와 목적어 어순이 'V+N+Q'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V+Q+N'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결론은 구체적 사례에 설득력이 있을까? 본장 처음에 언급했던 예문(1)과 예문(12)에서 제기한 '公安局'와 '法院'의 문제를 다시 보자. '公

安局'는 '法院'과 같은 한정된 명사이지만 위치가 다른 이유는 위에서 논의한 분석 틀에 근거할 수 있다. (12b)가 포함되어 있던 텍스트인 (24)를 살펴보자.

(24) 我现在已经在法院起诉了，但是那个法院院长和他有关系，老是拿孩子威胁，说让我和他见面聊。关键是我去了法院两次了，都没成功。
나는 지금 이미 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그 법원의 법원장이 그와 친분이 있기에, 늘 아이를 이용해 협박하면서 내게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관건은 내가 법원에 두 번이나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2a)와 (18)의 公安局는 '비활성적'이고 (24)의 法院은 '활성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公安局'는 동량구 뒤에, '法院'은 동량구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시체 심적 표상이 중국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변이에 주는 영향은 상술한 예문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검증할 수 있었다.

4.5 소결

본고는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변이는 N의 심적 표상 상태에 의해 제한된다. 'V+N+Q' 어순은 N의 확인가능성이나 활성화정도가 높아야 한다. 반면에 'V+Q+N' 어순은 N이 상대적으로 확인불가능하거나 활성화정도가 낮아야 한다.

인지적 시각으로 보면, 인류의 언어는 선형적(linear)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건에 관련된 지시대상들이 한 문장의 앞자리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심적 표상 상태를 빨리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 기술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여러 언어에서 검증된다(Lu 1998). 'V+N+Q' 어순에서 N이 빨리 확인될 수 있는 현상은 이 규칙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V+Q+N' 어순은 N의 높은 확인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의 인지는 이산적(discrete)이기보다는 연속적이기에, 본장의 결론은 일종의 어순 선택의 경향성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제5장 'V+Q+N'과 'V+N+Q'의 초점구조

5.1 초점구조 접근법

앞서 제 4 장에서는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아래의 실제 예문을 살펴보자.

(1) a. 去过两次台湾, 当时觉得过去竟然如此的方便, 长短假都可以过去转转。('小红书'网站)
타이완에 두 번 가 봤는데, 당시에는 가는 것이 이렇게 편리하니 장단기 휴가 때 모두 가서 돌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b. 去过台湾两次, 一次旅游一次出差, 整体给我的印象还不错。('知乎'网站)
타이완에 두 번 가 봤는데, 한 번은 여행이었고 한 번은 출장이었다.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인상을 받았다.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건외 동량사와 결합하는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혹은 종점장소명사, '사건내' 동량구와 결합하는 피행위자 명사는 동량구의 앞과 뒤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역을 나타내는 N 의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동량구와 목적어 어순이 'V+N+Q'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V+Q+N'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의 두 문장에서 종점장소명사인 '台湾'은 모두 그 문맥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 상태가 비슷하지만 '台湾'은 어떤 경우에는 동량구의 앞에 출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량구의 뒤에 출현한다. 종점 장소뿐만 아니라 유정 피행위자와 유정 대상에도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타동성'과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의 틀에

서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을 보면 하나의 명제가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되며 두 문장은 어순만 다를 뿐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큰 차이가 없고, 한국어로 표현하면 모두 '대만을 두 번 갔었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화자는 왜 한 가지 어순만을 채택하고 다른 어순을 배제하는가? 박정구 등(2022)은 중국어는 정보 포장의 인지적 방식이 문장의 어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언어라고 주장한다. 또한 김민국(2021)에 따르면 화자는 발화 장면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구조를 특정 언어의 형태 통사적 구조에 적절한 언어형식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동일한 진리값을 가진 두 구문이 서로 다른 초점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본장에서는 Lambrecht(1994)의 초점구조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V+Q+N'구문과 'V+N+Q'구문의 초점구조 유형 패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초점구조가 어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2 Lambrecht(1994)의 초점구조 이론

5.2.1 초점과 초점구조

'초점'은 여러 의미로 쓰이므로 본고와 관련된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가 채택한 초점은 기능주의 시각에서 화자가 가지는 관심의 중심으로서, 많은 정보량을 가지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초점은 담화에서 두드러진 대상이자 논의가 되는 중심 대상이다. 정보구조 논의에서의 초점은 화용 층위의 개념이지만 접면(interface)을 이루는 문법 층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자(Rochemont 1986, Lambrecht 1994, Gundel 1999, Krifka 2007, Watters 2010, 徐烈炯 2001, 方梅 1995, 董秀芳 1996, 임동훈 2012/2020, 박철우 2014, 김민국 2021)가 초점을 논의하고 분류했다. 그 중 본고에서 논의할 내용

과 관련한 Lambrecht(1994)의 견해만을 살펴보자. Lambrecht(1994)에 따르면 초점은 단언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다. 우선 전제(presupposition)와 단언(assertion)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제란 문장이 발화될 때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을 말한다. 반면 단언은 수신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리라고 기대되는 것으로서 문장에 표현된 명제를 말한다’[44]. 전제, 단언 및 초점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MITCHELL urged Nixon to appoint Carswell.
미첼은 닉슨에게 카스웰을 임명하라고 다그쳤다.
전제: X urged Nixon to appoint Carswell.
단언: X=Mitchell
초점: Mitchell

위 도식을 살펴보면 초점은 단언을 구성하는 등식의 오른편 항목이고 단언의 일부이다. 그래서 ‘초점’이라는 용어는 ‘단언의 초점’에 대한 축약으로 이해될 것이고 화용적 관계(pragmatic relation)를 나타내는 것이다.

Lambrecht 가 말하는 초점구조는 사실 ‘초점 의미와 문장 형식의 관습적 결합’이다. 또한 그의 초점구조 분류는 초점으로 기능하는 문법 단위의 크기에 따라 설정된다. 그리고 문장에서 명제의 초점 성분을 표현하는 통사적 영역을 ‘초점 관할 범위’라고 부른다. 상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5-1〉 Lambrecht(1994)의 초점구조 분류

넓은 초점	서술어초점 PF
	문장초점 SF
좁은 초점	논항초점 AF

44) 박정구 등(2022)을 참조

초점 관할 범위에 하나의 성분만 있을 경우 그 성분을 ‘좁은 초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초점은 항상 문장의 어떤 ‘논항’이기 때문에 ‘논항초점(argument focus, AF)’이라고도 부른다. 초점 관할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성분이 있을 때는 이를 ‘넓은 초점’이라고 한다. 넓은 초점구조는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초점 관할 범위가 ‘화제-술어’ 구조 중 화제를 제외한 부분을 포함한다면, 이것을 ‘서술어초점’(predicate focus, PF)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초점 관할 범위가 전체 문장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초점구조를 ‘문장초점(sentence focus, SF)’이라고 한다.

다음 세 가지 도식은 각각 서술어초점, 문장초점, 논항초점 등을 표현한다. 세 개 문장의 명제는 동일하지만 각 구조에서 전제, 단언, 초점과 초점영역의 분배 양상은 다르다.

(3) 서술어 초점
문장: My car broke DOWN
전제: ‘speaker’s car is a topic for comment x’
단언: ‘x=broke down’
초점: ‘broke down’
초점영역: VP

(4) 문장 초점
문장: My CAR broke down.
전제: ——
단언: ‘speaker’s car broke down’
초점: ‘speaker’s car broke down’
초점영역: S(전체 문장)

(5) 논항 초점
문장: My CAR broke down.
전제: ‘speaker’s x broke down’
단언: ‘x=car’
초점: ‘car’
초점영역: NP

(3)과 같은 서술어초점 구조는 가장 흔하고 무표적인 초점구조이다. 이것이 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주제-술제’ 구조이다. 주제인 ‘my car’는 전제에 속하고 ‘broke down’은 초점이다. 형태적으로 보면 영어의 문말 성분은 일반적으로 악센트를 가지고 초점영역을 표시한다. 이러한 운율상 두드러진 성분은 초점영역에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문말 성분에 반드시 악센트나 강세가 있는지는 5.5 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4)는 문장초점에 해당하며, 이때 전제가 없기 때문에 단언과 초점이 겹친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중국어의 존현문 ‘来客人了’나 ‘下雨了’ 등의 문장은 이런 문장초점을 표현할 수 있다.

(5)와 같은 논항초점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전제는 하나의 열린 명제이며, 이때 악센트는 ‘car’에 표시된다. 영어에서 무표적인 악센트는 일반적으로 문말의 ‘down’에 있지만, (5)에서 문장 층위의 악센트는 더 이상 ‘down’이 위치한 초점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초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초점구조이다.

논항초점에 대해서는 중국어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Lambrecht 에 따르면 ‘논항초점에서 논항이라는 말은 명제의 비-서술적 표현 어느 것이나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도 주목되어야만 한다. 즉 그것은 장소, 시간, 태도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논항’은 서술어의 결합가(valence)와 동등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다른 부사어나 보어와 같은 성분들도 논항초점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본고가 논의하는 동량구와 목적어 결합하는 구조에서 동량구도 논항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논항초점은 중국어 연구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대조초점이라는 개념과 같지 않다. 먼저 대조초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45]. 方梅(1995)는 초점을 자연초점과 대조초점으로 구분한다. 문장의 정보 배열이 일반적으로 이미 알

45) 周士宏(2020:152)은 Lambrecht 의 논항초점을 대조초점과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했다.

고 있는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로 이루는 원칙을 따르며, 문말은 새로운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다. 따라서 문말 성분을 자연초점이라고 한다. 반대로 대조초점은 반드시 새로운 정보가 아니며 텍스트나 문맥에서 이미 도입된 것일 수도 있고 화자가 대조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성분이다. 예를 들어,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수신자가 어떤 일을 B 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B 가 아니고 A 이다. 이 경우 화자가 이 문장을 말하는 목적은 'B 가 아닌 A 이다'라고 설명할 때, 이때 문장의 초점은 대조초점이다. 다음 예문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

(6) A: 谁请客? 你吗?
누가 내니? 너니?
B: 我哪儿请得起, 宝康请。
내가 어떻게 낼 수 있겠어? 바오캉이 낼 거야. (王朔文集 4-36)

(6)의 '宝康'은 강세를 받는 대조초점이다. 이는 화자가 수신자의 인식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Lambrecht 의 논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장의 초점은 논항초점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ambrecht 에 의한 초점구조의 분류는 초점으로 기능하는 문법 단위의 크기에 따라 설정되며, 이러한 초점영역의 크기의 차이를 초래하는 화용적 요인이 무엇인지는 오히려 따지지 않았다. 또한 논항초점의 기본 기능은 식별(identify) 이며 '의사소통을 위해 수신자가 화용적으로 전제된 명제에서 빠진 논항의 지시체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Lambrecht1994:261)'. 따라서 (6)과 같은 대조항을 부정하는 경우는 논항 초점을 판단하는 데 필수조건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논항에 위치한 대조초점은 논항초점 구조에 속하지만, 논항초점이 반드시 대조초점인 것은 아니다.

5.2.2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초점구조

제 4 장에서는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이 어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초점을 논의할 때 N 의 심적 표상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두 개념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낮은 지시체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므로 초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반대로 활성적인 지시체는 담화 문맥에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작다. Lambrecht(1994:262)도 그런 경향성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과 지시체의 활성화 상태 사이에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7) Q: Who did Felix praise?
A: a. He praised HIMSELF
b. He praised YOU.
c. He praised his BROTHER.
d. He praised a woman you don’t KNOW.
e. He praised NO ONE. (Lambrecht 1994)

Lambrecht(1994)에 따르면 (7)의 대답인 문장들은 목적어가 모두 초점이며, 그중에서 (7a)와 (7b)의 목적어는 모두 활성적인 지시체이고 (7c)는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다. (7e)의 ‘NO ONE’은 활성화 정도조차 말할 수 없다. 확인불가능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지시체는 (7d)의 목적어밖에 없다.

이러한 초점이 되는 성분의 심적 표상 상태는 그것들이 초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 지시체가 초점인지 고려할 때 그 활성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초점구조를 분석할 때 지시체의 심적 표상을 같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고는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초점구조를 어순에 동시에 작용하는 두 가지 기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심적 표상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초점구조이론으로 설명하고, 또 초점구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심적 표상으로 해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량구가 의문사인 경우 '你去过几次美国？'와 '你去过美国几次？'의 정보구조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때 초점구조의 차원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두 문장은 모두 유표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초점이 모두 의문사 동량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화 지시체 심적 표상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 문맥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8) a. 你去过几次美国, 你觉得美国怎么样？ ('小红书'网站)
너는 미국에 몇 번 가 봤니? 너는 미국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b. 你为什么去美国？去美国哪个公司考察？美方邀请人是谁？你去过美国几次？…… (百度文库：美国 B1 签证面试问题)
당신은 미국에 왜 가십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를 방문할 것인가요? 미국 초청자는 누구인가요? 당신은 미국에 몇 번 가 보셨나요?

제 4 장의 결론에 따르면 (8a)의 '美国'는 문단의 첫 문장중에 있기에 화자는 '美国'가 수신자의 의식에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美国'는 동량구의 뒤에 있다. 반면에 (8b)에서 전체 텍스트가 '美国'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밑줄 친 부분의 '美国'가 이미 수신자의 두뇌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美国'는 동량구의 앞에 놓인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이 두 기제 중 어떤 기제가 우선적으로 어순에 작용되는지 그 순서가 유연하다고 가정하고, 경우에 따라 두 구문의 특징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기제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5.3 기존연구 검토

초점의 관점에서 동량구와 목적어가 공기하는 문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徐烈炯(2002)의 연구이다. 그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목적어가 동량구의

앞에 출현할지, 또는 뒤에 출현할지의 여부는 문장의 초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9) a. 你见过哪一位国家领导人?
당신은 어떤 국가지도자를 본 적 있는가?
b. 你常常见到邓小平吗？
당신은 덩샤오핑을 자주 보았는가?
c. 我见过一次邓小平。
나는 덩샤오핑을 한 번 봤었다.
d. 我见过邓小平一次。
나는 덩샤오핑을 한 번 봤었다. (徐烈炯 2002)

徐烈炯(2002)은 (9a)의 대답으로서 (9d)보다 (9c)가 더 적합한 이유는 ‘邓小平’이 신정보로서 문말의 자연초점 위치에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9b)의 대답으로서 (9c)보다 (9d)가 더 적합한 이유는 이 경우 ‘一次’가 신정보로 기능하므로 문말의 자연초점 위치에 출현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9a)는 특수 의문문이기 때문에 (9c)의 N은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연초점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9c)의 ‘邓小平’는 ‘哪一位’에 대한 답변으로서 ‘毛主席, 周总理...’라는 대안집합과의 관계 속에서 대조초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대조초점이 마침 문말에 있다는 것에 근거해 모든 ‘V+Q+N’의 N을 자연초점으로 인식한다면 중립적인 문맥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그는 자연초점과 대조초점을 혼재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둘째, 사실상 (9c)와 (9d)는 모두 (9b)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9b)의 ‘常常’은 화자의 횟수에 관한 관심을 활성화하므로 동량구가 앞에 출현하든, 뒤에 출현하든 모두 빈도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동량구와 목적어가 공기하는 문장의 초점구조를 분석하기 전에 피

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는 중국어 자연초점의 위치 문제이다. 현재 중국어 학계에서 徐烈炯(2002)이 대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중국어의 '주어+동사+목적어'와 같은 기본 문장에서 문말 위치 목적어인 명사는 일반적으로 자연초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李湘・端木三(2017)은 강세 실험을 통해 중국어에서 방식 부사어를 가지는 문장 중에서 방식 부사어는 문장의 자연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말 성분을 반드시 하나의 문법화되고 고정화된 초점 위치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본고가 토론하는 두 가지 구조는 사실 '주어+동사+목적어' 구조에서 하나의 동량구 성분을 더 부가하는 구조이다. 과연 이런 구조도 문말 성분이 반드시 하나의 문법화된 자연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본장에서는 徐烈炯(2002)의 연구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통사적, 화용적 측면에서 실제 예문을 분석하면서 동량구와 목적어가 공기하는 문장의 자연초점 위치를 다시 검증할 것이다.

5.4 'V+Q+N'과 'V+N+Q'의 기본 초점구조

5.4.1 목적어의 형식과 문장 유형의 분류

본장에서는 제 4 장과 같이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 장소처럼 동량구의 앞과 뒤에 모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는 의미역만을 토론할 것이다. 또한 대명사와 확인불가능한 것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기에, 본장의 모든 예문은 확인가능한 명사 형식만을 고찰할 것이다.

초점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초점이 있는 문장 유형도 명확히 해야 한다. 董秀芳(2003)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문장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중립적 문맥에 있는 일반 문장, 즉 화자가 의도적으로 특별한 초점 책략을 취하지 않는 문장(祁峰 2013)을 가리킨다. 현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문장이 '중립적 문맥'에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유효

한 테스트 방법은 해당 문장이 ‘What happened?/怎么回事/어떻게 된 거죠?’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는 전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응답문도 모든 성분이 전제가 없는 ‘새로운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의 어떤 성분이 담화 맥락에서 문장 외의 다른 성분과 대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46] 이때 문장에 사용되는 초점 패턴은 가장 자연스럽고 무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자연 초점’은 중립적 문맥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徐烈炯(2002)이 제시한 ‘你见过哪一位国家领导人?’과 같은 특수 의문문은 특정한 전제를 형성하므로 ‘중립적 문맥’이 아니기에 당연히 자연초점을 논할 수 없다.

董秀芳(2003)이 분류하는 다른 종류의 문장은 초점 민감 연산자(focus-sensitive operator, 이하 ‘초점 연산자’라고 지칭할 것이다)(Partee 1991)를 사용해 초점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본고는 코퍼스 자료를 검색할 때 동량구와 목적어가 공기하는 문장에 ‘只, 就’와 같은 초점 연산자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문장의 초점 위치는 분명 일반 문장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董秀芳(2003)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고 다음 초점구조를 분석하는데 중립적 문맥에 있는 일반 문장과 초점 연산자를 포함하는 문장을 구분해서 따로 논의할 것이다.

5.4.2 ‘V+Q+N’의 초점구조

5.4.2.1 문장 층위 테스트

아래 예문(10)이 중립적 문맥인 것을 가정하면 이 문장의 모든 성분이 어떠한 특수강세[47]도 받지 않는 경우 N은 초점이 아닐 수도 있다. 반의의문문(反

---

46) ‘V+Q+N’을 예를 들어 보면, 대조가 되는 경우 N이나 Q가 모두 논항초점이 될 수 있다.

a.李光耀见过三次邓小平, 不是周恩来。

b.李光耀见过三次邓小平, 不是两次。

47) 冯胜利(1997:64)는 문장차원의 강세 유형을 강조 강세(Lexcial Focal Stress), 대조 강세(Contrastive Stress), Q & A 강세(Narrow Scope Focal Stress), 보통 강세(Normal Stress Pattern)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중 앞의 세 가지 강세는 모두

意疑问句)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10) 李光耀见过三次邓小平。
리광야오는 덩샤오핑을 세 번 만났었다.

(11) a. 李光耀见过三次周恩来, 是吗？
b. 不, 李光耀见过三次邓小平。

(12) a. 李光耀见过三次周恩来, 是吗？
b. *不, 李光耀见过三次邓小平。
c. 不, 李光耀没见过周恩来。

(11a)의 '周恩来'에 강세가 있으면 대답인 (11b)의 '邓小平'에도 특수강세를 부가해야 한다. 이때 (11b)는 (11a)의 대답으로서 적절하다. 그러나 (12a)에서처럼 어떠한 특수강세도 없는 경우에 (12a)에 대한 대답으로 (12b)는 적절하지 않지만, (12c)는 적절하다. 따라서 '邓小平'에 강세를 부여하지 않으면 '邓小平'은 초점이 될 수 없다.

또한, 王文颖(2018)에서 사용했던 '배타적 테스트'를 이용해 한 성분의 논항초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병렬 DP 두 개가 함께 초점이 되는 문장에서 DP 중 하나를 삭제한다. 앞의 문장이 참이면 뒤 문장도 참이라는 것을 함의할(entailment) 수 없다면 이 성분이 바로 논항초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논항초점이 아니다.

(13) a. 我坐地铁和公交到学校的。
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함의할 수 없다 /→ 我坐地铁到学校的)
b. 小李去过两趟北京和上海。
샤오리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두 번 갔었다.
(함의할 수 있다 /→ 小李去过两趟北京)

특수강세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王文颖(2018)에 따르면 (13a)는 ‘我坐地铁到学校的’를 함의할 수 없기 때문에 논항초점에 속한다. (13b)는 본고가 고찰하는 ‘V+Q+N’ 구문이고 ‘小李去过两趟北京’을 함의할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 문맥에서 ‘V+Q+N’의 N은 논항초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4.2.2 문맥과 관련한 테스트

다음으로 실제 언어 용례를 살펴보고 문맥을 고려하면서 ‘V+Q+N’의 초점구조가 무엇인지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우선 초점을 생략하는 테스트를 해보자.

(14) a. 桂花糯米粥, 不错, 姓莫的最爱吃那种甜腻稠粘的东西, 难得<u>来一趟铜鼓镇</u>, 他是不会放弃这份享受的。 (『月色狰狞』)
계화찹쌀죽, 틀림없어, 모씨는 그런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것을 제일 좋아해, 모처럼 퉁구전에 오게 한 번 오게 되었으니 그는 이런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b. ……, 难得来一趟(*铜鼓镇), 他是不会放弃这份享受的。

(14a)의 밑줄 친 부분은 ‘V+Q+N’ 구문이다. 일반적으로 초점에 실리는 정보의 양이 많기에 문장에서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14b)에서 ‘铜鼓镇’은 생략되어도 담화 맥락의 이해에 지장이 없다. 그 이유는 발화시 이 이야기에 관한 인물들이 주로 ‘铜鼓镇’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신자(독자)들은 즉시 생략되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테스트를 통해 ‘V+Q+N’의 N는 자연초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질문을 이용해 초점영역을 확인해보자.

(15) 家住湘潭的齐白石嫡孙告诉记者：“在我爷爷的葬礼上, 我<u>见过一次周总理</u>。他风度翩翩, 气质非凡。” (湖南日报『周总理的湘潭情缘』)
샹탄에 사는 치바이스의 적손이 기자에게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저는 저우 총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품위가 있고 기품이 비범

했습니다'.

(16) A: 您见过周总理吗？
B: a.我[FOC 见过一次周总理]。
b.*我见过一次[FOC 周总理]。

(15) 중 밑줄 친 문장에서 '我'와 '周总理'는 모두 앞의 문맥에서 이미 출현하였으며 대화 상황에서 화제의 중심이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누구'를 만났는지가 아니라, '周总理'를 한번 만난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기자가 이에 대해 질문한다면 (16B-b)의 초점구조가 아니고 (16B-a)와 같이 대답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我见过一次周总理'를 서술어초점 구조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음 예문은 'V+Q+N'이 전체적으로 초점이 되는 하나의 증거이다.

(17) 屋内那人："天行者, 你已见过一次龙狂?"
天行者："岂止见过, 他现是已是我手下一员力将！" (天宇『灭世九绝』)
방 안의 그 사람은 '천행자, 당신은 룽쾅을 만나본 적이 있소?'라고 말다. 티옌싱저는 '어찌 만나본 적만 있겠소, 그는 이미 내 수하의 유능한 간부 중 한 사람이오'라고 말했다.

위 예문의 질문은 'V+Q+N'을 포함하는데, 이 문장에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지, 응답자가 무슨 정보에 관심에 두는지 등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다. 질문자가 중복해서 확인하려는 내용은 바로 질문의 술어 부분, 즉 '见过(一次龙狂)'이다. 대화 참여자가 관심을 두는 중심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나 몇 번 만났는지가 아니라, '见过一次龙狂'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이다. 따라서 '你(已)见过一次龙狂'의 초점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8) 전제: 'B 는 X 라는 일을 했다'
단언: 'X=见过一次龙狂'
초점: '见过一次龙狂'

이어서 분열문으로 검증해보도록 하자.

(19) (几个海军小孩)看见他围上来问:'你到我们院干吗来?"'我爬墙被逮了"。方枪枪老实回答, ……海军小孩们搜了一遍方枪枪, 一无所获。

(王朔『看上去很美』)

(해군 부대에 사는 몇 명의 아이들)은 그를 보더니 둘러싸고 물었다. '너 우리 부대에 와서 뭐 하니?' 팡창창은 '나는 벽에 기어 올라갔다가 잡혔어'라고 솔직히 대답했다. ……해군 부대에 사는 아이들은 팡창창의 몸을 뒤져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20) a. ?海军小孩们发现方枪枪之后, 搜了一遍的人是方枪枪。

b. ?海军小孩们发现方枪枪之后, 搜了方枪枪的次数是一遍。

c. 海军小孩们发现方枪枪之后, 做的事情是搜了一遍方枪枪。

위 예문의 핵심 문장을 추출하여 분열문으로 초점 테스트를 하는 경우, 문맥을 고려하면 (20c)가 가장 합리적이다. 확실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며 명사 목적어나 동량구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다양한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a. 他们(曹叔和八娘)下'五・七干校'前, 我曾去看过一次曹叔和八娘。

(『刘心武选集』)

그들이 '5.7 간부학교'로 가기 전에 나는 차오 삼촌과 그의 아내를 찾아가 본 적이 있다.

b. 湖中迷魂区之游很快吸引了游客, 来游楚长城的人几乎都要游一趟迷魂区。 (周大新『湖光山色』)

호수 가운데 미혼구 여행은 빠르게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추나라 장성 여행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미혼구에 한 번 와서 여행했다.

c. '(这小子)还不习惯把这玻璃套子放在身上……'王景笑着摇晃两下那封套。 (张大春『聆听父亲』)

(이 녀석은) 이 유리 덮개를 몸에 지니는 것에 아직도 습관이 들지 않았다. ……'왕징은 웃으면서 그 덮개를 두 번 흔들었다.'

위 예문들 중 밑줄 친 부분은 (20c)의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즉 해당 문장을 '……, S 做的事情是……'처럼 변환해도 앞뒤 문장 서술의 일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예문의 'V+Q+N' 구문은 서술어초점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위에 통사적, 화용적 분석을 통해 본고는 'V+Q+N'의 기본 초점구조가 서술어초점, 즉 화제-진술문이라고 판단한다. 'V+Q+N'을 포함한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주어는 정보량이 적고 활성화되는 실체이며, 술어는 정보량이 많아 초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술어 중에 동사, 목적어, 동량구가 동시에 정보를 제공한다.

5.4.2.3 'V+Q+N'에서 'Q+N'이 초점이 될 가능성

'V+Q+N'의 초점이 'Q+N'일 수도 있을까? 제 2 장에서 우리는 N 이 사건명사일 때만 'Q+N'을 병합된 구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 'Q+N'이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 3 장 이후 부분에서는 사건명사를 더 이상 논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건명사를 포함하는 'V+Q+N'의 어순을 바꿀 수 없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어순 변이 기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존재한다.

(22) 我去了两次北京, 三次上海。
나는 베이징에 두 번 갔었고, 상하이에는 세 번 갔었다.

이 문장은 '两次北京'과 '三次上海'가 병렬하면서 대조가 되어 '两次北京'을 초점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명량사 구조를 이용하여 대조해보자. 우선 부정문과 선택문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23) a. 我吃了两个苹果, 不是三个香蕉。
나는 사과 두 개를 먹은 것이지 바나나 세 개를 먹은 것이 아니다.

b. *我去了两次北京, 不是三次上海。

(24) a. 你吃了两个苹果, 还是三个香蕉？
당신은 사과 두 개를 먹었나요, 아니면 바나나 세 개를 먹었나요?

b. *你去了两次北京, 还是三次上海？

‘수사+명량사+명사’ 구조는 모두 변환할 수 있지만, ‘수사+동량사+명사’ 구조는 변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两次北京’과 ‘三次上海’는 하나의 집합 안에 두 가지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2)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는 이유는 중국어에서 동사의 승전생략(承前省略) 현상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25)는 (22)와 유사한 구조인데 두 번째 절은 동사가 없어도 성립이 된다. 하지만 이 문장도 부정문과 선택문으로 변환할 수 없어 ‘小王数学’를 초점으로 판단할 수 없다.

(25) a. 他教小王数学, 小李语文。
그는 샤오왕에게 수학을, 샤오리에게는 국어를 가르친다.

b. *他教小王数学, 不是小李语文。

c. *他教小王数学还是小李语文？

그래서 (22)는 아래처럼 ‘三次上海’ 앞에 음성이 없는 동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我去了两次北京’는 그대로 술어초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26) 我[FOC 去了两次北京], 三次上海。

5.4.3 ‘V+N+Q’의 초점구조

5.4.3.1 문장 차원의 테스트

우선 교정 초점 테스트(corrective test)를 해보자.

(27) A: 李光耀见过邓小平两次, 是吗？
리광야오는 덩샤오핑을 두 번 만났어, 맞지?
B: a. 不, 李光耀见过邓小平[Foc 三次]。
b.*不, 李光耀见过[Foc 周恩来]两次。
c.*不, 李光耀[Foc 没见过邓小平两次]。

만약 (27A)가 중립적 문맥이면 (27A)에 대한 답변으로는 (27B-a)가 가장 자연스럽다. 반면, (27B-b)라는 답을 얻으려고 질문할 때는 '邓小平'에 강세를 부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7B-c)라는 답변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립적 문맥에서 'V+N+Q' 구문의 동량구만이 초점 영역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교정 초점 테스트 외에 '거짓말 테스트(lie-test)'도 논항초점을 검증할 수 있다. '거짓말 테스트'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논항초점 구조 문장의 경우 초점 성분을 제거하면 나머지 서술어 부분은 하나의 배경 문장으로 전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Lambrecht 1994, 王文颖 2018). 이때 단언 부분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제의 진리값은 변하지 않는다.

(28) 문장: 李光耀见过邓小平三次。
리광야오는 덩샤오핑을 세 번 만났다.
전제: '李光耀见过邓小平'
단언: '李光耀见邓小平的次数是三次'
a. 李光耀见过邓小平三次。→ '李光耀见过邓小平'는 참이다
b. 李光耀不是见过邓小平三次。→ '李光耀见过邓小平'는 참이다

우선 동량구를 논항초점으로 가정해보자. (28b)의 부정사 '不是'의 관할 범위는 '三次'이기 때문에 (28b)의 부정명제는 '李光耀'가 '邓小平'을 한 번이나 두 번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李光耀'가 '邓小平'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문은 '三次'를 부정할 수는 있지만, 전제 술어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李光耀见过邓小平三次' 자체는 긍정명

제든 부정명제든 모두 참인 ‘李光耀见过邓小平’라는 전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三次’는 좁은 초점임을 증명할 수 있다.

5.4.3.2 문맥과 관련한 테스트

많은 문맥을 살펴보면 ‘V+N+Q’의 Q는 배타적이며, 일련의 후보 항목(item)을 촉발할 수 있다. 袁毓林(2012)은 계열적(paradigmatic)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초점에 이 초점성분과 교체 관계가 있는 일련의 잠재된 성분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통사구조에서 대체성이 높은 위치일수록 더 큰 정보량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처럼 의미적으로 ‘V+N+Q’의 Q는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a. 我可以<u>饶恕莉丽一次</u>, 两次, 三次五次, 但绝不可能会有十次八次！
(张平『十面埋伏』)
나는 리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여덟 번이나 열 번은 절대 할 수 없다.

b. 小贼们一晚<u>去了寺庙一趟</u>, 两趟, 三趟, 竟然偷了三尊佛像。
(温州日报 2018-5-10)
도둑들이 하룻밤에 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갔고, 놀랍게도 삼존불상도 훔쳐 갔다.

c. 有一回, 在飞机上, 坐在我后面的五岁小孩, 用脚<u>踢了我的座椅一下</u>, 接着两下, 三下, 无数下, 我终于忍无可忍。 (微博)
언제 한 번 비행기에서 내 뒤에 앉아 있던 다섯 살짜리 아이가 발로 내 의자를 한 번 찼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셀 수 없이 차서 나는 결국 참을 수 없었다.

위의 세 개 예문 중 밑줄 친 부분인 ‘一次’, ‘一趟’, ‘一下’ 등은 모두 열린 슬롯(slot)에 있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동량구들이 모두 이 위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수량 구조는 더 쉽게 집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Q가 어느 위치에서나 일련의 후보 항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V+Q+N’ 구문에서는 Q가 하나의 열린 슬롯이 될 수 없다. 예문 (29)a를 변환해보자.

(30) *我可以饶恕一次莉丽, 两次, 三次五次, 但绝不可能会有十次八次。

변환의 결과를 보면 Q가 문말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무한한 수량구조의 확장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동량구의 확장 현상뿐만 아니라 동량구를 선택하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Q의 초점 역할을 증명할 수 있다.

(31) a. 『红楼梦』中刘姥姥进大观园三次还是两次? (百度网页)
『홍러우멍』 속의 류라오라오는 다관위안에 세 번 들어갔니, 아니면 두 번 들어갔니?
b. 你啊, 只需要提醒孩子一遍或者两遍, 如果他假装没听见, 那就是没有执行的意思了。 (百度网页)
당신은 아이에게 한 번 혹은 두 번만 일깨워주면 되고, 만약 그가 못 들은 척하면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c. 媳妇气不过拿扫帚打了对方两下还是三下, 对方手乌青, 法医鉴定属轻微伤。 (百度网页)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빗자루를 들고 상대방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때렸고, 상대방 손에 멍이 들어서 법의관은 경상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还是’나 ‘或者’는 두 개의 항목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두 개의 항목은 서로 선택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의 집합에 속한다. 따라서 위 예문들을 통해서도 ‘V+N+Q’의 Q가 하나의 열린 명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V+N+Q’의 Q를 초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다른 증거는 문말에 있는 Q는 목적어의 앞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Q가 문말에 있는 경우, 특히 수량사가 ‘一’보다 더 많을 때는 통상적으로 후속 문장들이 Q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

(32) a. 尼克松这样称赞邓小平：我见过邓小平四次, 1979年在华盛顿, 1979年、1982年和1985年在北京。我每次离开北京时, 他那勇往直前的坚强决心和绝对的自信都给我留下了一次比一次深刻的印象。

(叶介甫『外国政要眼中的邓小平』)

닉슨은 이렇게 덩샤오핑을 칭찬했다. 나는 1979년에는 워싱턴에서, 1979년, 1982년과 1985년에는 베이징에서 덩샤오핑을 총 네 번 만났었다. 내가 매번 베이징을 떠날 때 그의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결연한 결심과 절대적인 자신감은 내게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b. 我见过奥巴马三次, 分别在今年1月马萨诸塞州的初选、8月丹佛的民主党大会和10月中旬纽约的第三次总统辩论会上。可以说, 对他的印象, 一次好过一次。 (新民周刊『解密奥巴马』)

나는 각각 올 1월 매사추세츠 주의 경선, 8월 덴버의 민주당 대회 그리고 10월 중순 뉴욕의 3차 대통령 토론회에서 오바마를 세 번 본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인상은 볼 때마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33) a. 这位姓刘的亲自去过宋家寨两趟, 都是夜里去, 夜里回。

(姚雪垠『李自成』)

류씨는 직접 숭쟈자이에 두 번 가 봤는데 모두 밤에 갔다가 밤에 돌아왔다.

b. 老师叫学生罚站, 还打手, 用木棒打了学生十几下, 每下都特别重, 如果告到教育局会怎么样？ (百度网页)

선생님은 학생에게 벌로 서 있게 하고 몽둥이로 학생을 십여 차례 손바닥을 때렸는데 매번 아주 세게 때렸다. 만약 교육청에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32)의 두 문장은 매우 유사하며 'V+N+Q'에 따라온 문장들은 모두 매번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설명한다. (32a)를 예로 들어 보면, 진술 형식을 바꾸면 '第一次是1979年在华盛顿, 第二次是1979年在北京, 第三次……'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설명은 화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며, '四次'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 너무 커서 그 후속 문장을 통해서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端木三(2007)에 따르면 초점의 중요한 특징은 많은 정보량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성분보다 '四次'

가 화자가 중점적으로 전하고 싶은 정보이자, 문장의 초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33)는 'V+N+Q'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맥으로 'V+N+Q'의 후속 문장에서 '都'가 자주 나타난다. 潘海华(2006)에 따르면 '都'의 관련 대상은 일반적으로 복수 성분이며, 여기서 복수성은 동량구에만 적용할 수 있다. (32)의 두 문단은 매번 사건에 대해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에 비해, (33)의 후속 문장들은 매번 사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네 개 예문의 공통점은 후속 문장들이 모두 동량구가 가지는 정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四次', '三次', '两趟', '十几下' 등이 화자가 강조하는 성분이고 초점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이다. (32a)를 예로 들어 초점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4) 我见过邓小平[FOC 四次]。

본고는 중립적 문맥에서 'V+N+Q'의 정보 초점은 문말의 Q 에 있으며, 이러한 초점구조는 좁은 초점에 속한다고 본다. 또한, 제 2 장에서 통사구조를 분석하면서 Q 를 보어로 정의했기 때문에 Lambrecht 의 초점구조 이론에 따라 본고는 'V+N+Q'의 Q 를 논항초점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V+N+Q'의 초점구조는 논항초점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5.4.3.3 '一+동량사'가 허화된 경우

제 2 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어떤 동량사는 주로 수량사 '一'와 결합한다. 특히 'V+N+Q' 구문에서 '一顿$_2$, 一场$_2$, 一番, 一通'은 강세를 받을 수 없기에 허화된 양상이 보인다. 또한 이는 수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초점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35) a. 金全礼禁不住骂了办公室主任一顿$_2$。 (刘震云『官场』)
진취안리는 참을 수 없어서 사무실 주임을 한 번 욕했다.

b. 加木措呵, 你白疼了朋友一场$_2$。 (池莉『让梦穿越你的心』)
자무춰야, 네가 친구를 아낀 것이 헛수고였어.
c. 彭莉大大嘲笑了刘云一番, 要她无论如何参加。 (皮皮『比如女人』)
펑리는 류윈을 한 번 크게 비웃으면서 그녀는 무슨 일이 있던지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 回家捆铺盖时, 艳春责怪了母亲一通。 (池莉『你是一条河』)
집에 가서 침구를 쌀 때 옌춘은 엄마를 한 번 원망했다.

(35)의 ‘一顿$_2$, 一场$_2$, 一番, 一通’은 제 1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시간의 지속성과 양이 누적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허화된 양상이 보인다. 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一+동량사’가 허화되었음을 검증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一+동량사’는 강세를 받을 수 없다.
나. ‘一+동량사’를 삭제해도 전체 문장의 완결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一+동량사’는 ‘一会儿’/‘一段时间’과 같은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허화된 동량구는 당연히 초점이 될 수 없다. N 도 문말 위치에 있지 않아서 중립적 문맥에서 초점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동량구가 허화된 ‘V+N+Q’ 구문은 서술어 초점구조로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5.4.4 두 구문의 강세 패턴 차이

端木三(2007)는 정보-강세 원칙(Information-Stress Principle)을 제시했다. 정보량이 많은 성분은 다른 성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강하게 읽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화자가 분명히 표현하여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는 초점이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고 강세가 초점을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두 구문의 강세 패턴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5.4.4.1 어감 조사

두 구문의 강세 패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 형식으로 적은 샘플의 어감 테스트(small-scale judgment)를 진행했다. 설문지의 예문은 실제 발화에서 선별되었으며 모든 예문은 '중립적 문맥'에 속한다. 총 5 쌍 10 개 문장(Q 가 허화된 예문을 제외)을 조사 내용으로 사용했다. 모든 문장은 설문지에서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피실험자에게 한 번 큰 소리로 각 문장을 읽은 다음에 목표 구문(밑줄 친 부분)을 두 번 작은 소리로 읽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각 문장의 V, Q 와 N 중 발화할 때 가장 무겁거나, 들을 때 더 명확하게 느껴진 것을 선택한다. 모든 예문에 대한 강세 판단을 완료한 후 각 피실험자에게 특정 성분을 선택한 이유를 추가로 질문했다. 그 이유는 음성적 강세와 의미적 두드림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설문지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1-a.去了/两次/台湾, 当时觉得过去竟然这么方便, 长短假都可以过去转转。
1-b.去过/台湾/两次：一次旅游一次出差, 抛开政治原因, 整体给我的印象还不错。
2-a.在瑜伽馆见过/三次/孙俪。你还别说, 她皮肤真的是非常好。
2-b.在上海见过/孙俪/三次, 但每次都没来得及要签名。
3-a.我推了推门, 里边关着, 又敲了/三下/房门, 里边走出一个人问：'谁？"
3-b.妹妹又跑到爸爸那边挑衅, 敲了/房门/三下, 结果被爸爸的眼神儿吓到了。
4-a.今年去了/两趟/西藏, 走了经典的 318 和拉北环线。
4-b.我这辆越野车啊, 去了/西藏/两趟, 没出过故障。
5-a.我也催了/一遍/大哥, 他答应最晚后天把活儿交上来。
5-b.催了/大哥/两遍, 他还是没交活儿。

이번 조사의 피실험자는 총 45 명이다. 모든 피실험자가 서면동의서를 사인

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3 개를 제외한 총 42 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총 420 개의 문장에 대한 선택 결과를 얻었다.[48)]

본고는 李湘・端木三(2017)에서 제시했던 ‘강세 경향 계수’(T 로 설정)를 이용하여 두 구문에서 각 성분의 강세를 받는 경향성 계수를 계산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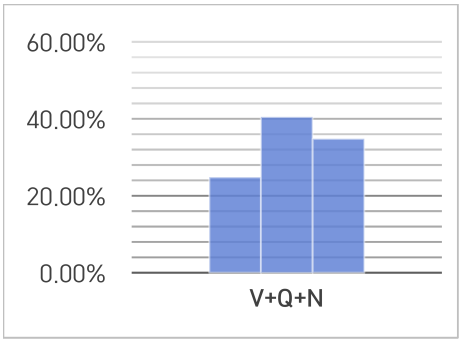
T=(어떤 성분이 모든 예문에서 강세를 받은 총 횟수) ÷ (모든 예문 수×피실험자 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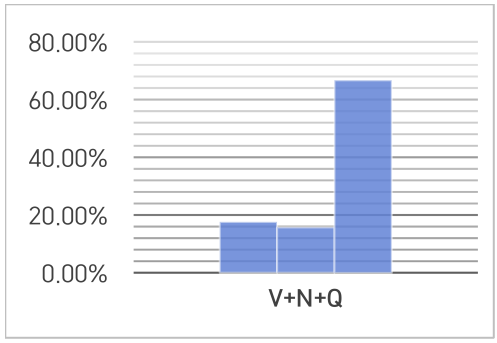
<표 5-2>는 ‘V+Q+N’ 및 ‘V+N+Q’ 구문 중 각 문장 성분의 ‘강세 경향 계수’를 보여준다.

〈표5-2〉 두 구문에서 각 성분의 ‘강세 경향 계수’

V+Q+N	V	Q	N
	24.8%	40.5%	34.8%

V+N+Q	V	N	Q
	17.6%	15.7%	66.7%





〈그림5-1〉 ‘강세 경향 계수’ 대조도

48) 본 실험에 선정된 피실험자들은 모두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출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그 중 28 명이 중국 북방 방언 지역 출신이다. 모든 피실험자는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피실험자의 방언 배경과 강세 판단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2>과 <그림 5-1>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V+Q+N’에서 문말에 있는 N 이 강세를 받는 경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Q 가 강세를 받는 경향성이 가장 높지만, N 보다 많이 높지는 않았다. 둘째, ‘V+N+Q’에서 Q 가 강세를 받는 경향성이 V 와 N 보다 현저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V+Q+N’에서 Q 가 강세를 받는 경향성이 가장 높다. ‘강세 경향 계수’를 비교해 보면 Q 와 V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p-value=0.016＜0.05), Q 와 N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p-value=0.151＞0.05). 그래서 Q 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강세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V 와 N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p-value=0.091＞0.05). 이렇게 보면 ‘V+Q+N’에는 모어 화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강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르면 ‘V+Q+N’에서 N 은 문말에 있지만 강세를 받는 경향성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초점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V+Q+N’이 전체적으로 술어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V+N+Q’에서 각 성분의 ‘강세 경향 계수’를 보면 Q 와 V 사이(p-value=0.018＜0.05), Q 와 N 사이(p-value=0.001＜0.05)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V 과 N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p-value=0.384＞0.05). 따라서 Q 는 <그림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피크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Q 가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어감을 조사할 때 필자는 피실험자에게 문장의 강세 위치를 표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피실험자는 문장의 어떤 성분이 의미 표현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읽힌다고 답했다. 이것은 피실험자의 강세 위치 및 의미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5.4.4.2 논의

이상의 실험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면 두 구문의 강세 패턴은 전혀 다르다. 이는 두 구문의 초점구조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장의 5.4.2 와 5.4.3 부분에서 두 종류의 구문에 대한 초점구조 분석과도 일치한다. 즉 ‘V+Q+N’은

전체 문장에서 술어 초점이 되고, ‘V+N+Q’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는 Q가 논항 초점이 된다.

徐烈炯(2009)은 중국어의 문말 위치가 초점 위치이며, 중국어의 초점 성분은 가능하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자리를 차지하면 강세 등의 수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张慧丽・潘海华(2019)는 실험을 통해 중국어 문말의 초점 위치에도 강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본고의 어감 조사와 음성실험도 강세는 초점 실현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필수 수단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위 논증은 중국어 문말을 차지하는 성분은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5.5 초점 연산자가 나타나는 경우

동량구를 포함한 문장에서는 초점 연산자가 자주 나타난다. 본고가 수집한 예문 중 약 3%가 초점 연산자 ‘只, 就, 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점 연산자를 포함하는 예문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사적으로 초점 연산자는 일정한 영향 범위가 있으며, 이를 ‘통사적 목표 범위(syntactic target)’라고 할 수 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은 초점이 될 수 있다. 실제 문맥에서 초점 연산자는 통사적 목표 범위 내의 어떤 성분과 의미상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며 이러한 성분은 초점 연산자의 ‘의미 목표점(semantic target)’이고, 문장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König(1991)의 연구에 따르면, 초점 연산자는 문장의 의미를 양자화(quantization)하는 역할을 한다. 즉 초점에 의해 촉발되는 후보 항목들의 집합을 양자화한다. 후보 집합 안 구성원 사이의 의미 강도는 서로 다르며, 일종의 등급(scale) 관계를 형성한다. 동량구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등급’이 형성되는 것을 쉽게 유발한다.

(36) a. 她只去了一次香港, 竟也沾染了一点洋气。 (欧阳山『三家巷』)
그녀는 홍콩에 단 한 번 가봤는데도 서양풍이 좀 들었다.
b. 说来你或许不信, 我只见过黎先生两次。 (亦舒『红尘』)
말해도 너는 아마 안 믿겠지만 나는 리 선생님을 두 번만 만났었다.

(36)을 보면 초점 연산자 '只'의 통사적 목표 범위는 '只'에 후행하는 내용이며, '只'의 의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수량을 나타내는 동량구 '一次'이다. 이는 '一次'가 후보 집합인 '一次, 两次, 三次, 四次……' 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의 밑줄 친 문장에서 각 성분 간 의미 관련성을 Heim(1982)의 삼분구조(tripartite structure)[49]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Only [她去了 X 香港] [X=一次]
Operator Restrictor Nuclear Scope

Only [我见过黎先生 X] [X=两次]
Operator Restrictor Nuclear Scope

그러므로 초점 연산자가 나타날 때 의미초점은 자연스럽게 Q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V+Q+N'이든, 'V+N+Q'이든 모두 논항초점 구조로 분석해야 한다.

'只, 就, 仅'과 같이 '유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산자 외에, 수량과 관련한 다른 부사도 예문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은 똑같이 초점 연산자 역할을 한다.

---

49) S

Operator Restrictor Nuclear Scope
연산자 제한 부분 양자화 영역-핵심 부분

배경-초점(focus-background) 투사(映射)이론에 따르면 논평에 초점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초점 성분을 핵심 부분에 투사하고 나머지 문장은 제한 부분에 투사한다.

(38) a. 这位车主说：从验车到拿到行驶证共跑了四趟北郊，真是叫人直蹿火。 (人民日报 2000 年)
차주는 ‘자동차 검사부터 검사 합격증을 받기까지 베이쟈오에 총 네 번을 다녀와야 해서, 정말 사람 열받게 한다’고 말했다.

b. 来游楚长城的人几乎都要再游一趟迷魂区。 (周大新『湖光山色』)
추나라 장성에 와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미혼구에 다시 한번 여행하러 온다.

c. 他冷丁转身又看了一遍嫌疑人。 (王朔『顽主』)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혐의자를 한 번 살펴보았다.

(39) a. 他凭着高超的驾驶技术，一共上阿里一百二十七趟。(人民日报 2000 年)
그는 훌륭한 운전 기술로 아리에 총 127 번이나 갔었다.

b. 娄红用尽最后的力量想再伤害耿林一次， 但却没想到她的话又首先伤着了自己。 (皮皮『比如女人』)
러우홍은 최후의 힘을 다해서 경린을 다시 한번 상처 주고 싶었지만, 자기의 말이 자기를 먼저 상처 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c. 大华又呼了陈大明一次。 (皮皮『比如女人』)
다화는 천다밍을 다시 한번 불렀다.

(38)과 (39)는 각각 ‘V+Q+N’과 ‘V+N+Q’에서 다른 초점 민간 연산자가 나타나는 예문이다. ‘共’이나 ‘一共’은 수량을 총계하고, ‘再’나 ‘又’는 사건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두 수량과 관련된 표현이다. 따라서 이런 표지가 나타나는 문장은 중립적 문맥으로 볼 수 없고 동량구가 목적어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모두 전체 문장의 초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초점 연산자가 있는 경우는 두 어순의 초점구조가 같아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화자가 발화할 때 한 어순을 채택하고 다른 어순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이것이 담화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 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5.6 소결

중립적 문맥에 있는 일반 문장의 경우 'V+Q+N'이 속하는 문장의 자연초점은 N에 있지 않으며, 기본 초점구조는 서술어초점이다. 이때 화자의 주요 의도는 어떤 주제를 논평하거나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이 구문이 나타내는 사건은 진술의 일환이자 전후 사건 연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V+Q+N'은 무표적인 초점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V+N+Q'는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초점구조이다. 화자가 사건이나 동작의 횟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할 때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싶을 때, 동량구를 문말에 놓고 강세를 부여하여 초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초점 영역은 하나의 성분에만 있기에, 전체 문장의 초점구조는 논항초점이다. 그러나 Q가 허화된 성분이라면 초점 영역이 전체 서술어로 확장되어 서술어초점이 된다.

두 구문에서 초점 연산자가 나타나는 경우, 본고는 이를 화자가 의도적으로 특별한 초점 책략을 취하는 문장으로 간주한다. 이때 동량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관계없이 초점 연산자는 항상 동량구와 관련되며 해당 문장은 논항초점을 형성한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3〉 두 구문의 초점구조 패턴 차이

	상황 분류	초점 유형	예시
V+Q+N	일반 문장	서술어초점 PF	李光耀[$_{Foc}$见过三次邓小平]
	'초점 연산자'를 포함	논항초점 AF	我只去过[$_{Foc}$一次]北京
V+N+Q	일반 문장	논항초점 AF	李光耀见过邓小平[$_{Foc}$三次]
	'초점 연산자'를 포함	논항초점 AF	我只见过黎先生[$_{Foc}$两次]
	'一+동량사' 허화	서술어초점 PF	艳春[$_{Foc}$责怪了母亲一通]

제6장 어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담화 요인

6.1 담화 분석의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

제 4 장과 제 5 장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을 제한하는 요소를 찾아냈지만, 이따금 정보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출현한다.

(1) a. 我决定就此不放过, 狠狠地攻击一番父亲, 这种机会不常有。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심하게 아버지를 비난했는데, 이런 기회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b. 他上上下下打量了女儿一番, 却突然把大拇指一伸, 豪迈地笑道：'好, 好, 晓燕, 你算锻炼出来了..."
그는 위아래로 딸을 한 번 훑어본 후 갑자기 엄지를 세우고 호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좋아, 샤오옌, 너도 꽤 성장한 것 같구나...'

두 예문 중 밑줄 친 부분은 각각 'V+Q+N'과 'V+N+Q'에 속한다. 문맥에 근거했을 때 두 구문 N 의 심적 표상 상태는 동일하며 모두 활성화된 지시체이다. 또한 '一番'은 강세를 받을 수 없고 두 문장 모두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부사어가 'V+Q+N'과 'V+N+Q'로부터 초점을 뺏어갈 수 있다.[50] 따라서 초점 구조 분석으로는 '一番'이 서로 다른 문장 안에서 다른 통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실 문장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의사소통의 맥락을 고려해야만 문장 안의 어순 문제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50) 满在江・宋红梅(2004)와 李湘・端木三(2017)은 중국어의 방식 부사어가 자연초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있다. 본고는 많은 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어순의 담화 기능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스캐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담화 요소가 어순에 주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어 담화 요소가 구문 변이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문 변이란 같은 명제의 내용을 표현하거나, 같은 진리값을 가진 문장들이 한 쌍 또는 한 그룹을 이루는 구문 형식이다. 주동문인 '张三打了李四'와 피동문인 '李四被张三打了'가 나타내는 구조도 구문 변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廖秋忠(1991)은 담화의 관점에서 중국어 피동문을 사용할 때 피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전체 단락의 화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Sun & Givón(1985)은 중국어 'SVO'와 'OSV' 두 가지 어순도 구문 변이로 간주하면서 어순 선택은 담화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OSV'의 사용이 더 많은 강조 또는 대조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동량구와 목적어에 의해 형성된 두 가지 구조 역시 한 쌍의 구문 변이이다. 刘月华 등(2001)은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변이도 담화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본고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따라서 본장은 기존의 담화 이론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어떤 담화 요소가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장은 CCL 当代文学 코퍼스에서 추출한 서면어 예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전경과 후경', 그리고 '화제 연속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구문의 담화 기능 차이를 연구할 것이다. 아래 6.2 와 6.3 에서는 먼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후 코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장에서 논의할 통사적 변이와 관련된 N 은 제 5 장처럼 모두 식별가능한 명사 형식인 목적어이다.

6.2 후경화 정도 차이

6.2.1 전경과 후경 이론

6.2.1.1 전경과 후경의 개념

전경(Foreground)과 후경(Background)[51]은 담화 분석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서술적 텍스트 내부 각 절의 정보적 지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Hopper(1979)는 처음으로 유형론적 관점에서 서면어 서술적 텍스트 중 전경과 후경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즉 사건의 주요 줄거리를 이루며 사건의 발전 상황을 직접 묘사하는 정보는 전경이고, 사건의 줄거리를 부각하거나 평가하는 정보는 후경에 해당한다. 아래 중국어 예문을 통해 이러한 전경과 후경의 정보적 지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有一天, 狼刚吃了一只羊, 由于吃得太快, 羊骨头卡在喉咙里了。
C1 C2 C3

(李晋霞 2017)

어느 날 늑대가 양을 한 마리 먹었는데, 너무 급하게 먹느라 양의 뼈가 목구멍에 걸렸다.

(2)에서 C1 과 C3 은 사건의 주요 줄거리를 이루고 있어서 전경에 속하며, C2 는 사건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지는 않고 사건의 주요 줄거리를 중심으로 C3 이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 후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정보-구정보'는 '전경-후경'과 무관한 차원이라는 점이

51) 인지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Figure-Ground'는 일반적으로 '전경-배경'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본고는 이와 구분하기 위해 담화의 차원에서 말하는 'Foreground -Background'를 '전경-후경'으로 번역하고 사용한다.

다. 신정보와 구정보는 제 4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장 층위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고, 전경과 후경은 담화 구조 층위에서 사건 간 관계를 표현하며 절의 연결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경과 후경을 구별할 때 텍스트에서 서술한 주요 줄거리로써 판단하는 것 외에 일련의 형태적인 수단에도 근거해야 한다. Hopper(1979), Tomlin(1985), 屈承熹(2006), 方梅(2008), 王咸慧(2021)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경과 후경을 구분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6.2.1.2 종속구조와 후경

Polanyi & Hopper (1981), Fleischman(1985), Reinhart(1984), 屈承熹(2006) 등은 일반적으로 종속구조는 후경 정보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만약 한 절[52]이 종속절이라면 그것은 배경 정보를 표현할 가능성이 더 크다.

Halliday(1985)와 Matthiessen＆Thompson(1988)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절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융합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의 서로 다른 논리 구조를 반영한다. 하나는 병렬 관계(parataxis)이고, 다른 하나는 주종 관계

---

52) 앞에서 본고는 넓은 의미에서 구보다 더 큰 단위를 모두 문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담화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어에서는 좁은 의미의 문장(sentence)과 절(clause)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吕叔湘(1979)은 언어의 정태적 단위는 형태소, 단어, 구 등이지만 언어의 동태적 기본 단위는 절이고 여러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문은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邢福义(1995) 또한 절이 독립적으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문법 단위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복문과 문단(句群)은 모두 최소 2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아래 첫 번째 예문은 복문으로서 2 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종속절이고, 두 번째 예문은 문단으로서 2 개의 문장은 모두 단문이다.

(1) 他站在这异乡的街上, 他的心却回到家乡去了。
(2) 他为什么不进旅馆去呢？难道所有的旅馆都客满了吗？

(柳青『梁生宝买稻种』)

이런 주장에 따라 본고는 담화의 기본 단위를 '절'로 설정하고 '문장'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hypotaxis)이다. 주종 관계로 연결된 두 절 사이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본고는 이러한 주종관계를 표현하는 구조를 종속구조라고 칭하고, 이런 종속구조는 화자의 의식에서 문장의 정보적 위치나 정보적 무게(information weight)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3) a. Getting up, he half-smiled and signed ‘play’… (屈承熹 2006)
그는 일어나면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미묘한 표정으로 ‘놀자’라는 손짓했다.
b. He got up, half-smiled and signed ‘play’.

屈承熹(2006)는 이 예를 근거로 종속구조가 ‘가중치 낮추기(降低权重)’를 통해 전경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두 절은 (3a)가 원문이고 (3b)가 변환된 문장이다. 두 문장은 같은 명제를 가지고 있고 의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화자는 왜 첫 번째 절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담화의 구성은 사건 간 가중치 차이를 고려하고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은 반드시 가중치를 높여야 이야기의 중심을 이룰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은 무대 뒤로 물러나야 중심이 되는 사건을 부각할 수 있다. (3a)에서 화자는 ‘일어나다’라는 행위보다 뒤에 있는 두 행위를 진술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조를 선택했다. 반면 (3b)는 세 가지 사건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중점 없이 단순히 각 사건을 나열하는 서술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 종속구조는 일부 사건의 무게를 줄여서 다른 사건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속구조에 있는 종속절은 보통 사건 과정 이외의 요소, 예를 들면 시간, 동반상태, 조건, 인과관계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후경으로 나타난다. Tomlin(1985)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관계절, 부사어절 등이 후경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는 통계 분석을 통해 종속구조가 배경을 식별하는 기본 수단임을 보여주며, 통계를 낸 예문에서 약 80%가 이 규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Tomlin(1985)이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종속구조는 대부분 영어를 연구 대상으

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본고는 이를 중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속구조를 다시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영어에서 말하는 종속구조가 때로는 중국어의 복문(复句)에 해당하고 때로는 중국어의 내포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어에 적용할 때, 우리는 종속되는 절의 내포됨(embedded) 여부에 따라 복문의 종속절(subordinate clause)과 내포문의 내포절(embedded clause)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해야 한다. 이어서 중국어의 종속구조와 내포구조의 범위를 정하고 그들이 배경화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우선 중국어의 종속절은 주로 인과, 조건, 양보 등 몇 가지 논리적 관계를 표현하고 주로 후경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서 屈承熹(2006)는 인과문(causal)과 조건문(conditional)을 예로 들어 중국어의 종속절이 후경을 표현하는 기능을 설명했다.

(4) a. (因为)<u>我是美国人</u>, 去中国需要护照。
나는 미국인이라서 중국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
b. 我去中国需要护照, 因为<u>我是美国人</u>。

(5) <u>我是美国人</u>, 就不会说这么糟的英语了。
내가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엉망인 영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屈承熹 2006)

(4a)의 앞뒤 절은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표시는 없지만, '我是美国人' 앞에 '因为'를 붙여 두 절이 인과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절이 배경을 나타내는 원칙에 따라 앞 절 '我是美国人'는 배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b)의 경우에는 앞 절과 뒤 절이 뒤바뀌는데, 이때 뒤 절에서 '因为'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뒤 절이 후경이라는 것을 표기한다. 이렇게 보면 전경과 배경의 배치는 절의 순서와 무관한 경우도 있다. (5)는 조건문의 종속절이 배경을 표시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이다. 뒤 절은 주절이며, 앞 절인 '我是美国人'에는 접속사 표지가 없으나 논리 관계를 통해 조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 절은 후경이고 뒤 절은 전경이다.

또한 方梅(2008)는 중국어의 양보절(concession)도 배경을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即使)病了, 他也舍不得买药。 (方梅 2008)
아파도 그는 약 사는 것을 아까워했다.

方梅(2008)에 따르면 (6)에서 앞 절은 '即使'를 추가하면 앞 절과 뒤 절이 명확한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접속사를 추가하는 것은 앞 절의 양보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屈承熹(2006)와 方梅(2008)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중국어의 인과문, 조건문, 양보문 등의 종속절들은 모두 후경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인과문, 조건문, 양보문을 규범화해야 한다. 邢福义(2001), V. J. Pan & Paul(2018)의 중국어 복문 범주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본고는 유형론의 시각으로 세 종류의 복문과 관련된 접속사 및 예문을 아래 표에서 제시한다. 다만 중국어 복문에서는 접속사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6.2.2 에서 예문을 분석할 때 접속사를 보완할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종속구조로 판단한다.

〈표6-1〉 중국어 복문의 주요 유형

유형	접속사	예문
인과문	a.因为……, 所以…… b.……, 就(才)…… c.由于……, ……	因为地铁今天罢工, 所以他走路去上班。 我没有时间煮饭, 就去餐厅随便吃了点儿。
조건문	a.如果……就…… b.如果……那么…… c.只要……就……	如果大夫签了字, 李四肯定就已经出院了。 只要打两针青霉素, 你这病就会好。
양보문	a.虽然……但是…… b.即使……也…… c.不管……都…… d.宁可……也……	虽然我们不是朋友, 但我们也不是敌人。 即使他没有钱, 我也要嫁给他。 不管你说什么, 我都要去。 我宁可出家, 也不愿嫁给他。

위에서 언급한 복문 형식 외에도 陈平(1987), 方梅(2008)는 중국어의 '영형식 주어 역방향 조응(小句主语零形反指)' 현상도 주종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a. Oi 愣了半天, 他i问了句：'曹先生没说我什么？"
한참을 멍때린 후 그는 '차오 선생이 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 라고 물었다.
b. 他i愣了半天, Oi 问了句：'曹先生没说我什么？' (方梅 2008)

(7a)는 이 현상에 해당하는 원문이고 (7b)는 변환된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7b)처럼, 앞 절에서 명사나 대명사인 주어가 나타나고 뒤 절에서 그 지시체가 다시 언급되면 영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영형식 주어의 조응대상은 앞의 절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7a)와 같은 순서의 경우, 앞 절의 주어가 영형식이고 뒤 절의 주어는 대명사이다. 이때 영형식 주어의 조응대상은 뒤의 절에서 찾아야 한다.

方梅(2008)에 따르면 (7a)와 같은 절의 기능은 영어의 비한정 동사절(Non-finite clauses)[53]과 유사하다. 이런 절에서 영형식 주어를 가진 절은 종속성이 있지만 내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고는 그 통사적 독립성이 종속절과 유사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예문을 분석할 때 이런 현상도 종속절로 분류시킬 것이다.

종속절 이외에 중국어의 내포절도 후경 정보를 표현한다. 내포구조도 위에서 언급한 주종관계(hypotaxis)의 일종이다. Foley & VanValin(1984), 方梅(2008) 등에 따르면 내포절과 주절의 융합 정도는 종속절보다 긴밀하므로 내포절의 통사적 등급(句法等级)은 종속절보다 낮다. 따라서 종속 관계(subodination)와 내포관계(embedded)는 각 절 간의 내재적 긴밀도에 의해 하나의 연속체를 형

53) 아래 예문처럼 비한정 절에는 시제가 표시되지 않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부차적인 사건을 표현한다.
He left the party and went home, not having anyone to talk to.

성한다.[54]

우선 중국어에 존재하는 몇 가지 내포절 형식을 정리해보자. 본고는 Li & Thompson(1989), 刘丹青(2005), 王春辉(2014), 박향란(2018), 徐式婧(2018) 등이 제시한 내포절 개념과 예시에 근거하여 한 문장 안에 담긴 내포절을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명사절, 관계절, 부사절, 그리고 겸어문의 부차적인 술어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5]

가. 명사절(Nominal Clause)

명사절은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자리에 나타난다. 한국어는 '-음', '-기'를 사용하여 동사의 어미를 바꾸지만, 중국어는 명사 기능을 하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더라도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다(박향란 2018).

(8) a. 孩子们上大学是他们自己的事。 (屈承熹 2006)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다.
b. 我觉得这本书很有意思。
나는 이 책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8a)에서 '孩子们上大学'는 완전한 절로서 내포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Li & Thompson(1989:108-125)은 중국어 문장 앞에 나오는 다양한 성분을 일률적으로 주제(topic)로 보았는데, 이는 내포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

54) Hopper & Traugott(1993/1999:177~178)는 복합문의 세 종류인 대등절, 종속절, 내포절은 문법화 정도에 차이가 나며 대등절의 문법화 정도가 가장 낮고, 내포절의 문법화 정도가 가장 크며 종속절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박향란 2021). 이를 의존(dependent)과 내포(embedded) 등 두 자질을 이용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등절	종속절	내포절
의존	-	+	+
내포	-	-	+

55) 내포절을 논의할 때는 절과 문장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내포절을 포함하는 문장을 내포문이라고 칭한다.

다. 주제 성분은 뒤에 나오는 사건 혹은 상황 발생의 전제나 배경이 되고 서술어는 앞에 출현한 주제에 관한 판단이나 논평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포된 '孩子们上大学'는 후경 정보를 제공한다(屈承熹 2006).

반면에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8b)처럼 동사절 앞에 나타나는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认为, 感到, 觉得, 相信, 断定, 希望, 想'처럼 지각(perception)이나 인지(cognition)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때 목적어는 실제로 화자의 계획적인 발화나 생각인데, 이미 화자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으며 시간적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므로 후경 정보를 나타낸다.

나. 관계절

관계절은 관형어처럼 체언을 꾸며 주고 중심명사와 함께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출현한다. 예를 들어, 'The man that left the house is my father'라는 문장에서 'that left the house'는 관계절이고 'the man'은 주어이자 관계절화된 명사성분(relativized NP)이다. 많은 학자는(Barbara & Thompson 1990, Lugsamee Nuamthanom 2003, Lambrecht 1994, 方梅 2008) 관계절이 후경 정보와 관련 있다고 간주한다. Lambrecht(1994:51)가 사용한 한 예문을 예로 들어보자.

(9) I finally met the woman who moved in downstairs.
나는 드디어 아래층으로 이사 온 여자를 만났다.

Lambrecht 에 따르면 화자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 계단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이웃을 만났다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가 이미 이 사람의 존재 혹은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했다. 만약에 화자가 계단에서 누군가가 걸어가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면 'someone moved in downstairs'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절은 부차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중국어는 '的'를 관계절 표지로 사용한다. '的'로 표시할 수 있는 관계

절의 종류는 많지만[56], 본고는 동사구가 내포된 묘사적 관계절(方梅 2008)만을 고찰할 것이다.

(10) a. 住在南京山西路的王阿姨被儿子和老伴安排了一项特别任务。
남경의 산서로에 사는 왕 아주머니는 아들과 남편에 의해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b. 一向注重家庭温馨的老张, 结婚后从来没有离开家自己一个人过生日。
항상 가정이 온화하기를 바라는 라오장은, 결혼 후에 집을 떠나 혼자 생일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 (方梅 2008)

方梅(2008)에 따르면 (10)의 '住在南京山西路的王阿姨', '一向注重家庭温馨的老张'처럼 '什么样的(어떤)'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관계절은 묘사적이고, '이러한 관계절은 사건에서의 동태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배경 정보에 속한다'(方梅 2008).

다. 부사어절(Adverbial Clause)

영어의 경우 인과문과 양보문 모두 부사어절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말하는 부사어절은 문장 안에서 융합도가 높아 주요 동사와 하나의 주어를 공유하면서 단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刘丹青 2017:16). 다음 예문을 보자.

(11) a. 急得热锅上的蚂蚁似的, 一夜没睡好。
뜨거운 솥 안에 있는 개미들처럼 마음이 급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
b. 身体康复之前, 不要去上班。
몸이 회복되기 전에는 출근하지 말아라. (刘丹青 2017)

전형적인 부사어절은 (11a)처럼 '似的'와 같은 표지를 부가하거나, (11b)처럼

56) 刘丹青(2005)은 형용사를 수식어로 사용하는 '聪明的学生'과 같은 구조도 관계절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구조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시간사 '之前', '之后', '以后', '以前' 등이 따라오는 절이다.[57] 묘사(description)를 하는 것이든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든, 이러한 부사어절은 모두 사건의 종속적인 요소를 표현한다. 그것들은 주절에 비해 부차적인 정보를 나타내므로 Hopper(1979)는 이들이 모두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라. 겸어문의 부차적인 술어

겸어문은 두 개 동사가 연속되어 하나의 단문을 구성한다. 겸어문에서 V1은 일반적으로 '求', '叫', '请', '命令'과 같은 사역의 의미를 지니는 어휘이다. 刘丹青(2005)에 따르면 이런 겸어문은 내포문에 속한다. 의미상 보면, 이러한 문장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사건이다.

(12) 很多人求他帮忙。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12)에는 '很多人求他'와 '他帮忙'이라는 두 개의 부차적인 사건이 내포되어 있다. Wang(2021)에 따르면 V1은 겸어문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그러므로 겸어문은 비대칭적이고 뒤 사건이 후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중국어의 종속구조는 종속절과 내포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담화 분석 관점에서 이 두 구조의 공통점은 자신의 가중치를 낮춰 낮은 통사적 등급으로서 후경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6.2.1.3 BPF 원칙

위에서 우리는 종속구조의 전경-후경 관계를 논술했다. 종속구조, 특히 종속절의 경우 (13a)처럼 논리 관계 표지가 있어 시간적 순서를 위배해도 원래의

57) 匡鹏飞(2012:123)는 조기 현대중국어 문법책에서 시간절을 복문으로 분류했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학자들은 복문 체계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 복문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학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절을 복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미 해석을 방해하지 않는다.

(13) a. 我去中国需要护照, 因为我加入了美国国籍。 (屈承熹 2006)
나는 중국에 갈 때 여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 국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b. 他站起来 C1, 走了过去 C2, 从书架上拿下一本书 C3。
그는 일어나서 걸어간 후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반면에 (13b)와 같이 세 개의 절이 반드시 시간순서 원칙(temporal order)을 준수해야 하는 문단도 있다. 이때 어순이 바뀌면 의미 해석도 바뀌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진다(Labov 1972). 그렇다면 이런 종속관계가 아닌 문장 서열의 전경-후경 구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屈承熹(2006)는 자연언어 텍스트에서 후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별한 표기를 하지 않으면 각 절 간의 결합은 후경에서부터 전경으로 진행되며, 이를 BFP 원칙(Background to forground progression)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13)b 에서 앞 절은 뒤 절의 후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전경과 후경에 대한 Givón(1987:176)의 동태적 관점과 일치한다. Givón 은 어떤 절의 중심 위치는 다른 절과의 관계에 상대적이고, 텍스트의 n 지점에서 위치하는 전경이 n+1 지점 위치에서 후경으로 바뀐다고 간주한다. 즉 (13b)의 경우 C2 는 C1 의 전경이지만 서술의 전개에 따라 C3 의 후경이 된다.

6.2.2 'V+Q+N'과 'V+N+Q'의 후경화 기능 차이

위에서 우리는 종속구조와 비종속구조에서 전경과 후경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위의 논의를 발전시켜 코퍼스에서 'V+Q+N'과 'V+N+Q'의 두 가지 구문의 담화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본고가 추출한 예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V+Q+N’보다 ‘V+N+Q’가 담화에서 배경을 담당하는 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① ‘V+N+Q’가 종속절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② ‘V+N+Q’가 더 쉽게 내포절이 될 수 있다.
③ 종속절과 내포절이 아니더라도 ‘V+N+Q’는 뒤 절에 항상 후행절이 존재한다.

이런 가설을 세운 후, 본 절에서는 제한된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여 두 구문이 후경의 기능을 하는 경향성을 측정할 것이다. 예문 통계 분석을 진행할 때 우선 종속절과 내포절에서 위치한 두 구문의 수량을 계산한 후, 이 두 가지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예문을 제외하고 BPF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비종속관계를 가진 문단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6.2.2.1 종속절과 관련한 양상

우선 예문에서 사용할 표기 부호를 소개한다.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는 ‘___’로 표시한다. 접속사가 없는 경우 인접한 두 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된 접속사는 모두 괄호로 표시한다. 목표 구문인 ‘V+N+Q’나 ‘V+Q+N’는 ‘〰’로 표시한다.

‘V+N+Q’의 경우 대체로 종속절로 쓰이는 경향성이 있지만, ‘V+Q+N’의 경우에는 종속절로 잘 쓰이지 않는다.

우선, ‘V+N+Q’가 종속절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문 분석을 보면 후행절이 있을 때 ‘V+N+Q’가 포함된 절은 일반적으로 종속절이다. 이하에서는 순차적으로 ‘V+N+Q’가 포함된 절이 인과문, 양보문, 조건문의 종속절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 있다.

먼저 ‘V+N+Q’가 인과문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보자.

(14) a. 以前上学时, (因为)他去过克南家一两次, (所以)克南他妈认识他！
(路遥『人生』)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는 커난의 집에 한두 번 가 봤기에, 커난의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았다.

b. 王耀先说: "只要林小姐不嫌我们土气就好啦"! (由于)林雁冬已经见过王耀先两次, 也算是熟人。 (谌容『梦中的河』)
왕야오셴은 '린 아가씨가 우리가 촌스럽다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린옌동은 이미 왕야오센을 두 번 만났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인 셈이었다.

(14a)의 '因为, 所以'와 (14b)의 '由于'는 원문에는 없지만, 이와 같이 추가된다면 두 개의 절에 내재한 논리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V+N+Q' 구조는 양보문의 용례가 가장 많으며, 아래 예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어떤 것은 접속사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어떤 것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논리적인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5) a. 办喜事那天, 尽管长富催请了八舅两次, 但八舅照例去得很晚, 从容不迫, 斯斯文文的。 (张胜利『八舅』)
결혼식을 한 그날 창푸는 여덟 번째 삼촌을 두 번 초청했는데, 여덟 번째 삼촌은 늘 그렇듯 늦게 왔으면서도 태연자약하고 고상했다.

b. 况且伍老板毕竟宠爱小伍一场, 和他断绝父女关系, 她心里能不血淋淋吗？ (严歌苓『一个女人的史诗』)
게다가 우 단장은 한동안 샤오우를 총애했다. 그와 부녀관계가 단절된다면 그녀의 마음은 슬픔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c. 后来我又过徐州一趟, 却听说那位许团长遭了事身陷囹圄。
(尤凤伟『石门夜话』)
나중에 나는 쉬저우에 한 번 갔는데, 쉬 단장이 나쁜 일을 당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다.

d. (虽然)管秀芬恨不能骂郭彩娣一顿, (但)她看见背后许多双眼睛在盯着她望。 (周而复『上海的早晨』)
관슈펀은 궈차이디에 한바탕 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지만, 그녀는

뒤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15)에서 '尽管……, 但……', '况且……, ……', '……, 却……', '虽然……, 但……' 등은 모두 양보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V+N+Q'는 모두 종속절에 위치한다. 'V+N+Q' 구조로 쓰인 절 중 조건문에 속하는 예문은 많지 않다.

(16) 不然, 可以训汤阿英一顿, 好出出她郁结在心头的闷气。
(周而复『上海的早晨』)
아니면 그녀 마음속에 맺힌 답답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탕아잉을 한 번 혼내주자.

(16)의 '不然'은 가정조건문(subjunctive conditionals)을 표시한다. 'V+N+Q'는 조건절에 위치하며 후경정보에 속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과문, 양보문, 조건문 이외에 중국어의 '영형식 주어 역방향 조응' 현상도 주종관계를 나타낸다. 아래에서 'V+N+Q'를 포함하는 예문이 이러한 경우이다.

(17) Oi 陪斗李文武一场, 他 i 回家照样喝酒。 (刘震云『故乡天下黄花』)
그는 사람들을 따라 리운우를 한 번 비판한 후, 집에 가서 평소처럼 술을 마셨다.

(17)에서 '陪斗李文武一场'의 주어는 영형식이고 뒤 절의 주어는 '他'이다. 이때 영형식 주어의 조응 대상은 뒤 절에서 찾아야 한다. 方梅(2008)에 따르면 이때 앞 절은 후경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V+Q+N'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V+Q+N'구조는 'V+N+Q'와는 달리, 전경의 위치에 출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8) a. (因为)从那熟悉的声音里, 她知道是余妈妈, (所以)她嘭嘭地敲了两下余妈妈的门。 (周而复『上海的早晨』)

그 익숙한 소리로부터 그녀는 위씨 아주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위씨 아주머니의 문을 똑똑 두 번 두드렸다.

b. 它们越走越远, 有时(即使)过了两天也不回一次营地。

(迟子建『额尔古纳河右岸』)

그들은 걸을수록 멀어졌다. 때로는 이틀 넘게 숙영지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c. 我多想去北京啊！要是到北京, 我一定要一个星期去逛一次长城。

(戴厚英『人啊人』)

내가 얼마나 베이징에 가고 싶은데! 베이징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만리장성에 갈 것이다.

(18a)에 '因为……, 所以……'를 추가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18b)의 두 번째 절은 축소된 양보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18c)는 '要是'가 있으므로 조건문으로 판단된다. 이 세 예문의 공통점은 'V+Q+N'이 모두 주절에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V+Q+N' 구문이 다른 절의 뒤에 출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경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19) a. 从 1977 年他就想再去看望一次秋文 C1, (因为)他想去探求一下他们俩生活在一起的可能 C2。 (王蒙『蝴蝶』)

1977 년부터 그는 츄원을 한 번 더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는 그들 둘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보고 싶어 했다.

b. 我决定就此不放过, 狠狠地攻击一番父亲 C1, （因为）这种机会不常有 C2。 (朱文『我爱美元』)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심하게 아버지를 비난했는데, 이런 기회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c. 有位王老师家住华苑, 经常喝高了, 一个礼拜得回三趟小海地 C1, 为嘛, 打车打反了 C2。 (话说天下事 2009-06-16)

어느 왕 선생의 집은 화위안에 있는데, 술을 자주 많이 마셔서 일주일에 세 번은 샤오하이디에 돌아가야 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19a)와 (19b)의 C1 절을 통해 'V+Q+N'은 전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C2 절은 '因为'를 추가할 수 있고, 이것이 C1 절의 사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19c)에서 C2 절은 '为嘛'를 통해 자문자답으로 C1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위 예문을 통해 'V+N+Q'는 주로 후경에 나타나고 'V+Q+N'은 전경에 나타난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과 같이 이러한 경향에 배치되는 용례도 있다.

(20) a. 要真能捞个一级英模, 这辈子就算没白来世上一趟。
(张平『十面埋伏』)
만약 정말 일급 모범노동자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번 생에 이 세상에 온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b. 既然仅仅是去看一趟父亲, 为什么要对外公隐瞒实情？
(严歌苓『穗子物语』)
아버지를 뵈러 한 번 갔을 뿐인데, 왜 외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하나?

(20a)는 'V+N+Q'가 주절에서 나타나고, (20a)는 'V+Q+N'이 종속절에서 출현한다. 이런 반례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담화 분석은 어떤 경향성만 고찰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2.2.2 내포된 능력

'V+N+Q'를 포함한 문장이 후경으로 자주 쓰인다는 또 다른 증거는 'V+N+Q'가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나의 문장에서 쉽게 내포된다는 것이다. 우선 'V+N+Q'가 내포되어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되는 예문을 살펴보자.

(21) a. 你来找经理一趟倒是没什么, 就是别动不动就跟人家吵得脸红脖子粗的。
(周而复『上海的早晨』)

당신이 매니저를 한번 찾아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걸핏하면 그들과 얼굴 붉히고 목에 핏대 세우며 싸우지 말아라.

b. 那位老乡决定要说该同学一顿, 期期艾艾地憋了好半天。

(王小波『沉默的大多数』)

그 고향 사람은 그 친구를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말을 더듬으면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21)에서 '你来找经理一趟'은 문장의 주어이고, '要说该同学一顿'은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한다. 'V+N+Q'는 명사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2), (23)과 (24)처럼 관계절, 부사어절, 겸어문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22) a. 每年要往来大陆七、八趟的杜韦德说: '石材业者在台湾开设工厂已无前景, 但做贸易仍有机会。

매년 대륙에 일고여덟 번을 왕래하는 두웨이더는 '석재 업자가 다이완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미 가망이 없지만, 아직 무역의 기회는 있다.'고 말한다.

b. 韩志华回忆道, 教孙子两遍的事情, 有时教了几十遍她还搞不清。

한즈화는 회고하며 말하기를, 손자는 두 번 가르치면 되는 일인데 때때로 수십 번 가르쳐도 그녀는 잘 몰랐다.

(23) a. 安娜见了王贵两次以后就决定断绝关系。 (六六『王贵与安娜』)

안나는 왕궤이를 두 번 만난 이후 관계를 끊기로 했다.

b. 昨天教了小侄子三遍以后, 再指着手机桌面问他是谁, 他都会说, 阿信。

어제 조카를 세 번 가르친 후에 다시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면서 그가 누구냐고 묻자 조카는 아신이라고 말했다.

(24) a. 正在这煎熬着呢, 张干事来喊他去所长办公室一趟。 (徐坤『热狗』)

그는 여기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장 간사는 소장 사무실에 한번 가보라고 그를 불렀다.

b. (费雷)一见倾心, 便叫他的助手找了千姿两次。 (张欣『岁月无敌』)

페이레이는 한 번 보고 반해서, 그의 조수에게 첸쯔를 두 번 찾아가 자기 마음을 전하라고 했다.

(22)의 '往来大陆七、八趟', '教孙子两遍'은 모두 관계절에 있고 중심어를 묘사한다. (23)의 '见了王贵两次', '教了小侄子三遍'은 모두 시간 부사어절에 있고 부차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24)의 주요 동사는 '喊'과 '叫'이고 '去所长办公室一趟', '找了千姿两次'는 모두 VP_2에 있다.

6.2.1.2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사절, 관계절, 부사어절, 겸어문의 VP_2는 모두 후경 정보를 나타낸다. 위 예문을 통해 'V+N+Q'는 하나의 문장에 쉽게 내포되어 전체 사건의 배경 정보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V+Q+N'은 가끔 내포되지만, 용례가 많지 않다. 여기에 'V+Q+N'가 내포된 시간 부사어절이 나타나는 예문을 하나만 들어 보자.

(25) 等杰克布跟世海去了一趟浦东, 詹姆斯已经称新四军为"我们的人"了。
(严歌苓『寄居者』)
제커부가 스하이를 따라 푸둥에 한 번 갔을 때, 제임스는 이미 신사군을 '우리 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6.2.2.3 BPF 원칙의 적용

BPF 원칙에 따르면 한 절 뒤에 후속 절들이 출현하는 경우 앞 절은 자동으로 뒤 절의 배경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종속절이나 내포되는 것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본고가 연구하는 목표 구문이 있는 절에 후속 절의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V+N+Q'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자.

(26) a. 沙当当去过叶家一次, 杂乱的摆设逼仄的空间给她留下了深刻的印象。
(李可『杜拉拉升职记』)
사당당은 예씨 집안에 한 번 가 봤는데, 혼란스럽게 배치된 좁은 공간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b. 彭莉大大嘲笑了刘云一番, 要她无论如何参加。 (皮皮『比如女人』)
펑리는 류윈을 한 번 크게 비웃고, 그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라

고 했다.

c. (她)伸手暗暗捅了刘文彬一下, 怕他没看清楚, 小声说："马鸣！"(冯志『敌后武工队』)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암암리에 류운빈을 한 번 찔렀다. 그가 명확히 못 봤을까 봐 작은 소리로 '마밍!'이라고 했다.

d. 平常遇到没有法子的时候, 就打胡杏一场出出气, 骂她胡诌什么好人坏人。 (欧阳山『三家巷』)
평소 딱히 방법이 없으면 후싱을 한 번 때리면서 화내고, 그녀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혼내라.

(26a), (26b)와 (26c)를 보면 'V+N+Q'가 있는 절 뒤에는 보통 하나 이상의 절이 따라온다. 형태적으로는 'V+N+Q'가 있는 절 뒤에 '。'이 아닌 ', '가 붙어 있으면,[58] 우리는 이 절이 표현하려는 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BPF 원칙에 따라 이 절이 배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두 개의 연속 사건이 있을 때 연속동사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연속동사구문은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원칙을 지킨다. (26d)에서 VP_1인 '打胡杏一场'과 VP_2인 '出出气'는 두 개의 연속 사건이며 단문 속에 위치하지만 그래도 BPF 원칙을 지킨다. 따라서 통계분석을 할 때 연속동사구문의 VP_1도 배경으로 계산한다.

반면에 'V+Q+N'은 전경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27) a. 他们背了语录袋, 上街游了行, 揪斗了两次蒋绣金。
(池莉『你是一条河』)
그들은 어록을 가득 넣은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면서 쟝슈진을 두 번 조리돌림했다.

58) 王洪君・李榕(2014:16)은 서면어 중의 '逗号'가 중국어 담화의 가장 작은 단위(unit)의 운율 표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王洪君(2011)은 담화의 각 단위가 형식적인 경계가 명확하고 모어 화자의 심리적 자연 단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쉼표(逗号)'나 '마침표(句号)' 등은 텍스트에서 의식의 투영이기도 하다.

b. 讲完了，工友们没叫好也没说不好，用些夹带猥亵的言语窝囊一通林黛玉。 (朱春雨『陪乐』)
이야기가 끝난 후 노동자들은 좋다고 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비속어로 린다이위를 한 번 비웃었다.

c. 我一听，噗噗噗地叫苦了半天，就日娘捣老子地骂了一顿王家老三。 (贾平凹『秦腔』)
내가 들어 보니, 심적 고통을 한참 하소연하고 들들 볶으며 왕 씨네 셋째를 한 번 욕했다.

(27a), (27b)와 (27c)에서 'V+Q+N'이 있는 절은 모두 다른 절 다음에 온다. 형태적으로 그 뒤에 마침표가 있으면 전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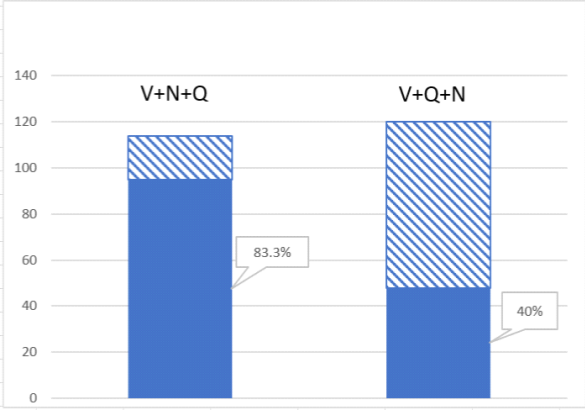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은 'V+Q+N'이 대부분 전경에 나타나지만, 후경에서도 적지 않게 출현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통계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6.2.2.4 종합 통계 결과

본고는 우선, CCL 当代文学 코퍼스를 통해 'V+N+Q' 구문 197 개와 'V+Q+N' 구문 130 개를 추출했다. N 은 식별 가능한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종점 처소 명사이거나 또는 '下'와 결합하는 모든 피행위자이다. 또한, 세 가지 매개변수, 즉 종속구조인지, 내포절인지, 종속구조나 내포절이 아닌 경우 후속절이 있는지(BPF)를 토대로 두 가지 구조가 있는 절의 정보적 지위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초점 연산자를 포함하는 'V+Q+N'과 'V+N+Q' 구문도 후경화되는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점 연산자가 나타나는 예문도 포함하여 통계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그 최종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2〉 두 어순의 후경화 비율

	V+N+Q		V+Q+N	
예문 수	197		130	
종속절	44	22.3%	4	3%
내포절	39	19.7%	6	4.6%
후속절이 있다(BPF)[59]	95	48.2%	48	36.9%
후경화 비율	90.3%		44.6%	



〈그림6-1〉 두 구문이 비 종속구조에서 후경화되는 비율

<표 6-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PF 원칙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V+N+Q'가 후경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V+Q+N'도 36.9% 정도 후경이 되지만 두 구문이 비 종속구조 예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그림 6-1>처럼 'V+Q+N'이 후속 절에 있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반면에 'V+N+Q'가 후경이 되는 예문이 비 종속구조 예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3%나 된다. 따라서 BPF 원칙을 근거로 분석해도 'V+N+Q' 구문이 후경화되는 비율은 'V+Q+N' 구문이 후경화되는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V+N+Q' 구문은 후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더 강하지만, 'V+Q+N' 구문은 이러한 특징이 없고 임의로 전경이나 후경으로 사용된다는

59) 이 결과는 종속절과 내포절을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량구가 식별가능한 목적어와 공기할 때 이를 후경 정보로 설정하려면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V+N+Q'가 더 쉽게 후경화되는 것인가? 이것은 중국어에서 수량구가 한 절의 끝에 출현할 때 전체 절이 독립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胡明扬・劲松 (1989), 胡建华・石定栩(2005) 등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의 어떤 절이 '他吃了饭'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독립되지 못하여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60]. 위 분석을 통해서 'V+N+Q' 는 종속절이나 내포절에 있거나 후속절을 가져야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바로 'V+N+Q'가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동량구뿐만 아니라 시량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

(28) a. ? 我们租用展览室十天。
b. 我们租用展览室十天, 这么点儿钱肯定不够。
우리는 전람실을 열흘 빌렸는데, 이 돈으로는 분명 모자랄 것이다

(28a)에서 알 수 있듯이 시량구는 끝에 있을 때 절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굳이 수량구를 끝에 둔다면 그 뒤에 다른 절을 추가하는 것도 주요한 조절 방식이다. (28a)의 원래 문맥을 복원하면 (28b)와 같다. (28b)는 한 절을 추가하여 문장의 수용성을 높였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동량구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V+N+Q' 구조가 있는 절은 독립성이 낮아 담화에서 종속절이나 내포절로 나타내거나, 후속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담화 차원에서 'V+N+Q'는 의존도가 높고 정보

60) 이것을 중국학계에서는 '完句性'(completeness of sentences)이라고 한다. 다음 예문(1)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며, (2)로 변환되어야 문장이 성립한다.
(1) ? 他吃了饭。
(2) 他吃了饭去找你。

전달에서 주로 후경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6.3 화제의 연속성 차이

6.3.1 화제의 연속성

화제의 연속성(topic continuity)은 담화 분석 중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다. 화제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화제는 다른 층위들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단일 문장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텍스트 한 단락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하다. 전자를 문장 화제라고 하고 후자는 담화 화제라고 한다(方梅 2005).[61] 본장에서 논의하는 화제는 문장 화제가 아닌 담화 화제이다. 이 화제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문두에만 위치할 수 있는 화제가 아니며, 한 문장의 명사성 성분은 일부 텍스트에서 모두 화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문장 층위의 화제를 '주제'라고 칭하고, 담화 화제는 '화제'라고 칭한다.

담화 화제는 텍스트 단락 안에 있는 주요한 담화 대상이다. 우선 예문을 보자.

(29) 母亲喝了茶, Ø 脱了刚才上街穿的袍罩, Ø 盘腿坐在炕上。她抓些铜钱当算盘用, 大点的代表一吊, 小点的代表一百。她先核计该还多少债, Ø 口中念念有词, Ø 手里捻动着几个铜钱, 而后摆在左方。左方摆好, 一看右方过日子的钱)太少, Ø 就又轻轻地从左方撤下几个钱, Ø 心想：对油盐店多说几句好话, 也许可以少还几个。Ø 想着想着, 她的手心上就出了汗, Ø 很快地又把撤下的钱补还原位。 (方梅 2005)
어머니께서는 차를 마신 후, 방금 외출했을 때 입었던 두루마기를 벗고 온돌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녀는 동전 몇 개를 집어 들고 주산

61) '화제의 연속성'에 관련한 한국어 번역은 정소영(2020)이 번역한 方梅『篇章语法与汉语研究』에 수록된『최신 언어이론과 중국어연구』(刘丹青 편저, 최재영, 김윤정 외 옮김, 한국문화사)를 참조.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큰 동전은 일조(1000 개의 엽전을 한 꾸러미로 꿰어놓은 것)라고, 작은 동전은 100 개라고 쳤다. 그녀는 우선 얼마나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를 확인한 후, 입으로는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고 왼쪽에 놓았다. 왼쪽에 놓은 후에는 오른쪽(생활비)에 있는 돈을 보고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왼쪽에 있는 동전을 몇 개 가져왔다. 마음속으로 기름과 소금 파는 집에 몇 마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빚을 조금은 덜 갚아도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왼쪽에서 가져왔던 동전 몇 개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方梅(2005)에 따르면 담화 중 개념을 언급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담화대상이 텍스트에 도입된 이후 위의 예문 중의 '母亲'처럼 후속 절들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 아래 예문(29) 중의 '袍罩', '炕', '油盐店' 등처럼 한 번 나온 후 담화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Givón(1983)은 일찍이 화제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화제의 연속성이란, 한 화제 성분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범위를 가리킨다. 화제의 연속성을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한 명사성 성분의 조응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Hinds 1983, Brown 1983). Givón(1983)은 이 방법을 감소성(Decay)이라고 부른다. Givón 은 한 지시체가 나타난 후 그 뒤의 텍스트를 분석하면 이 지시체의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화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조응 빈도를 통해 화제의 강도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지시체가 그 뒤 텍스트에서 조응 빈도가 높을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조응 빈도가 낮으면 그 지시체의 화제성은 떨어진다.

위의 예문에서 '母亲'은 진술의 주요 대상이다. 첫 번째 나타나는 명사 형식을 참조점으로 삼았고, 그 뒤의 텍스트에는 대명사 '她'가 3 번, 영형식이 8 번 등 총 11 번 언급되기 때문에 '母亲'은 화제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은 우발적인 정보이며 화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Givón(1983)에 따르면 조응 빈도를 계산할 때 주로 주어, 목적어 및 소유격

(genitive)에 위치하고 논항에 속하는 성분들을 분석한다. 조응 형식에는 영형식 지칭, 대명사 및 명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어에서 명사의 조응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徐赳赳(1999)에 따르면 완전히 같은 형태, 부분적으로 같은 형태, 그리고 '다른 형태이지만 같은 의미인 형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6.3.2 목적어의 화제 연속성 차이

우선 본 절의 논의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해야 한다. 본장에서 주로 분석하는 목적어는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과 종점 처소 목적어이지만 이러한 성분들은 화제 연속성의 차원에서 다르게 표현된다. Brown(1983)이 영어 서면어를 분석한 결과 무정 지시체의 화제 연속성이 유정 지시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장에서 수집한 예문을 분석할 때도 'V+Q+N' 구문이든 'V+N+Q' 구문이든 처소 목적어의 조응 빈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텍스트에서 처소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보조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본 절은 화제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구문의 유정 피행위자와 유정 대상의 표현 차이를 고찰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V+N+Q' 구문에서 대부분 N은 아래 예문과 같이 조응 빈도가 높다.

(30) 我今天好好教训了**亚平妈妈**一顿, **死老太婆**想在我家逞威风, Ø 让我家女儿给她当丫头使, Ø 口蜜腹剑, Ø 说两个孩子都亲, 同等看待, Ø 为什么不叫她家亚平干活, Ø 就培养我女儿? Ø 还口口声声说出力气的活她儿子干, 什么叫力气? 现在哪里还用得到力气?…… (六六『双面胶』)

나는 오늘 야핑의 엄마를 한 번 제대로 혼냈다. 죽어 마땅한 이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거드름을 피우려 하면서, 내 딸을 자기 하녀처럼 부렸다. 그녀는 말은 달콤하게 하면서 속으론 늘 남을 해칠 생각만 하고, 두 아이 모두 아끼고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기 아들 야핑에게는 일을 안 시키고 내 딸만 일을 시키는가? 게다가 말끝마다 힘쓰는 일은 자기 아들이 한다고 했다. 힘쓰는 일은 무슨? 요새 힘쓸 일이 어디 있나?

(30)을 보면 N 인 '亚平妈妈'가 등장한 이후 총 9 번의 조응이 나타났다. 그 중 명사 형식은 1 회, 영형식은 6 회, 대명사는 2 회이다. 그리고 주어 위치에 있는 조응이 7 회, 전치사 목적어는 1 회, 속격 위치에 있는 조응은 1 회이다.

그러나 'V+Q+N' 구문에서는 N 의 조응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1) 我见过一次他(许立宇)**二哥的未婚妻**, **那**是个黄瘦干枯、毫无姿色的青年妇女。我对与许立宇家人打照面极不舒服, 对许立宇的殷勤款待, 诸如沏咖啡、开洋酒之类的举动更不舒服。我毫不容情地拒绝了留在他家吃饭。许立宇的虚荣是显而易见的, 尽管他把浮浪子弟的玩世不恭学得维妙维肖。他偶尔会在沉默良久之后漫不经心地开口道, 他今天拉了某一位影视界的红星……" (王朔『许爷』)

나는 그의 둘째 형 약혼자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녀는 삐쩍 마르고 하나도 예쁘지 않은 젊은 여자였다. 나는 쉬리위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커피를 타고 양주를 까는 것 같은 쉬리위의 은근한 접대 행위는 더 불편했다. 나는 가차 없이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을 거절했다. 쉬리위가 있는 집 자식들의 세상을 업신여기는 불손한 태도를 잘 흉내 내기는 했지만, 그의 허영은 뻔히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 한참 동안 침묵한 후 무심한 척 오늘 어떤 영화계의 스타를 태웠다고 말했다……

(31)에서 N 인 '二哥的未婚妻'는 뒤 텍스트에서 한 번의 조응이 있었으며, 등장하자마자 텍스트에서 사라져 화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상의 가설에 기초하여, 본고는 모든 검토한 예문 중 N 의 조응 빈도에 대한 통계 작업을 진행했다. 조응의 형식은 영형식 조응, 대명사와 명사 등의 형식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조응이 있는 위치는 주어와 목적어(전치사 목적어 포함), 그리고 속격 위치를 모두 포함한다. 계산 거리는 N 이 있는 절을 제외하고 그 뒤에 출현하는 10 개의 절까지 한정하였다.[62]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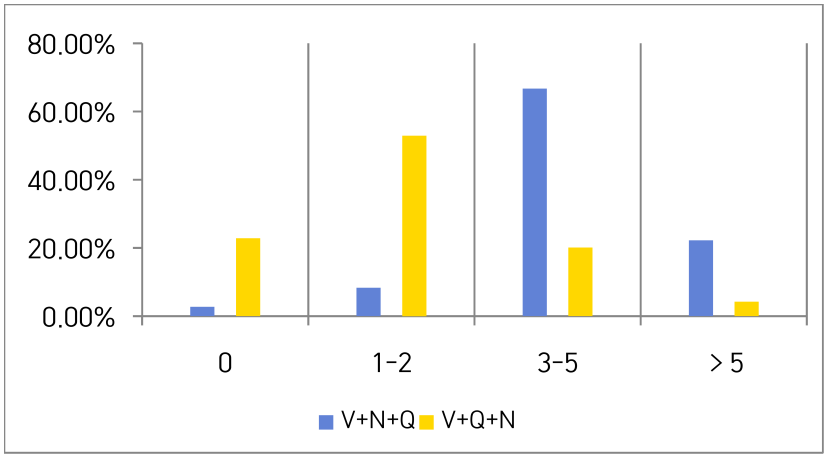
62) Brown (1983)이나 乐耀・陆筠怡(2023) 등의 연구에서도 조응 빈도를 측정할 때 10 개의 절을 설정했다.

〈표6-3〉 두 구문 중 유정 목적어의 조응 빈도

조응 횟수	V+N+Q		V+Q+N	
0	3	2.7%	16	22.8%
1-2	9	8.3%	37	52.9%
3-5	72	66.7%	14	20.1%
>5	24	22.2%	3	4.2%
예문 총계	108	100%	70	100%
N의 평균 조응 빈도	4.27		1.77	

통계적으로 보면 'V+N+Q' 구문에서 N 의 평균 조응 횟수는 4.27 인 반면, 'V+Q+N' 구문에서 N 의 평균 조응 회수는 1.77 에 불과했다. 'V+N+Q' 구문에서 N 의 평균 조응 횟수는 'V+Q+N' 구문보다 현저히 많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V+N+Q 에서 N 의 평균 조응 빈도는 주로 3~5 회인 구간에 있다. 반면 V+Q+N 에서 N 의 평균 조응 빈도는 1~2 회인 비율이 가장 높다. 이것은 <표 6-3>의 통계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6-2〉 두 구문에서 N의 평균 조응 빈도 분포 대조

N 의 조응 빈도가 높다는 것은 'V+Q+N'에 비해 'V+N+Q' 구문에서 N 의 화제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정보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사실 N 의 화제 연속성과 N 의 심적 표상은 목표 구문을 관찰하는 두 개의 차

원이다. 두 구문에서 N의 심적 표상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고려할 때, 목표 구문에서 N 기준 역방향으로 N과 그의 선행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또한 화제의 연속성을 분석할 때는 목표 구조에서 N을 기준으로 그의 후속 텍스트에서 N이 언급된 횟수를 계산했다. 제 4 장에서 본고는 'V+N+Q' 구문에서 N은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성과 활성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발화 당시 N이 화자의 의식에 있어서 이러한 활성화 상태도 일정 구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V+N+Q'의 N이 담화의 화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V+Q+N'에서 N은 일부 텍스트에서 대체로 중요하지 않고 가끔 등장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후속 텍스트에서 화자가 관심 있는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다.

근접적 도상성(distance iconicity) 원칙에 근거하여 'V+N+Q' 구문의 N이 상대적으로 강한 화제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동사는 발화 시에 원형적 화자(prototypical speaker)의 의식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N의 위치가 동사에 가까울수록 인지적으로 존재감이 더 두드러지고, 담화 화제가 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된다.

6.4 소결

본장은 주로 담화 분석 차원에서 '전경-후경'과 '화제 연속성'이라는 두 시각으로 두 구문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했다.

'전경-후경'은 담화에서 한 절을 다른 절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가중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두 구문이 각각 위치한 절의 정보 위치를 대조하고 분석했다. 'V+N+Q' 구문은 후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더 강한 한편, 'V+Q+N' 구문은 이러한 특징이 없고 임의로 전경이나 후경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은 종속절과 내포절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동량구가 식별가능한 목적어와 공기할 때, 이를 후경 정보로 설정하려면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제의 연속성은 주로 어떤 명사성 성분이 일부 텍스트 안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다. 본고가 관심을 두고 고찰한 부분은 두 구문의 N이 나타난 후 그것이 후속 텍스트에서 진술과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V+Q+N’에 비해 ‘V+N+Q’ 구문에서 N(유정 피행위자나 유정 대상)은 후속 텍스트에서 다시 언급될 확률이 더 높고 화제 연속성도 더 강하다. 이것은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텍스트 안에 화자가 목적어인 N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N을 Q 앞에 두는 어순을 더 선호함을 의미한다.

위 분석은 담화 요소가 통사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 분석은 통사 또는 의미 분석처럼 경계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본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구문이 담화 차원에서 드러내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경향성은 어순 결정에 참여하는 기제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결론

현대중국어에서 동사 뒤에 동량구와 명사성 성분인 목적어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V+Q+N'과 'V+N+Q' 등 두 가지 어순으로 쓸 수 있다. 본고는 'V+Q+N'과 'V+N+Q' 등 두 가지 어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의 결정적인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담화 분석 등 측면에서 고찰했다. 본고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어떤 상황에서 두 어순이 모두 사용 가능한가?

나.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어순만 사용할 수 있거나 한 가지 어순만 선호하는가?

다. 두 어순의 정보구조 차이와 담화 기능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본고는 이 문제들의 답을 찾기 위해 두 어순의 통사구조부터 명확히 정리하였다. 통사적 차원에서 'V+Q+N' 구조의 동량구는 유동적이다. 어떤 동량구는 V 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 보어로 인식할 수 있고, 어떤 동량구는 N 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여 관형어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어떤 동량구는 중간 지대에서 모호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동량구의 실제 모습은 보어에서부터 관형어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건명사류와 특정 동량구가 결합한 구조에서 N 은 사건명사이고 Q 는 관형어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순이 고정적이고 변화할 수 없다. 'V+N+Q' 구조의 경우에는 '一+동량사'가 허화가 되었다면 동량구의 기능은 '동상보어'이고, 그 밖에 동량구는 모두 일반적 보어로 간주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치면 동량구는 모두 보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위에 제시한 일련의 연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역 차원에서 유정 피행위자, 유정 대상 그리고 종점 장소 의미역들은 ‘사건외’ 동량구와 공기하면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역들은 동량구의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 한편 동량사가 ‘下’인 경우 피행위자 목적어가 유정이든 무정이든 상관없이 두 가지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역들은 동량구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역이 ‘V+N+Q’의 어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타동성 등급임을 증명하였다. 즉 어떠한 의미역이 동량구와 결합하는 경우, 의미역의 타동성 등급이 일정 정도가 되어야만 동량구 앞에 출현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통시적인 언어 변화를 고찰한 후, 장소명사 중 종점장소명사만 동량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V+N+Q’ 구문의 변화 과정에서 대상 명사부터 종점장소명사까지 환유 기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둘째, 정보구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부 의미역이 두 가지 어순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모어 화자가 발화할 때 한 어순을 채택하고 다른 어순은 배제하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제 4 장과 제 5 장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담화 지시체 심적표상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변이는 N 의 심적 표상 상태에 의해 제한된다. ‘V+N+Q’ 어순은 N 의 확인가능성이나 활성화정도가 높을 것을 요구한다. 반면 ‘V+Q+N’ 어순은 N 이 상대적으로 확인불가능하거나 활성화정도가 낮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적 표상이 동일한 N 이 두 어순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초점구조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동일한 진리값을 가진 두 구문이 서로 다른 초점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립적 문맥에서 ‘V+Q+N’이 속하는 문장의 자연초점은 N 에 있지 않으며, 그의 기본 초점구조가 서술어초점이다. 이때 화자의 주요 의도는 주제에 대한 논평 또는 사실의 발생을 진술하는 것이다. 이 구조가 나타내는 사건은 진술의 일환이자 전후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V+Q+N’은 무표적인 초점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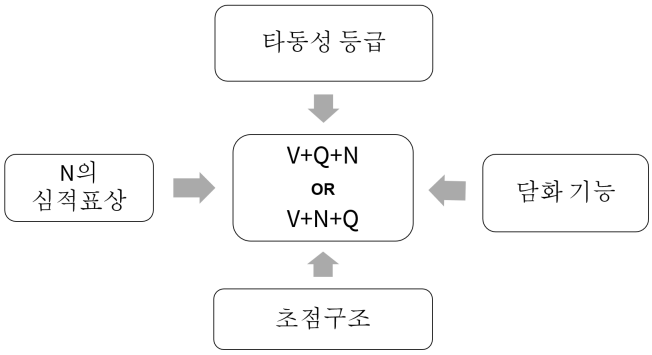
‘V+N+Q’는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초점구조이다. 화자가 사건이나 동작의 횟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할 때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싶을 때, 동량구를 문말에 놓고 강세를 부여하며 초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초점 영역이 단 하나의 성분에 있어 전체 문장의 초점구조는 논항초점이다. 그러나 Q 가 허화된 성분이라면 초점 영역이 전체 서술어로 확장되어 서술어초점이 된다.

두 구조에서 초점 연산자가 나타나는 경우 본고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특별한 초점 책략을 취하는 문장으로 본다. 이때 동량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관계없이 초점 연산자는 항상 동량구와 관련되어 해당하는 문장은 논항초점을 형성한다.

셋째, ‘전경-후경’은 담화에서 한 절을 다른 절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가중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두 구문이 각각 있는 절의 정보 위치를 대조하고 분석했다. ‘V+N+Q’ 구문은 후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V+Q+N’ 구문은 이러한 특징이 없고 임의로 전경 혹은 후경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은 종속절과 내포절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동량구가 식별 가능한 목적어와 공기할 때 이를 후경 정보로 설정하려면 ‘V+Q+N’ 구문보다 ‘V+N+Q’ 구문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제의 연속성은 주로 한 명사성 성분의 일부 텍스트 안에서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다. 본고가 관심을 두고 고찰한 부분은 두 구문의 N 이 나타난 후 그것이 후속 텍스트에서 진술과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V+Q+N’에 비해 ‘V+N+Q’ 구문에서 N(유정 피행위자나 유정 대상)은 후속 텍스트에서 다시 언급될 확률이 더 높고 화제 연속성도 더 강하다. 이는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텍스트 안에 화자가 목적어인 N 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N 을 Q 앞에 두는 어순을 더 선호함을 뜻한다.

위에서는 연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결론을 나열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한 어순의 출현이 반드시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화자의 언어 산출에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래 그림은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기제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한 어순이 산출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동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림7-1〉 어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본고는 각 장의 관련 부분에서 인지 언어학의 시각으로 어순 배열 결정에 작용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인지 기제를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종합하여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에 영향을 주는 인지 기제들을 다음과 같이 귀납할 것이다.

첫째, 도상성 원칙은 여러 요소의 작동 기제를 설명할 수 있다. 도상성 원칙에 따르면 언어 기호의 배열 순서는 실제 개념 세계를 반영한다. 형식과 의미 간의 일대일 대응 관계는 통사 범주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Haiman(1980)에 따르면 표현 간의 거리는 그들이 표현하는 아이디어 간의 개념적 거리에 상응한다.

거의 모든 의미역이 'V+Q+N'에서 출현할 수 있으나, 타동성 등급이 높은 특정 의미역만이 'V+N+Q'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타동성 등급이 높을수록 동사와 목적어 간의 의미 관계가 더 긴밀하다. 그리고 의미의 긴밀성은 거리상의 근접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동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의미역이 해당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또한 정보구조의 배치도 도상성 원칙과 관련이 있다. 'V+Q+N'에 비해

‘V+N+Q’는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구조이다. 즉 ‘V+N+Q’는 N 의 확인가능성이나 활성화정도가 높을 것을 요구한다. N 의 식별가능성과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것이 원형적 화자의 의식 중심에 더 가깝다. 따라서 근접적 도상성에 따르면 이러한 명사성 성분은 통사적 서열에서 우선 확립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언어는 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건에 관련된 지시 대상이 한 문장의 앞자리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심적 표상 상태를 빨리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 기술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인지는 이산적이기보다는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여러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념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V+Q+N’의 통사구조를 판단할 때 기존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본고는 동량구의 실제 모습을 보어에서부터 관형어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연속체로 보았다. 정보구조 분석에서 ‘한정-비한정’의 이분화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확인불가능한 지시체에서부터 확인가능한 지시체까지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한다는 전제하에, N 이 한 통사적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이분화된 결과가 아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두 구문에 대한 담화 분석 또한 이 이념에 근거해서 ‘V+Q+N’에 비해 ‘V+N+Q’이 후경에 속하는 것은 일종의 경향성이라고 판단했다.

요약하면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문제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 연구는 주로 한 각도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본고는 통사구조 분석에 기반하여 의미, 화용, 담화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일련의 결정적 기제를 밝혔다. 특히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 분석, 초점구조 분석과 담화 기능 분석 등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기존의 구문 연구들 중 대부분은 구문 안에 있는 각 요소 간의 관계 분석, 구문 의미의 요약, 구문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문 변이의 기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여 구문 안에 위치하는 고유한 요소와 구문 밖에서 유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어 구문 변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시각과 결과가 중국어 교육 현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고석주・김현강・박용한・서승현・손희연・이병규・황선영 역(2000),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Lambrecht Knud, 1994), 서울: 월인.

김현철・신수영・이옥주・전기정 역(2019), 『대조분석과 중국어교육』 (陈俊光, 2007), 서울: 차이나하우스.

박원기・강병규 역(2018), 『구문화와 구문변화』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Graeme Trousdale, 2013), 서울: 학고방.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역(2001), 『표준중국어 문법』 (Charles N. Li and Sandra A. Thompson, 1989), 서울: 한울아카데미.

이성하(1998),『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陈前瑞(2003),『汉语体貌系统研究』, 武汉: 华中师范大学.

崔希亮(2004),『语言理解与认知』,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戴耀晶(1997),『汉语时体系统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戴宗杰(2016),『缅藏语组语言动量词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冯胜利(1997),『汉语的韵律、词法与句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冯胜利(2001),『韵律句法学』,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金立鑫(2017),『语言类型学探索』, 北京: 商务印书馆.

金桂桃(2007),『宋元明清动量词研究』,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陆丙甫(1993),『核心推导语法』,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屈承熹(2006),『汉语篇章语法』,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沈家煊(1999),『不对称和标记论』,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吕叔湘(1942/2018),『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吕叔湘(1979),『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商务印书馆.

刘丹青(2008),『语法调查研究手册』,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刘月华等(2001),『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刘世儒(1965),『魏晋南北朝量词研究』, 北京: 中华书局.
马庆株(1992),『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任鹰(2000),『现代汉语非受事宾语句研究』, 北京: 社会科学文学出版社.
石毓智・李讷(2001),『汉语语法化的历程——形态语法发展的动因和机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孙天琦(2019),『现代汉语非核心论元实现模式及允准机制研究』, 上海: 中西书局.
邢福义(2001),『汉语复句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徐烈炯(1990),『语义学』, 北京: 语文出版社.
徐烈炯・刘丹青(1998),『话题的结构与功能』,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许余龙(2004), 『篇章回指的功能语用探索: 一项基于汉语民间故事和报刊语料的研究』,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徐枢(1985),『宾语与补语』, 哈尔滨: 黑龙江人民出版社.
袁毓林(2012),『汉语句子的焦点结构和语义解释』, 北京: 商务印书馆.
张敏(1998),『认知语言学与汉语名词短语』,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张赪(2010),『汉语语序的历史发展』,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张云秋(2004),『现代汉语受事宾语句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朱德熙(1980/2014),『现代汉语语法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朱德熙(1982),『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左思民(2014),『语言规律探索集』, 北京: 世界图书出版公司.
周士宏(2020),『汉语句子信息结构的类型学研究』,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Adele, Goldberg(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lexandra, Y. Aikhenvald(2000), *Classifi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innick, Robert(1991), *Time and the verb: A guide to tense and aspe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G.& Yule, G.(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oan L., Perkins, R. &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rlota, S. Smith(1997),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Chao, Yuan Ren(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roft, William (2002),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kkehard, König(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Givón, Tamly(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3.),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Givón, Tamly(1995), *Functionlism and grammar*, Amsterda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English Language Series), London: Longman.

Hawkins, J. A. (1983), *Word order universals*, New York: Academic Press.

Javier, Rivas(2004), *Clause structure typology: Grammatical relation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Lugo: Tris Tram.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yons, John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Bride-Chang, C. (2004),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 London: Arnold.

Ronald, W. Langacker(1987/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s 1 & 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omlin, Russell(1987),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Amsterdam: Benjamins.

Seppo, Kittilä(2002), *Transitivity: Towards a comprehensive typology,* Turun: University of Turku.

Traugott, Elizabeth C.& Graeme, Trousdale(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Truswell, Robert (2019), *Event composition and event individu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Event Stru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llace, L.Chaf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Chicago: Univ. Chicago of Press.

Wierzbicka, Anna(1988), *The semantics of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Yeh, Meng(2014), *The experimental Guo in Mandarin: A quantificational approach*,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2. 논문류

김민국(2021),「한국어 정보구조의 초점」,『한국어학』91권, 1-50.

김영민(2009),「현대중국어 ‘V+一下’의 의미 기능 연구」,『中国语文学论集』54호, 213-232.

박정구(2010),「구별사의 분석을 통한 중국어 품사의 전형성에 대한 기능적, 동태적 고찰」,『중국문학』62집, 265-290.

박정구(2021),「한・중 언어를 통해 본 정보구조 분석의 몇 가지 논점」, 제15회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전국학술대회.

박정구・이명숙・유수경(2022),「현대중국어 논항 생략 계사문의 정보구조 ― ‘我就是’, ‘就是我’ 형식을 중심으로」,『中国言语研究』100집, 109-138.

박정구(2022),「정보구조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부사 중의문의 특성― ‘就’, ‘才’,

'都', '也'가 쓰인 구문을 중심으로」,『중국학보』101집, 55-85.

박은석(2014),「현대중국어 사동문과 타동성」,『언어와 정보 사회』21집, 83-111.

박철우(2014),「'대조' 의미의 언어학적 성격: 정보구조와 관련하여」,『한국어 의미학』45호, 129-157.

박향란(2016),「중국어 동량사 구문의 어순변이에 대한 통시적연구」,『한중언어문화연구』42권 42호, 89-106.

박향란(2018), 「고대중국어 내포문 구성에 대한 논의」, 『중국어문학』 79권, 28-307.

백은희(2005),「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中国语文学志』17집, 551-572.

백은희(2015),「중국어 담화 지시체의 인지범주와 형식적 구현」,『中国言语研究』58집, 27-48.

신준호(2009),「현대중국어 수량사구의 양화현상」,『중국어문논총』43집, 175-192.

성기은(2012),「'進一次城' 중 동량구 '一次'의 성분 검토」,『中国语文学论集』74호, 191-215.

소영(2014),「신체부위류 차용동량사 어법화정도에 대한 고찰」,『中国言语研究』51집.

이옥주(2007),「표준중국어 초점 실현에 관한 연구-음향적 초점 표지와 초점 표지 是를 중심으로」,『中国语文学志』23집, 253-276.

임동훈(2012),「'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국어학』64집, 217-271.

金铉哲・崔桂花(2017),「一拳VP'를 통해 살펴 본 '一量VP'의 발생기제 연구」,『中国语教育과 연구』25호, 101-126.

金铉哲・林秀京(2019),「현대중국어 'N+一下'의 의미 기능 연구 —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中国语文学论集』114호, 103-129.

金铉哲・彭静(2016),「好好儿+的+一+量+NP构式分析」,『中国语文学论集』98호, 103-117.

金铉哲・张进凯(2017),「V/A+一+Nm+X 구문 Nm의 인지적 연구」,『中国语文学论集』103호, 45-70.

王贝贝(2022), 「论动量短语与宾语共现时的句法构造」, 『중국문학』 110집, 423-442.

왕베이베이(2021), 「중국어 연속동사 구문의 유형론적 고찰」, 『언어유형론연구』제6권, 25-58.

왕베이베이(2022), 「정보구조 관점에서 본 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 제약 — 동량사 '次'를 중심으로」, 『中国言语研究』 100집, 191-216.

崔希亮(2019), 「汉语语气词"~嘛"的情态意义」,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60-68.

陈平(1987), 「释汉语中与名词性成分相关的四组概念」, 『中国语文』 第2期, 81-92.

陈平(1988), 「论现代汉语时间系统的三元结构」, 『中国语文』 第6期.

陈莉・潘海华(2008), 「现代汉语"不"和"没"的体貌选择」, 『语法研究与探索』第14卷, 商务印书馆.

陈小明(1995), 「方式宾语初探」, 『天津师大学报(社会科学版)』 第2期, 76-80.

储泽祥(2001), 「"名+数量"语序与注意焦点」, 『中国语文』 第5期, 411-417.

大河内康宪(1988), 「量词的个体化功能」, 『汉语学习』 第6期, 8-13.

戴耀晶(1993), 「现代汉语短时体的语义分析」, 『语文研究』 第2期, 51-56.

董秀芳(2003), 「无标记焦点和有标记焦点的确定原则」, 『汉语学习』 第2期, 10-16.

端木三(1999), 「重音理论和汉语的词长选择」, 『中国语文』 第4期, 246-254.

端木三(2007), 「重音、信息和语言的分类」, 『语言科学』 第5期, 3-16.

方梅(1993), 「宾语和动量成分的语序」, 『中国语文』 第1期, 54-64.

方梅(1995), 「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 『中国语文』 第4期, 279-288.

方梅(2005), 「篇章语法与汉语篇章语法研究」, 『中国社会科学』 第6期, 165-172.

方梅(2008), 「由背景化触发的两种句法结构 — 主语零形反指和描写性关系句」, 『中国语文』 第4期, 291-303.

冯胜利(1996), 「论汉语的韵律结构及其对句法构造的制约」, 『语言研究』 第1期, 110-129.

冯胜利(1998), 「论汉语的"自然音步"」, 『中国语文』 第1期, 40-47.

高亚楠・吴长安(2014), 「从显赫词类的扩张性看量词“趟”的语法化历程」, 『古汉语研究』第2期, 41-46.

黄正德(2008),「从“他的老师当得好”谈起」,『语言科学』第3期, 225-241.

何杰・何平(1996),「现代汉语量词的转义现象」,『南开学报』第5 期, 14-25.

韩蕾(2007),「事件名词与量词的选择关系——以含有语素“雨”的名词为例」,『华东师范大学学报』第3期, 64-68.

胡明扬・劲松(1989),「流水句初探」,『语言教学与研究』第4期, 42-54.

胡建华・石定栩(2005),「完句条件与指称特征的允准」,『语言科学』第5期, 42-49.

蒋湘平(2015),「“VV”和“V一下”的语义及句法差异」,『汉语学习』第4期, 50-57.

金立鑫(2009), 「解决汉语补语问题的一个可行性方案」,『中国语文』 第5期, 387-398.

江雨馨・岳岩(2018),「常规宾语对非常规宾语的影响与限制」,『现代语文』第9期, 25-29.

匡鹏飞(2012),「现代汉语时间复句研究述评」,『长江学术』第3期, 123－129.

李湘(2011),「从实现机制和及物类型看汉语的“借用动量词”」,『中国语文』第4期, 313-325.

李兴亚(1980),「宾语和数量补语的词序」,『中国语文』第3期, 171-175.

李强・袁毓林(2016),「量词“场”的事件量化功能分析」,『语言研究』第4期, 1-9.

李建平(2003),「唐五代动量词初探」,『泰山学院学报』第4期, 89-93.

李建平(2013),「也谈动量词“顿”产生的时代及其语源 —— 兼与王毅力先生商榷」,『语言研究』第1期, 49-51.

李临定(1983),「宾语使用情况考察」,『语文研究』, 31-38.

李宇明(1997), 「汉语语法“本位”论评———兼评邢福义“小句中枢说”」, 『世界汉语教学』第1期, 16－23.

李旭平(2020),「汉语动宾间时量和动量成分性质再探」,『外国语』第2期, 39-51.

乐耀・曹华承(2023),「汉语书面叙事中主语的指称形式和篇章功能」,『汉语学报』第1期, 2-15.

乐耀・陆筠怡(2023), 「话题连续性测量的两个维度: 可及性和重要性」, 『世界汉

语教学』第1期, 29-41.
廖秋忠(1987a),「“篇章分析”介绍」,『国外语言学』第4期, 156-160.
廖秋忠(1987b),「“篇章语言学导论”简介」,『国外语言学』第2期, 66-69.
廖秋忠(1991),「篇章与语用和句法研究」,『语言教学与研究』第4期, 16-44.
刘承峰・陈振宇(2007),「现代汉语“语用数”的种类及其确定」,『东方语言学』 第1期, 93-103.
刘 辉(2008),「动量短语作定语及相关类型学考察」,『东方语言学』第1期, 82-89.
刘街生(2003),「现代汉语动量词的语义特征分析」,『语言研究』第2期, 51-55.
刘丹青(2005),「语法调查与研究中的从属小句问题」,『当代语言学』第3期, 193－285.
梁银峰(2005),「汉语动相补语“来”、“去”的形成过程」,『语言科学』第6期, 27-35.
满在江・宋红梅(2004), 「论现代汉语中自然焦点的句法位置」, 『外语研究』 第5期, 24-27.
孟庆海(1987),「原因宾语和目的宾语」,『语文研究』第1期, 20-26.
潘海华(2006), 「焦点、三分结构与汉语“都”的语义解释」, 『语法研究和探索』 第13卷, 163-184.
潘文(2003), 「论存现句的性质和范围」, 『连云港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第3期, 7-10.
朴正九(2016),「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中国语文』第4期, 387-396.
宋 柔(2013),「汉语篇章广义话题结构的流水模型」,『中国语文』第6期, 483-494.
祁峰(2013),「汉语焦点的类型及其相关问题」,『汉语学习』第2期, 31-42.
邵敬敏(1996), 「动量词的语义分析及其与动词的选择关系」, 『中国语文』 第2期, 100-109.
沈家煊(1995),「“有界”与“无界”」,『中国语文』第5期, 367-380.
沈家煊(1999),「转指与转喻」,『当代语言学』第1期, 3-15.
石定栩(2000),「汉语句法的灵活性和句法理论」,『当代语言学』第1期, 18-26.
石定栩(2006),「动词后数量短语的句法地位」,『汉语学报』第1期, 51-58.

唐钰明(1990),「古汉语动量表示法探源」,『古汉语研究』第1期, 71-73.

谭景春(1995),「材料宾语与工具宾语」,『汉语学习』第6期, 28-30.

陶红印(2000),「从“吃”看动词论元结构的动态特征」,『语言研究』第3期, 21-38.

王静(2001),「“个别性”与动量成分和名词的语序」,『语言教学与研究』第1期, 48-54.

王春燕(2008),「《红楼梦》中的量词“一场”探析」,『大庆师范学院学报』第3期, 85-88.

王文颖(2018),「“是……的”句的两种焦点结构」,『语言教学与研究』第5期, 43-54.

王咸慧(2021),「语气词“嘛”背景信息共识化功能初探」,『中国语文』第6期, 682-690.

王毅力(2011),「动量词“顿”的产生及其发展」,『语言研究』第3期, 71-74.

王洪君(2011),「汉语语法的基本单位与研究策略(作者补记)」,『基于单字的现代汉语词法研究』, 商务印书馆.

王洪君・李榕(2014), 「论汉语语篇的基本单位和流水句的成因」, 『语言学论丛』第49辑, 11-40.

吴怀成(2011),「动量词与宾语的语序选择问题」,『汉语学报』第1期, 56-61.

吴福祥(1998), 「重谈“动+了+宾”格式的来源和完成体助词“了”的产生」, 『中国语文』第6期, 452-462.

邢福义(1995),「小句中枢说」,『中国语文』第6期, 420-428.

玄玥(2002),「焦点问题研究综述」,『汉语学习』第4期, 35-43.

谢晓明・谷亚丽(2009),「方式宾语的鉴定模式及其典型性考察」,『语言研究』第2期, 47-52.

徐烈炯(2002),「汉语是话语概念结构化语言吗?」,『中国语文』第5期, 400-410.

许余龙(2007),「话题引入与语篇回指 —— 一项基于民间故事语料的英汉对比究」,『外语教学』第6期, 1-5.

相原茂(1984),「数量补语“一下”」,『汉语学习』第4期, 20-31.

徐赳赳 & Jonathan J. Webster(1990),「叙述文中名词回指分析」,『语言教学与研究』第4期, 92-109.

袁毓林(2018), 「汉语中的概念转喻及其语法学后果」, 『语言教学与研究』 第 1 期,

30-43.

姚双云・储泽祥(2003), 「汉语动词后时量、动量、名量成分不同现情况考察」, 『语言科学』第5期, 56-70.

姚伟嘉(2010),「动量词“番”探源」,『南京师范大学文学院学报』第4期, 185-188.

杨永忠(2007),「Vi+NP句法异位的语用动机」,『汉语学报』第1期, 58-65.

张建・谢晓明(2007),「表示动量的“遍”和“次”」,『语言教学与研究』第4期, 34-39.

张慧丽・潘海华(2019), 「汉语句尾信息焦点与重音实现」, 『当代语言学』 第1期, 23-42.

周娟(2008), 「动量词‘遍’的语义探讨」,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期, 99-109.

周韧(2006),「汉语信息焦点结构的韵律解释」,『语言科学』第3期, 24-38.

Allan, Keith(1980), Nouns and countability, *Language* 56, 541–547.

Chik, P. P., Ho, C. S., Yeung, P., Chan, D. W., Chung, K. K. & Luan, H. (2011), Syntactic skills in sentence reading comprehension among Chin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4, 1–22.

Carlson, Greg N.(1977), A unified analysis of the English bare plur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413-456.

Du Bois, J. A. (1985), Competing motivations, in J. Haiman (ed.), *Iconicity in Syntax*, John Benjamins, 343–66.

Daneman, M.& Carpenter, P. A. (1980),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and reading,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9, 450-466.

Dowty, Davi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Ekkehard, König(1993), Focus particles, in Jakobs, J. et al. (eds.), *Syntax1: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Walter de Gruyter, 1978-1987.

Fleischman, Suzanne(1985), Discourse functions of tense-aspect oppositions in narrative: Toward a theory of grounding, *Linguistics* 23, 851–882.

Gundel, J. K.(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Bosch, R. van der Sandt (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127.

Haiman, John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3), 515-540.

Hopper, Paul J. (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in Talmy Givón(ed.), *Discourse and Syntax*(Syntax and semantics, 12), New York: Academic Press, 213-241.

Hopper, Paul J.&Thompson, S. A.(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299.

Huang, C.-R.& Ahrens, K.(2003), Individuals, kinds and events: Classifier coercion of nouns, *Language Sciences* 25, 353–373.

Hinds, John (1983), Topic continuity in Japanese, in Talmy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43-93.

Krifka, Manfred(2007), Basic notions of information structure, in Féry, C., Fanselow, G., & Krifka, M. (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Information Structure* 6, 13-55.

LaPolla, R. J. (1995), Pragmatic relations and word order in Chinese, in P. Dowing, & M. Noonan (eds.), *Word Order in Discourse*, Amsterdam: Benjamins, 297-329.

Lakoff, George(1977), Linguistic gestalts, in W. Beach, S. Fox & S. Philosoph (eds.), *Papers from the Thirte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236-287.

Paris, M.-C.(2013), Verbal reduplication and verbal classifiers in Chinese, in G. Cao, H. Chappell, R. Djamouri, T. Wiebusch(eds.), *Breaking Down the Barriers: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Chinese and Beyond*, Taipei: Academia

Sinica, 257–278.

Prince, E. F.(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Massachusetts: Academic Press, 223–254.

Partee, B. H.(1991), Topic, focus and quantification,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159-188.

Rosch, Eleanor(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Sun, Chao Fen&Givón, Talmy(1985), On the so-called SOV word order in Mandarin Chinese: A quantified text study and its implications, *Language* 61(2), 329-351.

Tomlin, Russell S.(1985), Foreground-background information and the syntax of subordination. *Text -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5*, 85-122.

van den Noort, M., Bosch, P., Haverkort, M. & Hugdahl, K.(2008), A Standard computerized version of the reading span test in different languag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4, 5–42.

Wallace, L.Chafe(1972), Discourse structure and human knowledge, in R. O. Freedle & J. B. Carroll (eds.), *Language Comprehens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Washington: Winston, 41-70.

Wallace, L.Chafe(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133.

Wallace, L.Chafe(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C. N. Li (Ed.), *Subject and Topic*, 25-55.

Wallace, L.Chafe(1984), How people use adverbial clauses, in C. Brugman, M. Macaulay (Eds.), *Proceedings of the Ten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37-449.

Zhang, Niina(2017), The syntax of event-internal and event-external verbal classifiers, *Studia Linguistica* 71, 266-300.

3. 학위논문

소영(2014),「현대중국어 차용동량사의 체계와 어법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진(2014),「동량구와 목적어의 어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수(2021),「현대중국어 동량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高俊霞(2006),「现代汉语方式宾语研究」,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何洪峰(2006),「汉语方式状语研究」,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李湘(2011),「汉语事量词及相关句法结构的认知与功能研究」, 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

刘辉(2009),「现代汉语事件量词的语义和句法」, 上海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周娟(2007),「现代汉语动词与动量词组合研究」, 暨南大学博士学位论文.

Deng, Dun(2013), *The syntax and semantics of event quantifiers in Mandarin Chines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Lu, Bingfu(1998), *Left-right asymmetries of word order variation: A functional explan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ang, C.-C.J.(1990), *Chinese phrase structure and the extended X'-theory*,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Yang, Rong(2001), *Common nouns, classifiers and quantification in Chinese*, Doctor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4. 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

한국국립국어원 중국어 표기법: https://www.korean.go.kr/

BCC语料库: http://bcc.blcu.edu.cn/

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现代汉语语料库: http://CCL.pku.edu.cn/

中国国家语委语料库-语料库在线: http://corpus.zhonghuayuwen.org/

媒体语言语料库(MLC): http://ling.cuc.edu.cn/RawPub/

郭先珍(2002),『现代汉语量词用法词典』, 北京: 语文出版社.

吕叔湘(1999),『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孟琮・郑怀德・孟庆海・蔡文兰(1999),『现代汉语动词用法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2016),『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Crystal, David (1980), *A first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London: Deutsch.

【中文摘要】

现代汉语动量短语与宾语语序研究

首尔大学中文系

王贝贝

现代汉语中动量短语与名词性宾语在动词后同时出现时可以有两种语序，一种是动量短语在前、宾语在后的结构，本文记为“V+Q+N”；一种是动量短语在后、宾语在前的结构，本文记为“V+N+Q”。本文主要从句法、语义、语用和篇章等几个方面来研究动量短语与宾语的语序问题。

在论述语序问题之前，本文先进行了相关的基础研究，在第一章具体分析了各个专用动量词的语义特征，并对专用动量词进行了大致的语义分类，理清了动量词内部的层次，因为动量词内部的语义差异会影响其句法结构和信息结构。第二章则分析了两种语序的句法结构。从句法层次看，“V+Q+N”结构中，有的 Q 与动词的关系更紧密，因而更适合判断为补语，而有的 Q 与宾语的关系更紧密，因此更适合判断为宾语。另外，有的 Q 则似是而非，既像补语又像宾语，因此，本文提出一个新的见解，即 Q 是一个由补语到宾语的连续统。至于“V+N+Q”结构，本文认为 Q 的基本句法性质是补语，只不过“一+动量词”发生虚化时，Q 具体来说应该是“动相补语”。

第三章从语义角色的角度来考察哪些语义角色只能出现在动量短语之后，而哪些在动量短语前后都可以出现。通过大规模的句法变换测试，本文发现，有生受事、有生对象和终点场所等语义角色与“事件外”动量词结合时可以实现两种语序，其他语义角色只能位于动量短语之后；“事件内”动量词“下”的情况是个例外，能与“下”结合的语义角色中，与生命度无关，只要是受事都可以在动量短语前后出现。除此之外，其他语义角色也只能位于动量短语之后。本文认为造成这种格局的原因是及物性等级的差异，也就是说，某个语义角色与动量短语结合时，其及

物性等级要高到一定程度才能在动量短语之前出现。

第四章和第五章从信息结构的角度来考察了语序的影响机制。首先，本文利用“指示对象心理表征”理论来说明语序选择的倾向性，在每个句子当中，N 的指示对象心理表征是不同的，这些 N 是否是可识别的，是否是激活的，都会影响语序的选择。本文利用封闭语料库进行了统计，结果发现，“V+N+Q”中的 N 一般来说是可识别或者激活程度较高的对象，而“V+Q+N”中的 N 相对来说，一般是不可识别或者激活程度较低的对象。换句话说，如果一个 N 是可识别或者激活程度较高的话，话者采用“V+N+Q”语序的可能性较高，反过来则倾向于使用“V+Q+N”语序。其次，假设两个结构的真值语义相同，N 的语义相同，激活程度相似，此时需要借助焦点结构来说明语序选择的机制。通过论证，本文发现在中性语境中，“V+Q+N”所在的句子的自然焦点并非在 N 上，其基本焦点结构为谓语焦点。此时话者的主要意图是对话题进行评述或者只是对事实进行陈述。这个结构所表现的事件只是叙述的一环，其功能是链接前后句子，其焦点结构是无标记的。而“V+N+Q”相对来说是有标记的焦点结构，话者对事件或动作的次数更为关心，如果要对事件每次发生时的细节进行详细描述时，更倾向于将动量短语放于句尾，并赋予句法重音，使之成为焦点。此时焦点辖域内只有一个成分，因此“V+N+Q”所在句子的焦点结构一般是论元焦点。不过，如果 Q 是一个虚化的成分时，焦点辖域还是会扩展到整个谓语，从而成为谓语焦点。另外，当两种结构所在句子里有焦点敏感算子时，不管是那种语序，焦点都自动落在数量结构上，此时两种结构都是动量短语充当焦点。

第六章从篇章分析的角度来看两种结构的语篇功能。首先，“前景-后景”是从篇章的角度来看在文本中一个句子与其他句子相比时所占的权重。因此主要分析两种结构所在句子在局部文本中的信息地位。本章只考察 N 为可识别对象的情况，通过对封闭语料的分析，本文发现“V+N+Q”结构更倾向于在后景中出现。而“V+Q+N”结构则没有这一特征，它在局部语篇中任意充当前景或后景。另外，“V+N+Q”结构出现在从属结构或内嵌结构中的比例要显著高于“V+Q+N”结构。这说明，话者要将动量短语与宾语共现的句子处理为后景信息时，会优先使用“V+N+Q”结构。其次，两个结构中的 N 在话题延续性这个参数上的表现也有所差

异。本文主要考察两个结构中的 N 出现之后，其在后续语篇中是否会成为陈述或者议论的中心。结果发现，相对于“V+Q+N”结构，“V+N+Q”结构中 N 为有生受事或对象时在后续语篇中被重新提及的概率更高，话题连续性更强。这说明，在局部语篇中，如果 N 是话者认为重要的陈述对象时，更倾向于把 N 放在 Q 之前。

以上是本文按照一定顺序所导出的语序选择影响因素，但实际的情况很可能是，一种语序产出时，各种因素共同作用，有些强势，有些弱势；或者并不是所有因素都显现，而是只有一部分发生了作用。总之，先行研究只从某个角度来研究该问题，而本文所进行的多层次多角度分析，综合揭示了影响动量短语与名词性宾语语序的各种因素，同时也从认知心理学的角度分析了这些因素发生作用的深层机制。

关键词：动量短语，宾语，语序，句法结构，及物性，语义角色，指称对象心理表征，焦点结构，篇章分析，前景，后景，话题延续性，距离相似性

学　号：2018-34669